

안동



온라인에서도
〈KTX매거진〉을
볼 수 있습니다.

05

CONTENTS

2023.05

040 테마 여행 안동



경북 안동에서 마주한 꿈같은 장면을 되새긴다. 하회마을 만송정 숲에서 하회별신굿탈놀이 이수자 이두리와 전수생 류호철이 보여 준 춤사위, 원지정사 마당에 쏟아지던 봄별과 꽃잎. 그것으로 안동을 영원히 기억한다.



AHILO

2023.05



008

세계 도시 이야기

은은한 황금빛 왕국 브루나이의 수도 반다르스리브가완으로 모험을 떠난다.

010

우연한 발견

종이와 필기구만으로 충만했던 시절을 추억하며, 쓰는 여행을 계획한다.

012

주방 속 여행

자연 그대로의 식재료를 한식을 연구하는 이타닉 가든 손종원 셰프를 만났다.

014

맛집 탐방

지금 Z세대는 제대로 먹고 마시기 위해 서울 황학동 시장통으로 간다.

058

기차 타고

별 따스한 날, 경남 밀양에 들어 초록빛 가득한 풍경 속을 거닐었다.

068

이 계절 이 여행

옛 철도병원이 박물관으로 다시 태어났다. 서울 용산역사박물관에 다녀왔다.

074

촬영지 여행

올해도 어린이날에 가장 붐빌 그곳, 놀이공원에서 촬영한 작품을 찾아봤다.

080

작가의 방

신미경은 비누라는 이름의 시간을 조각한다. 닳아 없어지는 찬란한 순간을 박제한다.



KORAIL INFORMATION

098

한국철도 소식

106

편의 시설 및 부가 서비스

108

열차 이용 안내

110

비상시 행동 매뉴얼

<KTX매거진>은 시각장애인과 외국인인을 위한 '보이스아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용 애플리케이션으로 바코드를 스캔하면 글을 읽어 서 들려주며, 60여 개 언어로 번역도 지원합니다. 자동 번역기를 사용하기에 번역이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역시 서울우유~”



제조일자
신선함의
기준입니다

우유는 목장에서 갓 나와야 신선합니다
갓 나온 우유인지는 제조일자로 확인하세요!



들어가는 글



담쟁이가 칭칭 감은 붉은 벽돌 외관이 아름다워,
길을 걷다 멈춰 서서 바라보곤 하던 건물이 있어요.
줄곧 빈 채라 왜 이 큰 건물을 그냥 두지,
오래되었다고 하루아침에 허물어 버리진 않을까 조바심 났지요.
어느 날 공사를 시작하더니 세상에, 박물관이 되었던대요.
서울 용산역사박물관은 전시 내용도 흥미로운데,
1928년 지은 철도병원 흔적이 곳곳에 묻어나서
더욱 가슴 찡했어요. 긴 시간 동안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예전엔 창문 밖으로 하늘이 들어왔겠지만
지금은 고층 빌딩이 띄네요. 그래도 햇살이 이 둥그란 창을
통과하면서 만든 타원은 그대로예요. 반질반질한 난간은
소중해서 만지지도 못했습니다. 창문, 난간, 여기에
태양의 작품인 타원까지. 이달에도 좋아하는 것이 또 늘었어요.

<KTX매거진> 편집장 김현정

KTX

바로 지금, 여행

MAY 2023

2023년 5월호 제20권 제5호 통권 제227호
2023년 5월 1일 발행

발행인 고준영(한국철도공사 사장직무대행)

편집
(주)서울문화사 02-3785-0900
서울시 용산구 새창로 221-19

편집인 심정섭

편집장 김현정 kimhj@seoulmedia.co.kr
수석 기자 강은주 unddu@seoulmedia.co.kr
기자 남혜림 nhr@seoulmedia.co.kr

교열 오미경 번역 박경리

디자인
아트 디렉터 권영주 kyj@seoulmedia.co.kr
디자이너 임보영 lby@seoulmedia.co.kr
객원 디자이너 엄정윤

사진
라이트팩토리(LIGHT FACTORY)
070-4119-3014
디렉터 신규철
실장 이규열 조지영 이철 박정우

광고
팀장 조현익 jony2@seoulmedia.co.kr
부장 심재우 jwshim22@seoulmedia.co.kr
사원 김수연 ktxad@seoulmedia.co.kr

배포 소장 이재우

경영지원실 본부장 정영기

제작팀 팀장 이수행
차장 정승현 과장 정수호

기획팀 팀장 임응욱 차장 박선주 사원 조소연

인쇄 (주)타라티피에스

<KTX매거진>은 KTX와 ITX-새마을, ITX-청춘 열차 내 전 좌석에 비치하는 월간지입니다. 보신 뒤에는 다음 승객을 위해 제 자리에 꽂아 주시기 바랍니다. <KTX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문의 편집 02-799-9338 광고 02-799-9175

Panasonic

2023 파나소닉 가정의 달 고객감사 이벤트

건강선물, 효도선물, 보답선물,
사업선물, 은퇴선물

품격이 다른 파나소닉 안마의자를
보내 드리세요

언제나 사랑받는 안마의자
88년
선진안마기술집약체

4년
무상보증
1년+3년



MAK1

파나소닉 안마의자를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 가격할인 및 사은품을 드립니다

[기간: 5/1~5/31]



MAJ7



MAF1



MA32



MAC9



MA05



내 손안에 펼쳐지는 KTX매거진

SNS에 #KTX매거진을 태그해 올려 주세요.



@ktxmagazine



*당첨자에게는 인스타그램으로 메시지를 드립니다.



대구에서 딱 하나

대구트립



- #맛집
- #카페
- #투어_액티비티
- #패스
- #숙박
- #길안내
- #추천코스
- #할인쿠폰
- #이_모든걸_하나의_어플에서!





황금빛 술탄 왕국의 배꼽, 반다르스리브가완

말레이시아와 국경을 맞댄 위풍당당한 나라, 브루나이의 수도 반다르스리브가완으로 떠나는 신비로운 모험에 당신을 초대한다.



+ 로열브루나이항공

최근 인천-브루나이 노선이 주 2회(수·토요일) 운항에서 화요일 출발 편을 추가해 주 3회 운항으로 확대, 보다 편안한 여행 일정을 제공한다. 로열브루나이항공은 브루나이로 향하는 인천 출발 단독 직항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브루나이라는 이름이 낯설게 느껴진다면 일단 지도 앱을 펼친다. 한반도 남서쪽으로 죽 내려가다가 남중국해 보르네오섬에 다다라 시선을 멈춘다. 브루나이 왕국은 이 섬의 북서 연안에 자리한다. 흥미로운 건 말레이시아 사라왁주 림방 지역이 브루나이 영토를 둘러싸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브루나이는 동쪽 끝에서 서쪽 끝으로 가기 위해 국경을 두 번이나 넘어야 하는 나라다.

한때 브루나이는 유럽 열강의 침략으로 주권을 잃어 영국 보호령에 속했으나, 1984년 왕국으로 독립해 지금까지т 자존을 지키고 있다. 전제군주인 술탄은 새해가 되면 모든 국민에게 소정의 세뱃돈까지 지급할 만큼 위세가 드높다. 국토 면적 5765제곱킬로미터, 제주도의 세 배 정도에 불과하지만 저력은 대단하다. 브루나이만 깊은 바닷속에 원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단단한 경제력 덕분일까, 브루나이 최대 도시이자 수도인 반다르스리브가완에는 황금으로 새겨 넣은 모자이크와 영국산 스테인드글라스, 이탈리아산 대리석 등 빛나는 소재로 만든 모스크 오마르 알리 사이푸딘이 도시의 얼굴처럼 우뚝 서 있다. 술탄 궁전인 이스타나 누를 이만, 초대형 모스크인 자메 아스르 하사날 불키아의 면면도 영롱하고 호화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이슬람 건축의 조형미를 충분히 감상했다면, 토속적인 삶의 향기가 물씬한 전통 수상가옥 마을 캉퐁 아에르로 걸음을 옮긴다. 수만 명이 살아가는 이곳은 지구상에서 손꼽히는 규모와 역사를 간직한 수상가옥 단지다. 보트를 타고 브루나이강을 누비며 마을을 둘러볼 때, 바람결에 흩날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물결에 부서지는 노란 햇살이 여행자의 마음을 벅차오르게 할 것이다. **K**



쓰는 여행

한 손은 쥐를 누르고 다른 손은 필기를 쥐다. 그리고는 적어 내린다. 생각을, 마흔, 전하지 못한 이야기를. 챗GPT 시대, 우리는 여전히 펜으로 쓰는 존재다.



종이와 펜만 있으면 모든 게 가능하다고 믿었다. 적어도 12년 전엔 그랬다. 옛그제 봄맞이 대청소를 하다가 배낭여행 중 흘러 쓴 일기와 메모를 발견했다. 접이식 지도나 관광 정보지 한 귀퉁이에 두서없이 끼적인 글줄, 절절히 눌러 썼으나 전하지 못한 엽서들. 스마트폰 없이 떠난 마지막 여행의 기록물이다. 아아, 우리는 무얼 바라 문명의 이기를 누리는 걸까. 바삭한 종이와 차갑고 매끈한 펜의 촉감, 머리와 심장에서 손끝으로 뿜겨나온 원가를 밀어내는 감각. 손가락에 굳은살이 박일 만큼 쓰고, 또 쓰고, 무수히 쓰던 날들이 언제부턴가 희미하기만 하다. 쓰는 쾌감을 되찾을 수 있을까? 더 늦기 전에 종이와 필기구를 마음껏 놀리기 위한 짧은 여정을 계획하기로 한다. 마침 펜을 들어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하기 좋은 계절이다.

첫 번째 목적지는 감정서가(@gamijungseoga)다. 서울 용산역 근방에 자리한 서울예술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공간으로, 일상에서 흘러보낸 감정을 길어 올릴 수 있도록 사려 깊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입장과 함께 받아 든 '감정카드'에 떠오르는 감정을 적고 사서함에 넣으면, 큐레이션 거쳐 문장 전시 아트 월에 걸리거나 <감정출판>이라는 한 권의 책으로 묶여 나온다. 쓰는 행위만으로 예술에 동참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으니 얼마나 근사한가. 카드를 쓰지 않아도 좋다. 고요와 물음을 유도하는 널찍하고 차분한 테이블, 정갈하게 비치된 필기구를 이용할 수 있으니 일기든 편지든 쓰기를 미뤄 둔 그 무엇이든 시작해 본다. 곳곳에 걸린 유려한 문장을 곱씹으면서 필사하는 일도 즐거울 것이다.

이번엔 쓰기를 공감각적으로 체험할 차례다. 서울 망원동 다다랩(@cafedadalab)의 인사말은 다음과 같다. "주문하신 문장을 내려 드립니다." 말 그대로 '작업 지시서'에 문장을 써서 주문하면 주인장은 이것을 커피와 차와 술로 번역해 오직 하나뿐인 한 잔을 완성한다. 글이 맛과 질감을 가진 액체가 되어 눈앞에 나타나는 풍경은 펍 마술적이다. 레트르 성수(@rettre_seongsu)는 서울 성수동 카페거리 한가운데 자리한 향수 공방으로, 나만의 향수를 만드는 원데이 클래스가 끝난 뒤 조향의 순간을 물리적으로 각인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편지를 남기는 '레트르 프로젝트'를 진행

한다. 편지는 1년 뒤에 돌려준다. 과거의 문장을 읽으며 향과 추억을 환기하는 경험까지 선사하는 셈이다.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필기구 애호가의 성지 모나미 스토어(@monami_official) 성수점이 있다. DIY 펜 만들기만큼 흥미진진한 체험 프로그램 '잉크랩'을 이용하면 여러 가지 잉크를 배합해 나만의 색깔, 나만의 잉크를 완성하도록 도와준다. 잉크의 오묘한 향, 촉감, 고유한 정서를 음미하며 쓰기에 대한 열망을 북돋우는 시간이다.

쓰는 여행은 서울 연희동을 산책하는 것으로 갈무리한다. 이곳엔 쓰는 존재를 위한 세 공간이 모여 있다. 순우리말로 편지를 뜻하는 글월(@geulwooll.kr)이 연희동우체국 바로 옆 건물 4층에 들어선 건, 우연일까? 이름처럼 편지에 대한 모든 것을 취급하는 이곳에서는 단정한 편지지와 필기구는 물론, 낯선 이와 펜팔을 주선하는 '펜팔 서비스'란 콘텐츠를 마련한다. 우체국 다음 블록에 자리한 포셋(@poset.official)엔 사진과 일러스트와 그래픽 등으로 디자인한 아름다운 엽서 3000여 장이 정연하게 진열돼 있다. '엽서 도서관'이란 별칭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풍경이다. '기록보관소'를 이용하면 혼자 또는 여럿이 사용 가능한 수납함과 기록을 위한 좌석까지 제공해 준다. 아는 사람만 안다는 비밀 책방 페이퍼(@paperr.bookshop)가 특별한 이유는 아기자기한 소모임과 커뮤니티에 있다. 글쓰기도 그림 그리기도 아닌, 오직 낙서에 탐닉하는 '일상 낙서 프로젝트' 모임, 두들페이퍼(@doodlepaperr)를 꽤 오래전부터 눈여겨보고 있다. 새로운 멤버 모집이 언제더라? 펜을 들고 싶어서 온몸이 달뜬다. k

▼ + 쓰는 여행자를 위한 목록

이립 제주도 제주도 한경면에 들어선, '레터하우스'를 표방하는 작은 티룸. 편지지와 차를 한 세트 마련한다. @erip-jeju

티디에스 대구시 남구 대명동의 문구 숍. 여기서 낯선 이에게 편지를 쓰면, 누군가가 쓴 편지 한 통을 돌려받는다. @from.tds

제50회

차진장군 노국공주축제

행사기간 : 2023. 5. 4 (목) ~ 5. 8 (월) 5일간

장소 : 구 안동역(모디 684) 원도심 일원

주최 : 안동시 주관 : 안동문화원

행사내용 : 문화재공연·풍물경연·대형초청공연·민속체험존





계절을 담은 한식 이타닉 가든

서울 조선 팰리스 이타닉 가든의 손종원 셰프를 만났다. 그는 늘 자연이 주는 식재료를 탐구하고, 새로운 한식을 연구하는 데 여념이 없다.

자연에 시간을 더하면 계절이 된다. 흘러가는 시간에 몸을 맡긴 채 살아가는 생명들은 계절에 맞춰 새 잎을 틔우고 꽃을 피워 내며 열매를 맺는다. 손종원 셰프는 그런 흐름을 유심히 지켜보는 이다. 언제 무엇이 가장 싱싱한지, 어떤 맛을 품고 있는지를 살펴 요리한다. 그에게 요리와 메뉴 개발은 자연을 연구하는 과정이다. 비취색 인테리어가 단아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이타닉 가든에서 손종원 헤드 셰프의 연구를 엿보았다.

익숙함에서 새로움을 찾다 '이타닉 가든'을 한글로 풀면 식(食)물원이에요. '심을 식'이 아닌 '먹을 식'을 씁니다. 이곳은 늘 새로운 한식을 추구합니다. 그 과정에서 잊힌 한식 문화를 끌어내 다시 세상에 내놓고 소개하기도 해요. 한국 사람은 당연히 한식을 먹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이상 찾지 않는 한식도 많아요. 예시로 신선로를 들어 볼게요. 한국의 대표적인 궁중 음식이고 다른 나라에 한식을 알릴 때도 종종 등장하지만, 한국인이 실제로 신선로를 먹을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일상에서 자주 보는 음식이 아닐뿐더러, 먹은 적이 없으니 몰라서 찾는 이가 많지 않니까요. 저는 이런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기록 속에 잠든 한식을 발굴해서 발전시키고 한국인, 외국인 할 것 없이 맛있게 하고 싶어요. 과거의 요리라 할지라도 그 음식을 한 번도 먹어 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충분히 새로우니까요.

진심으로 하고 싶은 것 처음부터 셰프라는 직업을 목표로 공부하지는 않았어요. 원래 토목학을 전공했습니다. 대학에서 여러 번 시험을 거친 후 깨달았어요. 단순히 노력만 하는 사람은 진심을 다해 즐기는 사람에게 역부족이라는 것을요. 그러다 대학교 4학년 때 우연히 미국 뉴욕의 CIA 요리학교에 방문할 기회가 생겼어요. 그곳을 보고 가슴이 설렘. 교육과정도 훌륭했지만, 학생들 표정이 행복해 보였어요. 그 후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건 뭔지 고심했어요. 답은 요리였습

니다.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요리의 길을 걷기 시작해 여기까지 왔네요. 처음엔 많이 힘들었어요. 늦게 시작했다는 사실이 콤플렉스이기도 했어요. 그래도 제가 도달하고 싶은 목적지는 하나였습니다. 바로 한식이에요. 2018년에 오픈한 컨템퍼러리 레스토랑 '라망 시크레'에서 헤드 셰프를 맡았을 때도 한식을 계속 공부했어요. 궁중음식연구원에 다니고, 강의가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가서 들었습니다. 현재는 이타닉 가든 헤드 셰프를 맡은 덕분에 한식을 더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중입니다.

음식에 계절을 담다 5월 말까지 선보이는 봄 코스에는 생명력을 담았습니다. 꽃향기, 풀 내음 등 봄에 느껴지는 향이 두드러지도록 레시피를 구성했지요. 메인 요리는 죽순을 주제로 만들었는데, 솟아나는 죽순의 이미지가 봄과 잘 어울리지 않나요? 코스 메뉴를 구성할 때는 이런 순서를 거칩니다. 그 계절에 한국에서 나는 맛있는 식재료가 무엇인지 떠올려 보고, 재료를 어떻게, 어떤 것과 조합할지 고민합니다. 예를 들면 여름 과일인 참외를 사용할 때 해산물과 조합해 냉채처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상상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종이에 메뉴가 완성된 모습을 대략적으로 그린 뒤, 큰 보드판에 붙여 놓습니다. 이타닉 가든의 메뉴 이름은 대부분 식재료입니다. 그만큼 식재료가 요리에서 중요하다는 뜻이지요. 이타닉 가든과 라망 시크레, 두 레스토랑 모두 계절마다 메뉴를 리뉴얼해서 늘 창작의 고통에 시달리곤 해요. 풍부하고 새로운 맛의 음식을 만들고 싶다는 열망은 모든 셰프가 느낄 거예요. 최근에는 여름 메뉴에 쓸 재료를 선정 중이에요. 이 과정도 거의 끝나 갑니다. 6월부터 선보일 여름 코스를 기대해 주세요.

함께 성장하는 주방 주방에는 약속이 많습니다. 레시피, 손님에게 요리가 나가는 방식 등이지요. 엄청나게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함께 일하는 모두가 약속 앞에서 타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팀원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방의 치열함을 축구 경기에 곧잘 비유하곤 하는데, 감독이 전략에 뛰어나거나 실력이 월등한 선수가 한 명 있다고 해서 무조건 경기를 이기는 것은 아니지요. 감독과 모든 선수가 손발을 맞춰 골을 넣듯, 주방도 재료 손질부터 손님상에 요리를 내기까지 모든 팀원의 손발이 맞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팀원들과 같이 성장하고 싶어요. 어제보다 오늘 더, 한 걸음이라도 전진하고 싶습니다. **K**

손종원 셰프가 추천하는 미식 공간

세계 각국의 음식·외식 전문가가 투표로 선정하는 '2023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15위에 오른 서울의 양식 레스토랑 모수를 추천합니다. 안성재 셰프님이 펼치는 우영 요리가 입소문 난 곳이지요. 프랑스 가정식을 소개하는 서울 메종조는 맛있는 음식을 편안하게 먹고 싶을 때 즐겨 찾는 공간입니다. 사르퀴트리와 빵의 조화가 그만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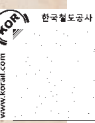


손종원 미국 뉴욕의 CIA 요리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미쉐린 3스타 레스토랑 '퀸스', 2스타 레스토랑 '코이' 등을 거쳐 세계 각국의 음식·외식 전문가 1000여 명이 투표해 선정하는 '더 월드 50 베스트 레스토랑' 1위를 차지한 덴마크 퀴벤하운의 '노마' 등에서 근무했다. 현재는 서울에 위치한 레스토랑 '라망 시크레'와 '이타닉 가든'의 헤드 셰프를 맡고 있다.



▲ 재료가 주인공인 음식, 콩과 두름

사찰 음식점 '두수고방'의 순두부에서 영감을 받은 '콩'이 나오면 모두 생김새를 보고 감탄합니다. 우선 콩물을 혼연해서 콩물 커드를 만들어요. 여기에 발효한 표고버섯과 영양부추를 넣고, 달걀을 이용해 수목화처럼 그림을 그린 뒤 마지막으로 국내산 캐비아를 얹습니다. 짭조름한 캐비아와 부드러운 콩물 커드가 훌륭한 조화를 이루지요. '두름'은 냉채로 표현했어요. 데친 두름과 새우 위에 감오징어, 엔다이브, 사과, 미나리 절임 등을 말 듯이 얹고, 그 위에 빵은 잣과 고소한 소스를 곁들입니다. 두름 향과 소스의 고소함이 기분을 끌어올려 줄 거예요.



타코에서 하이볼까지, 황학동 시장 골목 탐험

제대로 먹고 흥겹게 마시기 위해 서울 중구 황학동 시장통으로 흘러들었다. 서울중앙시장에서 도깨비시장까지, 밀도 높은 골목을 헤치고 발견한 매력적인 미식 공간 다섯 곳을 소개한다.



라카에



라카에 타코는 길거리 음식이니, 북적북적한 시장통만큼 타케리아가 들어서기에 적당한 곳도 없을 것이다. 서울중앙시장 한복판, 젓갈을 파는 '지원이네'와 건어물을 취급하는 '하나유동' 사이에 조금은 낯선 상호 '라카에(La Calle)'가 들어앉았다. 이름만 그렇다 뿐이지 이곳에서 뿜어내는 냄새와 연기와 왈칵한 분위기는 시장 골목과 조금도 이질감이 없다. 멕시코 음식을 현지 맛 그대로, 현대적으로 구현해 온 F&B 그룹 몰리노 프로젝트가 서울 성수동 다음으로 황학동에 두 번째 기지를 마련한 이유다. 길거리 음식이라고 해서 제조 과정이 간단한 건 아니다. 우선 검은 옥수수를 손질해 반죽하고 토르티야를 굽는 데서 시작한다. 먼 옛날 아즈텍 문명으로부터 전해 온 방식 그대로다. 멕시코시티에서 공수한 바비큐 기계 트롬포에 돼지고기를 끼워 알 파스틀을 온종일 훈연하고, 두 가지 맛 살사도 손수 제조한다. 대표 메뉴는 단연 알 파스틀 타코인데, 시장 상인들이 자주 찾는 메뉴는 소곱창 타코다. 따끈한 타코를 손에 쥐었다면 라임을 짝 찌서 취향껏 살사를 뿌려 맛을 차려다. 함께 마실 거리는 웅실란을 증류한 멕시코 전통 술 메스칼을 권한다. 달콤쌉싸래한 한잔 술과 기름진 타코 한 입, 세상 그 누구도 부럽지 않다.

라카에 주인장이 추천하는 황학동 맛집
섬가물탕병 "30년 동안 해산물을 요리해 온 노련한 식당으로, 주꾸미와 아구찜이 훌륭합니다."



☞ 알 파스틀 타코 3800원 소곱창 타코 5000원
📍 서울시 중구 퇴계로85길 42 📱 @la.calle_official

TRAVEL TIP

수도권 전철 2호선 신당역 일대는 시장과 주거 지구가 혼재하는 상권으로 다양한 연령대의 유동 인구를 거느린다. 그런 덕분에 불균질적이고 독특한 이곳만의 문화와 정취가 자리 잡았고, 르네상스라 할 만한 '힙당동(신당동)' 현상으로 이어졌다. 다만 힙당동 대표 주자로 불리는 토포키와 하니칼국수, 그리고 이 지면에 소개하는 다섯 곳은 모두 행정구역상으로는 황학동에 속한다.

올로지



▲ 아란차 3800원 B코스(아란차, 초콜라토, 에스프레소) 7700원
 ☞ 서울시 중구 퇴계로87길 3-8 ● @espressoology

올로지 한국 전통시장에서 이탈리아식 카페 전통을 잇는 에스프레소 바를 만난다. 오렌지 마멀레이드와 에스프레소, 크림을 올린 아란차 한잔을 훌쩍 이다가 통창 너머로 복적거리는 골목을 내다본다. 낡은 건물 고유의 아늑한 분위기가 감도는 이곳은 마치 오래전부터 거리를 지켜 온 듯 풍경 속에 스며 있다. 느긋하게 앉아 공간을 음미하고 싶다면 세 가지 커피를 세트 구성한 코스 메뉴를 선택한다. 아란차와 초콜라토, 에스프레소로 이루어진 B코스가 베스트셀러다. 기운을 북돋울 새 메뉴 '예거밤프레소'도 곧 출시한다.

올로지 주인장이 추천하는 황학동 맛집

신당육 "독보적인 맛을 자랑하는 데다, 루프탑 전망이 기막힌 숙성 고기 전문점입니다."



계류관



▲ 참나무 능이 장작구이 2만원 닭 모듬전 2만 3000원
 ☞ 서울시 중구 퇴계로87길 15-17 ● @wood_fire_bamm

계류관 장작불에 닭고기 굽는 광경이 눈과 코와 혀를 맹렬히 자극한다. 닭 가슴살 연골 완자부터 닭 모래집 대파 튀김까지, 닭으로 만든 온갖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곳이지만 주인공은 아무래도 참나무 능이 장작구이다. 능이버섯, 표고버섯, 은행, 마늘을 넣어 지은 찰밥과 닭을 한 시간 이상 구워 내 '겉바속촉'의 궁극에 도달한다. 여기에 씨앗 짓갈과 특제 된장 소스를 곁들이니 풍미가 한결 살아난다. 닭 다리살은 물론 닭 안심과 염통 등 다양한 재료로 부친 닭 모듬전은 전남 영광산 대마막걸리의 가장 충실한 벗이다.

계류관 주인장이 추천하는 황학동 맛집

난바스넥 "치킨난반 등 안주와 여러 가지 하이볼이 맛깔스러운, 이국적인 스낵 바입니다."



2023 문화역서울284 공예기획전

다시, 자연에게 보내는 편지

2023.04.04-06.04

문화역서울284 본관



sshp

▲ 알배추 구이 1만 5000원 뚝배기 그라탕 2만원
 ♣ 서울시 중구 퇴계로87길 49-12 @sshp_sindang

sshp(쓰플) 쌀, 홉, 포도에서 비롯한 여러 가지 술과 그에 어울리는 안주를 즐기며 차곡차곡 맛의 지평을 넓히는 공간. 온기가 가득한 나무 테이블 위로 치포틀레 소스를 얹은 알배추 구이와 오소리감투, 돼지 껍데기, 향정살 등을 잔뜩 투하한 뚝배기 그라탕이 오른다. 알배추 구이엔 레몬·생강·복숭아 등 산뜻하고 향기로운 재료로 빚은 탁주 '사랑과 용기'가, 뚝배기 그라탕엔 제주산 메밀과 도라지 향이 그윽한 증류주 '제주낭만'이 근사하게 어울린다. 바 좌석의 '혼술라'를 위한 잔술 메뉴가 다정하다.

sshp 주인장이 추천하는 황학동 맛집

곰부부식당 "시장 상인들의 단골집으로, 새벽까지 냉동 삼겹살을 맛보는 곳이랍니다."



독주

▲ 양갈비 프렌치랙 스테이크 3만 6000원 향정살 튀김과 암운센 2만 8000원
 ♣ 서울시 중구 퇴계로87길 23-16 @dokju.sindang

독주 커다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올드 힙합의 강렬한 비트가 시장 골목을 왕왕 울린다. 붉은색 바 테이블에 앉아 리듬을 타며 주문한 요리와 술이 나오길 기다린다. 먼저 등장한 것은 양갈비 프렌치랙 스테이크. 촉촉하고 부드러운 고기 한 점에 구운 아스파라거스 한 입 하고, 독주 하이볼 한 모금을 들이켠다. 향정살 튀김을 올린 타이식 샐러드 암운센엔 오이를 얇게 저며 넣은 헨드릭스 진 토닉이 제격이다. 알코올이 당기지 않는 이에게는 파인애플 향이 산뜻한 목테일 신데렐라가 매력적인 대안이 되어 준다.

독주 주인장이 추천하는 황학동 맛집

미미짱식당 "7000~8000원으로 이렇게나 알찬 백반 한 상을 즐길 수 있는 곳도 흔치 않아요."



中国茅台 香飘世界

CHINA MOUTAI
A TOAST TO THE WORLD



용성통상(주)
Yongsheng Co., Ltd.

귀주마오타이주
한국공식 수입판매법인

문의 02-3665-6611
www.moutaikorea.net

지나친 음주는 임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저해하며,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 발생이나 유산의 위험을 높입니다.



백종원 대표가 직접 개발한 언양식 불고기 도시락

CU_백종원 바삭불고기 한판정식 3.7점

김현정 일단 양으로 압도. 내 기준 2인분 같은 1인분이다. 국산 돼지고기로 조리한 언양식 불고기 감칠맛 하며 달걀, 두부, 어묵, 맛살... 이것은 몇 첩 반상인가. 이 가격에 이 퀄리티라니, 백종원 선생님 복 받으세요. 간편하고도 건강 한 한 끼를 찾아 헤매는 중생을 위해 소금과 설탕은 조금만 아껴 주시고요. ★★★★★ / 강은주 백 선생님이 대한 팬심을 안고 경건한 마음으로 뚜껑을 열었다. 네 가지 반찬과 큼직한 불고기가 마음을 흡족하게 했지만, 냉장 보관한 탓에 신선도가 조금 떨어진 채소와 고기의 질감이 못내 아쉽다. ★★★ / 남혜림 불고기도 불고기지만, 그 밀의 양 배추에 감동했습니다. 느끼함을 잡아 줘서 찰떡궁합! 다른 도시락보다 볶음김치가 달지 않아서 밥반찬으로 적당했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던 흑미밥까지, 든든한 구성입니다. ★★★★★

4.2점 GS25_해자로운 집밥 오징어불고기



오징어볶음과 간장불고기, 집밥의 정석 같은 도시락

김현정 우리를 잘 먹고 싶어 하는 김해자 선생님의 마음이 보인다. 돼지고기와 오징어에 채소도 골고루 넣었다. 적당히 매콤한 오징어가 아주 취향. 선생님도 저처럼 매운 거 좋아하시나요. 개발 과정에서 직접 시식하며 참여하셨다는 말씀에 내적 친밀감 상승. 그래요, 이 맛이예요. ★★★★★☆ / 강은주 사무실 근처에 즐겨 가는 식당이 있다. 그 집을 좋아하는 건 달걀 프라이 서비스와 매콤달콤한 오징어볶음 때문인데, 놀랍게도 이 도시락이 두 가지를 다 갖췄다. 양은 말할 것도 없고, 풍미까지 '해자롭다'. ★★★★★ / 남혜림 도시락에 오징어볶음이라니요! 어릴 적 엄마 쪽 할머니 댁에 가면, 할머니께서 종종 오징어불고기를 해 주셨는데 그 맛이 생각나서 몽클했어. 게다가 나물 반찬도 딱하니 자리 잡았네요. 이 도시락을 먹는 지금, 저는 할머니 댁에 있습니다. ★★★★★

당신의 마음을 채울 편의점 도시락

고물가 시대, 저렴하고 알찬 도시락이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세 에디터가 도시락을 모아 시식했다.



옛 추억 소환하는 반찬 출동

이마트24_추억의 도시락 3.0점

김현정 학교에서 도시락 뚜껑 열 때 분홍 소시지가 있는 날과 없는 날의 표정이 달랐던 시절을 기억하는 나 몇 살(연산)... 다른 도시락보다 소박한... 차림새지만 1인분으로 음식물을 남기지 않기엔 적당하단 생각도 든다. 밥은 촉촉하니 맛있더라고요. ★★★ / 강은주 이번엔 대학 시절에 즐겨 찾았던 술집을 소개할 차례다. 그곳엔 이것과 구성 요소가 유사한 동명의 메뉴가 있었다. 분홍색 소시지와 제육볶음, 그리고 약간의 김치볶음과 멸치볶음. 이건 내게 '추억의 안주'다. 아아, 노스텔지어를 자극하는 맛이다. ★★★★★ / 남혜림 이름처럼 도시락에 추억이 들었나 봅니다. 엄마와 함께 옛날 소시지를 달걀에 부쳐 먹던 날이 떠올랐어요. 음... 그런데 왜 소시지는 세 개뿐이죠. 추억의 도시락에 가장 중요한 재료라고 생각하는데! 조금만 더 넣어 주세요ㅠ ★★★

4.5점 세븐일레븐_주현영 전주식 비빔밥



여덟 가지 고명과 매콤한 고추장 소스의 조화

김현정 '역시 고추장은 진리지' 하며 신나게 비벼 먹었다. '완벽한 한 끼' 감탄하고 나서 확인한 포장에는 나트륨 함량이 하루 치의 91퍼센트라는 정보가 먹으면서 짜단 생각도 못 한 게 함정. 여러분, 우리 매운맛이 이렇게 힘이 세 답니다. 그러니 적당히 예뻐하기... ★★★★★ / 강은주 전주를 다섯 번 정도 찾았지만 비빔밥을 먹어 본 적은 없다. 편의점 음식이 이렇게나 훌륭하다면 원조 손맛은 얼마나 더 대단할까. 나물과 밥알이 입안에서 녹아 없어지기까지 1초도 안 걸린다. ★★★★★ / 남혜림 입맛 없을 땐 이런저런 재료를 넣어 먹는 비빔밥이 최고죠. 고명도 무려 여덟 가지. 굉장히 실합니다. 심지어 소스가 매울 수 있으니 조절해서 먹으라는 친절할 설명까지. 이것이 MZ세대를 대표하는 주현영 배우님의 선택인가요. 저도 감각적인 MZ세대가 되고 싶습니다. 이 제품에 한 표. ★★★★★

문근영5*

제65회 밀양 아리랑 대축제

날즈보소 밀양보소, 세계 속의 밀양아리랑

2023 밀양 방문의 해 날즈보소 밀양보소

대표 프로그램

밀양강오딧세이 (5. 18.(목) ~ 5. 21.(일) 20:30 ~ 22:00)

아리랑주제관 (5. 18.(목) ~ 5. 21.(일) 10:00 ~ 20:00)

2023. 5. 18.(목) ~ 5. 21.(일) 영남루 및 밀양강변 일원



물 맑은 안동의 술

경북 안동에는 소주와 막걸리가 있고, 와인과 맥주도 있다. 한잔 술에 찰랑이는 안동을 음미한다.

안동



1

(명인안동소주) 옛 의서에는 소주가 약으로 쓰였다는 기록이 있다. 안동에선 소주를 상처에 바르거나 식욕부진 또는 소화불량을 해소할 때 사용했다고도 한다. 중탕식 증류로 깊고 은은한 안동소주 본연의 맛을 구현한 박재서 명인의 술은 500년 넘게 반남 박씨 가문에서 전승한 비기가 깃들었다. 50밀리리터짜리 두 병으로 이루어진 미니어처 세트를 아껴 마시며 안동의 땅과 물, 공기를 기억한다.

명인안동소주 054-856-6903



2

(회곡막걸리) 121년. 회곡양조장에서 술을 만들어 온 세월이다. 소주도 생산하고 있지만 발효한 곡물 고유의 부드러운 바닐라 향이 흐드러지는 막걸리가 압도적 풍미를 자랑한다. 회곡생막걸리, 회곡밀막걸리, 순막걸리 세 가지로 선보이니 취향껏 골라 마시는 즐거움도 있다. 탄산감은 비교적 적은 데 비해 보디감이 두드러진다. 그 덕분에 자꾸 목구멍으로 흘러 넘기고 싶어지니, 정좌하고 마셔야겠다.

농업회사법인회곡양조장 054-853-7777



(민속주 안동소주) 별칭은 '조옥화 안동소주'다. 우리 밀로 손수 만든 누룩을 사용해 자연스럽고 풍부한 맛에 집중한다. 2020년 작고한 조옥화 명인은 명맥이 끊긴 안동소주를 복원하는 일에 앞장선 인물로, 현재는 2대 김연박 안동소주박물관장과 경북무형문화재 배경화 부부가 귀한 전통을 잇고 있다. 45도, 도수가 제법 강하고 질감이 묵직한 데 비해 씹새래한 잔향이 화사하고 아름다워 여운이 오래 남는다.

민속주 안동소주 054-858-4541

3

OLD & NEW

4

(안동맥주) 맑은 호박색으로 빛나는 안동라거 한잔에 묵은 피로를 씻는다. 지역 재료로 맥주를 개발·생산해 온 안동브루잉컴퍼니는 다채로운 제품을 선보이기 위해 힘 쏟고 있다. 안동 생강과 레몬의 특 쓰는 향내가 어우러지는 '오드아이', 홉 향이 깔끔하고 산뜻한 '베르데필스', 고소하고 향긋한 미국식 IPA '홉스터', 내추럴 와인처럼 시큼하고 오묘한 사워비어 '석복', 조청과 안동 자두로 만든 '경화수월'이 '맥덕'의 손길을 기다린다. 안동브루잉컴퍼니 054-852-9602



(진맥소주) 트렉터나 배를 타야만 진입할 수 있는 육지 속 섬 멍개마을. 멍개술도가 여기서 직접 재배한 통밀로 술을 빚는다. 맛다. 쌀이 아닌 밀로 만든 소주다. 16세기에 쓰인 음식 조리서 <수운잡방>에 등장하는 진맥소주를 재해석한 것이 오늘날의 이 술이다. 22도·40도·53도로 다양하게 맛볼 수 있는데, 대체로 달고 부드러운 술술 넘어간다. 고소하고 향긋한 밀 향에 위스키 풍미도 스친다.

멍개술도가 054-841-1105

5



(264청포도 와인) "내 고장 칠월은 청포도가 익어 가는 시절"이란 시구를 기억한다면, 맛보지 않고는 못 배긴다. 척박한 환경을 극복하고 자라난 청포도를 꺾질째 으깨어 발효해 거칠고 강인한 풍미를 지닌 화이트 와인이 탄생했다. 이육사의 삶과 문학을 담은 술은 시 제목을 따 '광야' '꽃' '절정' 세 가지로 출시했다. 이름처럼 드라이하고 담담한 광야, 은은하게 달콤한 꽃, 과일의 향미가 절묘한 절정이다.

264청포도 와인 054-859-0264

6



딱 하루만 여행을 떠날 수 있다면

5월 말, OTT 플랫폼 웨이브가 드라마 <박하경 여행기>를 공개한다. 토요일 하루, 여행하는 그를 따라나선다.

누구나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고 싶은 순간이 있다. 힘에 겨워 지칠 때나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길 바랄 때, 우리는 여행을 떠올린다. 드라마 <박하경 여행기>의 주인공인 국어 교사 박하경 역시 마찬가지다. '열강'을 해도 학생들은 즐거나 탄짓을 하기 바쁘다. 문득 교실에서 사라져 버리고 싶다고 생각한 그는 토요일 하루 동안 짧은 여행을 가기로 한다. 전남 해남에서 템플스테이에 참여해 답답한 마음을 달래고, 영화를 보러 부산국제영화제를 방문한다. 고등학교 수학여행 장소였던 경북 경주도 다시 찾아가 홀로 도시를 돌아본다. 낯선 여행지에서 의외의 사건을 겪고, 뜻밖의 인연을 만난다. 특별한 일 없이 걷고, 먹고, 쉬는 단순한 여행일지라도 그 과정은 넉넉히 위로를 건넨다. 잠시라도 팍팍한 삶과 거리를 두고 떠나자. 주어진 시간이 하루뿐이라도 좋다. 드라마에 등장한 여행지 네 곳을 세상의 모든 박하경에게 권한다.

사라지고 싶을 때 토요일 딱 하루 여행을 떠난다. 국어 교사 박하경의 예상치 못한 순간과 기적 같은 만남을 그린 유랑기가 명랑하게 흐른다. 총 8부작이며, 배우 이나영이 4년 만에 드라마로 복귀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감독 이종필
출연 이나영, 구교환, 길해연, 박세완, 박인환
공개 2023년 5월 중

이벤트

× 박하경 여행기

<KTX매거진> 인스타그램에서 웨이브 스탠더드 구독권 받아 가세요!

이벤트 게시물에 좋아하는 여행지와 그 이유를 댓글로 남겨 주세요. 추첨을 통해 웨이브 스탠더드 구독권 (구독 기간 1개월)을 선물로 드립니다.
지금 바로 <KTX매거진> 인스타그램을 방문하세요.



*이벤트 기간은 5월 13일~23일입니다.



아지아의 또 다른 바다

Alternative Sea for Asia

Kang Honggoo
Kim Seungyoung
Kim Cheonil
Kim Whanki
Nakamura Kazumi
Lee Yihhong
Murai Hironori
Paik Namjune
Oh Jiho
Uchida Aguri
Yuan Huili
Imazu Kei
Chen Yujung
Heo Geon
Heo Baekryun
Huang Bohao

강홍구
김승영
김천일
김한기
리카무라 가즈미
리이홍
무라이 히로노리
백남준
오지호
우치다 아구리
원혜리
이마즈 게이
천위룡
허백련
황보하오

2023순천국제제정원박람회 기념 전시
전남도립미술관
6~9 전시실

전남도립미술관 전라남도 JeollaNamdo
국립현대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 의재미술관

23. 4. 11.(tue) - 7. 16.(sun)



1 **전남 해남 미항사**

남쪽 육지 끝자락에 자리한 사찰, 미항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체험한다. 저 멀리 남해가 보이는 이곳이라면 성에서 날뛰는 마음도 잔잔히 가라앉는다. 대웅보전은 단청을 하지 않아 담백한 멋이 느껴진다. 대웅보전 주춧돌에 새겨진 게, 거북이 등을 눈으로 훑어 찾는다. 길이 17.74킬로미터의 둘레길 달마고도에 올라 달마산의 비경 너덜경을 감상해도 좋다.

주소 전남 해남군 송지면 미항사길 164

2 **강원도 속초 속초해수욕장 등**

속초를 상징하는 'ㅅㅈ' 조형물이 여행자를 반기고, 65미터까지 올라가는 대관람차 속초아이가 카메라를 꺼내게 한다. 물기 어린 바람이 이끄는 곳으로 향하자 외옹치항과 이어지는 바다항기호가 나타난다. 해안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동해를 더 가까이에서 마주한다. 밤이 되면 휘황한 조형물이 낮과 다른 분위기를 자아내니 야경을 놓치지 말아야겠다.

주소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3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등**

부산 하면 떠오르는 해운대를 빼놓을 수 없다. 부산국제영화제에 영화를 보러 가는 하경을 떠올리며 영화의 거리를 걷는다. 4.8킬로미터 구간의 동해남부선 옛 철도 시설을 재활용한 해운대블루라인파크에서 해운대 해변 열차와 스카이캡슐을 타고 낭만적인 바다를 구경한다. 까만 밤, 광안리해수욕장에서 반짝이는 광안대교를 마주한다. 부산의 바다는 이토록 아름답다.

주소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4 **경북 경주 대릉원**

거대한 능이 묵묵히 자리를 지킨다. 미추왕릉, 황남대총, 천마총 등 총 23기의 신라 시대 고분이 모여 아련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고분 사이에 묵련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곳은 인생사진을 찍는 포토 존으로 유명하다. 꽃이 피지 않아도 사계절 내내 봄빛 정도다. 천마총 발굴 50주년을 맞은 올해는 12월까지 천마총 디지털 복원실감형 전시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주소 경북 경주시 황남동 31-1



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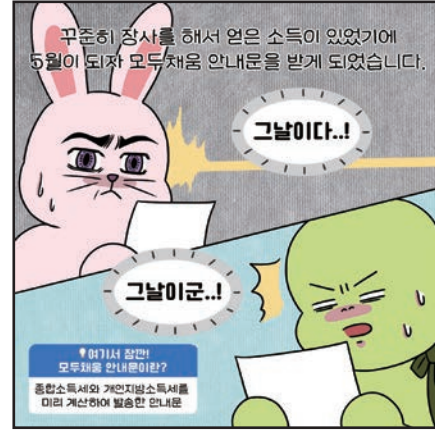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방문신고 시 전국 228개의 시·군·구 신고창구를 이용해 보세요!



전자신고 QR코드





충북 홍주시 수안보면 온천리 305

수안보온천 留園文

하루 동안 정원을 바라보며 머무는 곳이라는 의미를 갖는 유원재 수안보가 품은 아름다운 풍경과 심신에 마사함을 더하는 온천. 진정성이 담긴 공간적 체험을 통해 도심에서 느낄 수 없는 온전한 물입의 휴식을 선사합니다.

물입 가능한 휴식



전국 솜씨 자랑 한마당 <2023 공예주간>

손으로 빚고 눈으로 어루만진다. 공예 축제 <2023 공예주간>이 우리를 찾아온다.



프로모션

특이한 디자인과 콘셉트로 매력을 뽐내는 상품이 가득한 시대, 사람들은 취향에 맞는 제품을 찾아 상점을 방문한다. 마음에 드는 물건 고르라, 만듦새는 괜찮은지 확인하라 여기저기 상점을 기웃거리는 이에게 전국 모든 공예품이 모이는 <2023 공예주간>을 추천한다.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23 공예주간>은 서울 북촌·인사동 일대, 문화역서울284(구 서울역사), 신사하우스를 포함해 강원, 경상, 전라, 제주 등 전국에서 5월 19일부터 28일까지 열흘간 펼쳐진다. 쓰임새와 만듦새 좋은 공예품을 구매하고, 다양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등 1500개가 넘는 행사 중 취향에 맞는 것을 골라 참여한다. 도예, 목공, 한지, 섬유 등 섬세한 공예 과정을 보고 느낀 뒤, 마음에 쏙 드는 공예품을 직접 만들어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전국 공예 자랑'을 슬로건으로 내건 만큼 많은 이가 공예를 손쉽게 경험하는 장이 되도록 준비했다. 5월, 창작자와 방문객이 모두 만족스러운 공예 세상으로 나들이를 떠나자.

서울 북촌

북촌은 조선 시대 왕실에 공급하기 위한 공예품을 제작하는 공방이 밀집했던 곳이다. 북촌 일대에서 전시, 체험, 공연 등을 연다. 서울공예박물관, 감고당길 등 종로구 일대에서 '전국 공예 자랑' 축소판을 마주한다.

장소 서울공예박물관, 감고당길 등 종로구 일대

서울 신사하우스

소비자와 공예 작가가 만나는 전시 플랫폼 '크래프트 서울'이 복합 문화 공간 신사하우스에서 '사랑의 완성, 오브제'를 주제로 공예 행사를 준비했다. 공예 작가 김윤환, 류종대, 이상웅, 황형신이 참여한다.

장소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62길 27 신사하우스

서울 문화역서울284

2022년 밀라노 디자인 위크 기간 개최한 한국 공예전 <다시, 땅의 기초로부터>를 재구성해 300여 점의 작품을 소개하는 <다시, 자연에게 보내는 편지>가 관람객을 맞이한다. 전시는 6월 4일까지 진행된다.

장소 서울시 중구 통일로 1 문화역서울2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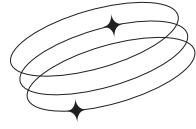
전국

광주광역시 '팽귤마를 공예 거리 축제', 제주도에서 열리는 '2023 돌가마 페스티벌' 일 제주, 강원도 원주에서 열리는 한지 공예 프로그램 '한지로 펼쳐 불가(家)', 22명의 청년 창작자가 참여하는 울산광역시의 '2023 크래프트 어스' 프로그램 등으로 전국이 들쭉인다.

2023 공예주간 KOREA CRAFT WEEK

<2023 공예주간> 공예의 즐거움을 알리고 나누고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해 2018년 시작한 행사다. 공예마켓은 물론 전시, 체험, 교육, 토크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일상 속에 스민 공예를 한자리에서 만난다.

기간 5월 19일~28일
장소 문화역서울284 및 전국, 온·오프라인
홈페이지 www.kcdf.kr/craftweek



what's up



©아이엠엔터테인먼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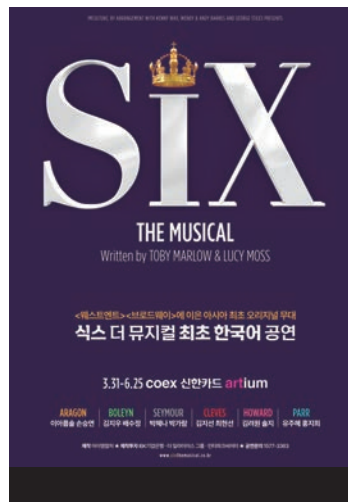
• SHOW •

<식스 더 뮤지컬>

● 서울 ● 03.31~06.25

영국 튜더 왕가 헨리 8세의 여섯 왕비가 팝의 왕이 되어 무대 위에 선다. 500여 년 전 역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콘서트 형식의 영국 뮤지컬로, 한국어 공연은 이번이 최초다. 아라곤, 볼린, 시모어, 클레페, 하워드, 파가 한 명씩 돌아가며 헨리 8세에게 고통받은 자신의 삶을 노래한다. 팝 음악처럼 친근하고 강렬한 멜로디와 중독성 있는 넘버가 80분간 이어져 관객의 몰입을 돕는다. 이아름솔, 손승연, 김지우 등 출연진도 화려하다. 누군가의 아내, 왕비라는 이름으로 가려졌던 그들의 진짜 삶을 만날 시간이다.

장소 서울 코엑스 신한카드 아트홀 문의 1577-3363



6,000만원대로 누리는
2억원가치의 독보적 혜택 프리미엄 멤버십 출시!!

브레이크힐스 (2024년 오픈예정)

글로벌 리딩 컴퍼니로 도약하는 대명리조트의 새 이름

2023년 소노호텔앤리조트 신규회원모집

새 브랜드로 글로벌 체인 사업에 나선 소노호텔앤리조트(구. 대명리조트)가 VIP 고객을 대상으로 '이그제큐티브클럽(Executive Club)' 멤버십을 출시했다. 이그제큐티브 클럽은 럭셔리 호텔 서비스와 실속있는 리조트 서비스를 결합한 프리미엄 회원권으로 식음, 골프, 승마, 요트 혜택 등을 담아 고객에게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한다.

이그제큐티브 클럽 멤버십은 기존의 회원권과 완전히 차별화하여 신규 특별 혜택뿐만 아니라 입회 기간 내내 상시 혜택을 제공받는 것이 특징이다. 정회원은 연간 2인 10회 조식 뷔페와 노블리안 라운지 음료 30회가 무료이며, 호텔 내 휘트니스, 수영장, 사우나, 발렛 파킹 서비스 등이 상시 제공된다. 또한 정규 18홀의 소노펠리체 CC(비발디파크 WEST, EAST/델피노), 오션월드, 스키, 승마클럽, 요트 등 다양한 레저&스포츠의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소노호텔앤리조트는 국내 최대 규모인 전국 16곳 체인망과 11,000여개가 넘는 객실을 보유하여 업계 1위를 자부한다. 폭넓은 여행지 선정은 물론 레저&스포츠 시설을 신규 회원권 하나로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개인 및 법인 명의로 분양이 가능하며, 이번 이그제큐티브 클럽은 회원제 상품으로써 20년 만기시 전액을 반환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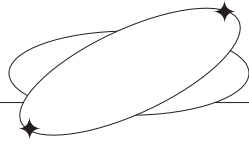
소노호텔앤리조트 측은 "타 업체와 다른 전문 교육을 이수 레저컨설턴트가 상담부터 계약 및 예약까지 1:1 회원 전담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소노호텔앤리조트 회원권의 가치는 '지속적인 개발과 인수 사업'으로 지난 2021년 10월 소노펠리체 델피노가 그랜드 오픈했으며, 브레이크힐스 등이 개발 중이다. 특히 이그제큐티브 클럽 멤버십은 회원권 시장에 없는 독보적인 혜택을 담은 멤버십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이번 신규회원 모집에 대한 분양 카탈로그를 배송해드립니다. 통화가 어려우실 경우, 문자 메시지로 성함 및 주소를 보내주세요. H.P 010-4140-65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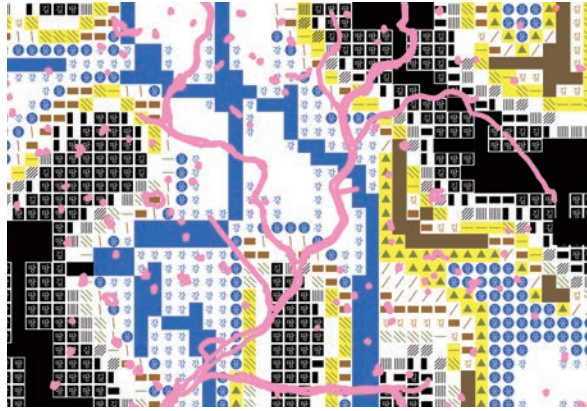
문의전화
(주말 및 24시간 상담가능)

02)2222.5917





what's up



박고은, 글자를 읽은 소리들이 모인 지도, 2023

• EXHIBIT •

<걷기, 해매기>

→ 광주 → 04.27~09.03

첫걸음마를 떼는 순간부터 지팡이를 짚기까지, 우리는 날마다 걷는다. 걷기라는 일상적 행위를 탐구하는 전시가 열린다. 박고은, 마리나 아라모비치, 프란시스 알리스 등 한국을 포함한 6개국 현대미술가 열세 명이 회화, 조각, 퍼포먼스, 영상, 키네틱 아트 등 작품 25점을 선보인다. 행진하거나 순례를 떠나듯, 걷는 일엔 몸의 움직임 넘어서는 의미가 있음을 살펴한다.

장소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의 1899-5566



• EXHIBIT •

<아시아의 또 다른 바다>

→ 광양 → 04.11~07.16

아시아의 바다를 주제 삼은 예술에 빠져든다. '바다의 파동' '바다와 꿈' '바다 넘어' '바다와 경계' 등 네 구역으로 나뉜 아시아의 역사와 문화를 조명하는 이번 전시는 강홍규, 나카무라 가즈미, 허백련 등 한국·타이완·일본 작가 열여섯 명의 회화, 설치 등 작품 30점을 공개한다. 김한기의 '14-XI-69#137', 백남준의 'TV 물고기-1975' 등을 만나 볼 수 있어 더욱 특별하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기념한 전시다.

장소 전남 광양 전남도립미술관 문의 061-760-3242



프로모션



+ 송도해상케이블카

주중 1시간, 주말·공휴일 2시간 동안 송림주차장과 남항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5월 운행 시간은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이며, 발권은 운행 종료 30분 전에 마감한다.

요금 크리스탈 크루즈 2만 2000원, 에어 크루즈 1만 7000원(대인 왕복 기준) 문의 www.busanaircruise.co.kr

봄날에 떠나요, 부산 송도 가족 여행

이 계절, 온화한 해풍과 질푸른 바다가 기다리는 부산으로 간다. 봄 내음 가득한 바다를 가로지르는 송도해상케이블카에 활기와 즐거움이 넘친다.

마스크를 벗은 채 콧노래 부르며 어디든 여행하고 싶은 때다. 그간 마음껏 세상을 누비지 못했으니, 올봄엔 온 가족 모두 부산으로 간다. 수평선 아스라한 바다를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는 기분은 어떨까. 송도해상케이블카가 선사하는 특별한 경험을 소중한 이와 나누면서 충만하고 풍요로운 시간을 만끽한다.

바다 위 1.62킬로미터를 활공하다

송도해상케이블카를 타고 해수욕장을 굽어보니 부산 갈매기가 되어 바다를 거느린 기분이다. 부산의 이정표 송도해상케이블카에 오르면 송도해수욕장 동쪽 송림공원에서 서쪽 암남공원까지 1.62킬로미터를 날아 도시의 절경을 한눈에 담는다. 송도해수욕장은 물론 영도, 남항

대교, 송도 해안 둘레길에 이르는 풍광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최고 높이는 86미터. 하늘에 닿을 듯 치솟아 오르면 온몸이 짜릿하다. 객차 유형은 두 가지다. 투명 강화유리 바닥으로 이루어진 '크리스탈 크루즈'와 바닥이 불투명한 '에어 크루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탁 트인 부산 풍경을 한눈에 담다

다채로운 문화 콘텐츠를 간직한 송도스카이파크도 둘러봐야 한다. 공룡 친구들이 뛰노는 '다이너서 어드벤처', 노란색 달팽이와 바람개비가 앙증맞은 '달팽이 가든', 동화책 속에 들어온 듯한 '어린 왕자 테마존'을 지나 '소원의 용' 앞에 선다. 용 비늘 모양 메모지에 소원을 적어 붙이는 재미가 쏠쏠하다. 포토 존 '부산의 달과 별'

'느린 우체통' '메시지 보틀'을 지날 땐 사진을 찍느라 자꾸만 걸음이 느려진다. 이 모든 순간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다면, '모멘트 캡슐'에 편지를 쓰고 2년간 보관함에 고이 넣어 둔다.

송도에서 즐기는 봄빛 자연 풍경

송도스카이파크 인근에는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송도 용궁구름다리가 있다. 암남공원과 동성을 잇는 구름다리를 걷는 동안엔 하늘과 바다 사이로 빨려 드는 듯한 기분 좋은 착각에 사로잡힌다. 구름다리를 건너 뒤엔 암남공원으로 간다. 연둣빛 새순이 돋아난 암남공원 치유의 숲길이 지친 몸과 마음을 다독인다. 이토록 따스한 봄날, 가족과 함께한 부산 송도 여행은 오래도록 추억할 반짝이는 시간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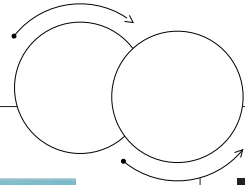


+ 5월 KTX 승객에게 제공하는 할인 혜택

KTX 탑승권 및 전자탑승권과 영수증을 소지한 고객을 대상으로 동반 1인까지 송도해상케이블카 입장권 구매 시 2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간 5월 1일~31일

COUPON





what's up



• SHOW •

<다시, 봄>

● 서울 ● 04.12~06.25

열차에서 벌어지는 유쾌한 이야기를 담은 연극이다. 어느 봄날, 각자의 이야기를 품은 네 사람이 무궁화호에 오른다. 연주, 진우, 희수와 세영이 마주 본 채 돌아가지 않는 좌석에 앉아 의도치 않은 동행을 이어 간다. 한국철도가 제작을 지원했다.

장소 서울 코델아트홀
문의 070-5135-0222

* <KTX매거진> 인스타그램을 방문해 독자 초대 이벤트 정보를 확인하세요! (5월 1일~10일)



• EXHIBIT •

<이야기 유랑선>

● 수원 ● 03.31~08.06

그림 속에 숨은 이야기를 찾아 유랑한다는 주제로 기획한 어린이 체험 전시다. 이슬로, 애나한, 이정윤, 박경중의 설치, 영상,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 35점을 보물찾기하듯 감상하며 현대미술이라는 넓고 깊은 바다를 누빈다. 작가 워크숍 등 전시 연계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장소 경기도 수원시립아트스페이스광교
문의 031-228-4195



• FESTIVAL •

<2023 공예주간>

● 전국 ● 05.19~28

'전국 공예 자랑'을 슬로건으로 대한민국 방방곡곡에서 공예 잔치가 벌어진다. 서울 북촌 일대와 문화역서울284 등을 포함한 강릉, 경상, 전라, 제주에서 다양한 공예를 경험한다. 각종 축제, 체험 프로그램 등 1500개가 넘는 행사 중 취향에 맞는 것을 골라 참여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도예, 한지, 섬유 등 섬세한 공예 과정을 보고 느낀 뒤 마음에 쏙드는 공예품을 만든다.

장소 서울 문화역서울284 및 전국
문의 1661-0275



• FESTIVAL •

2023 성주참외 & 생명문화축제

● 성주 ● 05.18~21

성주의 생명 문화와 특산물 참외를 결합한 축제다. 생명 선포식과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세종대왕 자 태실 태봉안 행사 재현, 참외 가요제, 태고음악회, 드림페스티벌, 별미줄다리기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다. 신나는 축제도 즐기고 아삭하고 달콤한 참외도 마음껏 맛보자.

장소 경북 성주 성밖숲 및 시가지 일원
문의 054-930-6982



• FESTIVAL •

2023 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

● 제주 ● 05.11~20

5월, 제주를 방문한다면 놓쳐서는 안 될 미식 축제다. 제주산 농·수·축산 청정 식재료의 우수성과 미식 문화를 알리고 셰프 인재를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둔 축제로, 제주 고메 워크를 비롯해 마스터 셰프 클래스, 갈라 디너 등 국내외 정상급 셰프가 참여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장소 제주도 일원
문의 02-3467-0303

Recession이 두렵습니까? 게임의 룰을 바꾸고 싶습니까? 컨퍼런스G 2023에 답이 있습니다.

GARY HAMEL 런던비즈니스 스쿨 교수·EAMONN BUTLER 아담스미스 연구소장
불황을 돌파한 국내기업, 학계전문가들 참여·위기의 경영환경에 대응할 해법 제시

일시
5월24일(수) 10:00 ~ 16:00

장소
남산 그랜드 하얏트호텔 그랜드 살롱

참가신청
오프라인(현장참석) 150,000원
온라인 100,000원

문의
컨퍼런스G 2023 운영사무국
02) 3703-7100



항목	발표자	내용
10:00~10:05	개회사 권대우 <시사저널> 대표이사 부회장	
10:05~10:15	Opening 김기찬 부총장 인도네시아 프레지던트대학교·가톨릭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10:15~11:20	Keynote Speech 게리 하멜 現 영국 런던비즈니스스쿨 전략 및 국제경영 담당 교수·前 미국 하버드비즈니스스쿨 교수·미국 미시간대학교 교수	R의 공포... 게임의 룰 바꿀 지혜와 통찰
11:20~12:00	세션 1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R의 시대에 다시 쓰는 경제학 세상에 없던 판도를 만드는 전략
12:00~13:00	오찬	
	Moderator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대학 교수·세계한류학회 부회장·옥스퍼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13:00~14:00	Special Speech 이문 버틀러 소장 (애덤스미스연구소) 영국 경제학자	대체 불가능한 경쟁력을 어떻게 만들까? 애덤스미스가 지금 이 자리에 온다면 한국 경제, 기업이 처한 현실에 대해 이런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14:00~14:40	세션 2 김장실 한국관광공사 사장 (前 문화관광부 차관)	게임체인저로 가는 길 제조, 서비스에서 관광산업까지
14:40~15:20	세션 3 이해선 회장 한국마케팅협회 전 코웨이 부회장·전 CJ제일제당 대표이사	마케팅으로 푸는 R의 경영학
15:20~15:40	세션 4 신승호 이사 (주)에치와이(한국야쿠르트)M&S 부문장	"아날로그의 빈격" 제조업기반의 회사에서 디지털유통기업이 되기까지
15:40~16:00	세션 5 이수진 연구위원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트렌드코리아2023 공저	트렌드를 알기되면 R의 공포도 사라진다

프로모션

영화가 별처럼 쏟아지는 양양 해변으로 가요

강원도 양양 하조대 해변에 열세 편의 유럽 영화가 흐른다.
5월 4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양양유럽영화제에서
영화가 된 바다, 바다가 된 영화를 만나다.

하늘과 맞닿은 푸른 바다, 햇살에 반짝이는 물결과 기암괴석이 마음을 일
렁이게 하는 곳. 올봄 강원도 양양 하조대를 찾았다면 예기치 못한 또 하
나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양양유럽영화제(Yangyang European Film
Festival, 이하 YEFF)가 5월 4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7일까지 나흘간 하조대를
배경으로 한 야외 상영 공간과 양양 작은영화관에서 열린다. 복합 문화 공간 더스
탠드가 주최하는 YEFF는 양양문화재단과 양양 작은영화관이 후원하며, 주한 유럽
연합 대표부를 비롯해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라트비아, 리투
아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을 포함한 총 12개국의 유럽
연합 회원국 대사관과 헝가리 문화원이 협력한다. 이번 영화제 기간 동안에는 엄선한 유
럽 13개국 영화를 선보일 예정이다.

빛나는 상영작 목록에서 눈에 띄는 이름 몇몇이 있다. 폴란드 출신으로 제75회 칸 국제영화
제 심사위원상을 받은 예지 스킨리모프스키 감독의 <당나귀 EO>(2022)는 서커스단에서 태
어나 고통받는 당나귀의 내면을 담담하면서도 섬세하게 표현해 깊은 울림을 주는 작품이다. 덴
마크 배우 매즈 미켈슨이 출연해 화제를 모은 영화 <어너더 라운드>(2020)도 이번 영화제에서 다
시 만난다. 삶에 활기를 불어넣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퍼센트를 유지하기 위해 분투하는 중년 남성
넷의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한잔 술처럼 찰랑거린다. 벨기에 애니메이션 <유쿠와 히말라야 꽃>(2022)
은 자국 내 최고 영화상인 마그리트상 최우수 작품상 후보에 오른 작품으로, 어린 쥐 유쿠가 할머니에게 줄
히말라야 꽃을 찾아 떠나는 모험을 그린다.

YEFF는 영화를 상영하는 데서 나아가 유럽 문화와 영화를 사랑하는 관객을 위해 다채로운 체험 공간을 꾸린다.
영화제에 참여한 유럽 국가는 물론이고 국내외 유수 브랜드가 하조대를 무대로 흥미진진한 경험의 장을 마련한다.
파도처럼, 해풍처럼 마음에 스며들 봄날의 영화제가 지금 우리에게 손짓하고 있다.

Film Festival



양양유럽영화제



+ 양양유럽영화제 YEFF

장소 강원도 양양 하조대 해변 야외 상영 공간, 양양 작은영화관
예약 문의 @hajibay_festival



더스탠드, 새로운 문화의 파도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날 서울양양고속도로에 오른다. 도심에서
2시간 30분만 달리면 가슴이 탁 트이는 강원도 양양 하조대해수욕
장에 닿기 때문이다. '드라이브 앤 언와인드(Drive and Unwind)'
라는 슬로건을 내건 복합 문화 공간 더스탠드는 바로 이곳에 올라섰
다. 갤러리나 부티크 호텔처럼 모던하고 장쾌한 인상을 주는 입구엔
아티스트 빠키의 설치미술 작품이 자리해 방문객을 맞는다. 모든 좌
석에서 바다를 마주할 수 있도록 설계한 카페·라운지 공간, 찌릿한
조망을 자랑하는 루프톱과 인피니티 풀에 머무는 동안에는 하조대
의 유려한 풍광과 현북면 마을의 호젓한 모습을 마주하며 묵은 피로
와 스트레스를 씻는다. 새파란 물빛, 시원한 파도 소리, 청량한 솔솔
향내가 이루는 공감각적 치유 효과다. 한껏 휴식을 취했다면 이젠 몸
과 마음을 충만하게 할 이색 경험을 즐길 때다. '로컬 컬처 플랫폼'을
표방하는 더스탠드는 양양군과 양양문화재단, 창작자, 기업 등과 협
업해 하조베이 페스티벌을 마련하고 다양한 행사를 기획한다. 5월
에 열리는 양양유럽영화제를 비롯해 재즈 페
스티벌, 비어 페스티벌, DJ 라이브 콘서
트 등 오감을 자극하는 매력적인
프로그램이 끊이지 않고 펼쳐질
예정이다.



+ 더스탠드

-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조대해안길 79
- ☎ 033-672-1534
- 🌐 thestand.kr
- 📷 @official_thestand





유기 동물에게 손을 내밀어 주세요

유기 동물 입양 플랫폼 '포인핸드'가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입양 문화센터를 짓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 이환희 대표와 반려 동물 입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Q. 포인핸드는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라는 슬로건으로 유명한 플랫폼입니다. 포인핸드에서 하고 있는 일을 소개해 주세요. A. 통계청이 진행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313만에 달합니다. 전체의 15퍼센트를 차지하는 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죠. 하지만 그만큼 많은 반려동물이 버려지거나 길을 잃어, 매년 13만 마리 정도가 유기 동물 보호소로 구조됩니다. 포인핸드는 지자체 보호소가 구조한 동물과 사람을 이어주는 유기 동물 입양 플랫폼입니다. 포인핸드라는 이름도 사람과 동물이 손을 맞잡은 모습을 의미하지요.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기 동물 보호소는 약 280개입니다. 모든 보호소에 구조된 유기·유실 동물 정보를 앱이 제공하니, 잃어버린 동물을 찾거나 유기 동물을 입양할 수도 있습니다.

Q. 본래 직업은 수의사인데, 2013년 직접 앱을 개발하셨어요. 그 계기가 궁금합니다. A. 2013년, 수의학과를 졸업하고 공중방역수의사로 한 지자체의 유기 동물 보호소를 관리했습니다. 처음 유기 동물 보호소에 갔을 땐 참담했습니다. 아이들은 부상을 입어도 제대로 치료와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구조만 될 뿐 일정 기간 보호소에 머무르다 새롭게 구조된 동물에 밀려 안락사로 끝을 맞이해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유기 동물을 살릴 수 있을까 고민했고, 이들의 존재를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프로그램 개발은 대학교 때부터 취미로 계속해 왔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집에서 새벽까지 플랫폼을 설계하고, 주말에도 개발에 매진했죠. 그렇게 포인핸드가 2013년 11월 세상에 나왔습니다.

Q. 지금까지 포인핸드를 운영하면서 기억에 남은 일을 이야기해 주세요. A. 공중방역수의사 생활을 마친 후, 동물 병원에서 근무하며 플랫폼 관리를 병행했습니다. 처음 앱을 개발했을 땐 포인핸드 앱이 유기 동물을 알리는 데 영향을 주는지 체감하기 어려웠어요. 어느 날 보호소에 온 분이 스마트폰 화면의 유기견 사진을 보여 주면서 그 아이를 찾으러 왔다고 이야기하셨고, 화면에는 포인핸드 앱이 켜져 있었어요. 아직도 잊지 않는 가슴 벅찬 순간이네요.

Q. 플랫폼 운영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고요. A. 2017년쯤 유기 동물 입양이 정체되었어요. 사람들이 펫 숍에서 반려동물을 선택할 때 보이는 성향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작고, 어리고, 품종이 확실한 동물은 관심을 받고 그렇지 않은 동물은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유기 동물은 아프거나 문제가 있어서 버려졌을 거라는 편견도 넘기 힘든 벽이었어요. 그런 벽을 느낄 때 서글프곤 했습니다.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고 인식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해졌어요.

Q. 최근 포인핸드가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 오프라인 입양 문화센터를 세운 것도 그런 목적 때문인가요. A. 포인핸드를 운영하는 10년간 했던 가장 큰 고민은 '유기 동물 입양을 좀 더 활성화할 방법이 없을까?'예요. 저는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일이 우선이라 느꼈고, 소셜 벤처를 꾸려 다양한 캠페인과 콘텐츠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사지 않고 입양하는 문화를 만든다'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오프라인 입양문화센터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도 같은 맥락이예요. 유기 동물 보호소는 혐오 시설로 여겨져 보통 교외에 위치해요. 유기 동물 입양을 사람들 가까이에서 보여 줌으로써 하나의 문화로 정착시키고자 입양문화센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환희 수의학학을 전공하고 경기도에서 공중방역수의사로 군 대체 복무를 하다 2013년 유기 동물 입양 플랫폼 포인핸드를 개발했다. 2017년 수의사직을 내려놓고 포인핸드 관리 및 개발과 유기 동물 입양 문화 확산에 전념하는 중이다.

Q. 오프라인 입양문화센터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A. 우선 유기 동물 입양 정보를 단계별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유기 동물 입양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입양 전에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 같은 것이지요. 입양 전후에 정기 교육을 진행해 수료를 마친 사람에게 수수료율을 주고, 유기 동물 입양 데이 행사를 열어 가족을 기다리는 유기 동물과 만나게 해 줍니다. 입양에 대해 알아 가고 그 과정을 차근차근 준비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지금은 유기 동물 입양 문화를 비주류로 인식하지만, 다양한 문화가 홍대입구 일대에서 시작되어 주류로 성장했듯 유기 동물 입양 문화도 포인핸드 입양문화센터에서 서서히 퍼져나가리라 믿습니다.

Q.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 모여 지금의 포인핸드가 만들어졌네요. 앞으로 계획을 들려주세요. A. 10년 동안 가장 어렵게 느껴진 일이 지자체 보호소를 바꾸는 일이었어요. 포인핸드에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싶어도 지자체의 협력 없이는 곤란하고, 입양 과정을 체계적이고 친절하게 바꾸는 작업도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해서 사실상 불가능한 영역이었죠. 그러나 그분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입양 문화 형성은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바꿔 보자. 그들의 변화를 도와주자'라고 마음먹었어요. 저와 같은 의지가 있는 지자체를 찾아 이야기를 나눴고, 그 과정에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입양문화센터 오픈 후에는 본격적으로 지자체 보호소를 바꾸는 일에 힘을 쏟을 예정이예요. 한국 지자체 보호소의 합리적인 표준을 만들고 그것이 다른 지자체, 나아가 전국으로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할 거예요. **K**



+ 이환희 대표가 추천하는 반려동물 동반 여행지

지난 3월, 16년 동안 함께한 반려견 환타를 떠나보냈어요. 환타가 뇌수막염으로 투병할 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해 짐을 내어 여행을 다녀왔죠. 경기도나 강원도에 위치한 **반려견 동반 캠핑장**도 자주 갔고요. 무엇보다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제주도** 여행을 추천해요. 협재해수욕장에서 환타에게 "16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제야 널 제주도에 데리고 왔구나. 미안하다"라고 말했어요. 같이 걷기 좋은 길도 많고, 반려동물과 소중한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안동

춤고 노래하며 글 읽는 즐거움이 이곳에 있다. 아름답리 회화나무와 너른 돌 병풍,
활달한 물길이 에워싼 경북 안동의 세 마을을 뒷짐 지고 걸었다.

세 마을 이야기



하회마을



가랑비가 꽃잎을 다 떨구어 놓기 전에 길을 나서기로 했다. 숲에서 이는 느슨한 바람 소리에 호흡을 맞춘 채, 사사로운 시름일랑 씻어 내리고 싶었다. 조선 시대 선비들이 정사(精舍)를 찾은 것도 이런 연유였으리라. 정할 정, 집사. 자연의 맑은 기운으로 몸과 마음을 닦는 처소. 글 읽고 정신을 다스리는 것이 과업인 선비에게 정사는 일상 공간에 들인 별서이자 학문적 은신처였다. 유려한 경치가 필요충분조건이었으니, 낙동강 물길 따라 눈부신 벼랑이 휘돌아 흐르는 경북 안동 땅만큼 정사를 지어 올리기에 절묘한 곳도 없을 터. 저마다의 풍광과 사연을 간직한 채 아득한 세월을 버티고 섰을 이들을 머릿속에 그려 본다. 부용대를 구심점으로 자리한 네 곳의 정사를 따라 느릿느릿, 오래도록 걸을 작정이었다.

만송정 숲에서 바라본 하회 풍경

누구나 아는 이름, 모두에게 익숙한 풍경, 그러나 영원히 닳지 않을 감흥을 간직한 곳. 하회마을, 하고도 만송정 숲에 다다랐다. 나무 그늘에 들어서자 솔 향이 확 밀려들더니 저편에 농묵으로 그

린 듯한 수묵화가, 이편엔 세필로 묘사한 듯한 풍속화가 펼쳐진다. 수묵화에 든 것은 강 건너 벼랑 끝 아스라한 옥연정사와 겸암정사, 풍속화에 든 것은 마을에 폭 안긴 원지정사와 빈연정사다. 모두 서애 류성룡과 겸암 류운룡 형제의 유산이다. 강물처럼 깊고 부용대처럼 높은 학문이 이곳에서 무르익었을 것이다. 서애가 글 읽고 몸을 돌봤을 원지정사, 관직에서 물러난 겸암이 귀향해 서재로 썼다는 빈연정사에서 한동안 부용대를 바라보았다. 암향 물씬한 풍경이다. 얼마나 더 걸었을까. 골목 깊숙이 다다르자 좁다란 샅길이 보인다. 저 멀리 노거수 한 그루가 기지개 펴는 듯한 자태로 우뚝 섰다. 홀린 것처럼 종종걸음으로 그 앞에 다가서니 조촐한 안내문이 나무의 내력을 알려 준다. "삼신당은 하회마을에서 가장 중앙에 위치한다. 류



+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청량리역에서 KTX를 타고 안동역까지 2시간 10분 정도 걸린다.

종혜가 입향할 때 심었다고 알려진 수령 600년이 넘는 나무로 마을 사람들이 성스럽게 여기고 있다.”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맺는다. “이곳에서 하회별신굿탈놀이가 시작된다.” 눈을 비비고 다시 본다. 존귀한 삼신당 느티나무와 하얀 나비처럼 나부끼는 소원지, 그리고 소원지를 빼곡하게 매달아 놓은 울타리가 완벽한 구도를 이룬 채 자리해 있었다.

모두를 수호하듯 딱하니 중앙을 지키는 건 사람 키 높이만 한 하회탈 복채함이다. 활짝 웃다 못해 일그러진 듯한 하회탈의 기묘한 표정은, 일단 한 번 보고 나면 잊을 수 없는 심상이 되어 머릿속을 마구 휘저어 놓는다. 마을을 돌아 나오는 걸음걸음마다 탈의 눈초리와 입꼬리가 밝혀서 그길로 하회별신굿탈놀이 공연을 찾기로 했다. ‘파안대소란’ 말의 실체를 목도하고 싶었다.

탈이 된 삶, 삶이 된 탈

정사가 선비 문화의 상징물이라면, 하회별신굿탈놀이는 서민들의 정신적 유산이다. 백정부터 양반까지, 농사짓는 소부터 상상의 동물인 주지까지 세상의 온갖 존재를 동원해 민초의 고단한 삶을 유희와 쾌락으로 승화한다. 연희의 시작을 알리는 것은 서낭신의 현신인 각시광대가 무동을 서서 마을로 강림하는 모습이다. 이내 주지가 뒤엎켜 춤추는 난장판이 이어지더니, 관중을 희롱하는 백정과 괴팍하고 탐욕스러운 할미가 차례로 등장한다. 양증맞은 춤사위를 선보이던 부네는 욕망의 화신인 파계승과 실랑이를 벌이는데, 이를 몰래 엿본 초랭이와 이매가 한바탕 흥을 보고 욕을 한다. 체통 없이 부네를 두고 싸우는 양반과 선비 사이에 또다시 백정이 끼어들어 갈등이 고조되지만, 중국엔 흥겨운 춤과 장단이 이 모든 난리법석을 잠재운다.

공연을 본 뒤에 더 선명해지는 얼굴, 탈이야말로 연희의 진짜 주인공이란 확신이 든다. 오늘날 하회별신굿탈놀이 공연에 쓰이는 탈의 7할이 탄생한 곳, 하회마을 초입에 자리한 류공방



양반
파계승



할미
초랭이



이매
부네



하회마을을 대표하는 공연인 하회별신굿탈놀이는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후 2시에 하회별신굿탈놀이 전수교육관에서 진행된다. 문의 054-854-3664



탈



류호철 작가는 하회탈에 날마다 더 가까워지고자 한다. 국보 하회탈은 53년 만에 외지에서 안동시립민속박물관으로 돌아왔다. 문화재보존과학센터에서 탈을 보존 처리 및 분석한 결과, 하회탈에 쓰인 수종은 오리나무가 아닌 버드나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현재 박물관 본관은 휴관 중이다. 문의 054-853-2988(류공방)

을 찾았다. 이곳엔 국보 하회탈과 꼭 닮은 탈을 복원하고 구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예술가 류호철이 있다. 그는 공연에서 북을 치고 이따금 배역을 도맡는 하회별신굿탈놀이 전수생이기도 하다. 춤을 배운 지는 10년이 좀 넘었고, 탈을 깎기 시작한 건 그보다 서너 해 앞선다. 그렇게 적지 않은 세월 동안 탈을 조각했지만 오늘도 그의 목표는 국보 하회탈에 최대한 가까운 탈을 완성하는 것이다. “양반탈의 주름 개수는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 아시나요? 처음 하회탈을 만들었을 땐 표정을 잡기가 무척 어려웠어요. 웃는 모습을 표현하고 싶는데 자꾸 우는 것처럼 보여서 난감하기도 했죠. 양반탈 같으면 뒤로 젖힐 땐 환하게 웃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마부터 아래로



내려다볼 땐 화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하회마을에서 나고 자랐으나 잠시 미술을 공부하기 위해 고향을 떠났던 그는, 조소와 회화를 거쳐 불현듯 이곳으로 돌아와 탈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운명에 아로새겨진 탈을 비로소 받아들인 셈이다. “하회마을이 풍산 류씨 집성촌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사실 하회별신굿탈놀이를 향유한 이들은 서민이었죠. 달리 말하면 하회마을엔 반촌과 민촌이 공존하고, 양반과 서민의 문화가 어우러져 있다는 거예요. 전 이 마을에서 광대가 된 유일한 풍산 류씨일 겁니다. 가장 좋아하는 배역은 백정이죠.” 말을 끝낸 그의 얼굴이 일순 곡선을 이루며 물결친다. 완전한 하회탈의 웃음이었다.

산성마을



35번 국도를 타고 호젓한 풍경을 가로지르다 보면 도산서원의 맑은 문기가 서린 땅, 도산면에 다다른다. 호계서원과 예끼마을을 지나 안동호반자연휴양림 방향으로 접어들니 머지않아 산속에 폭 안긴 안동호와 장쾌한 건축물, 그리고 고아한 성곽이 에워싼 마을 하나가 어른거리기 시작한다. 안동 여행자를 위한 새로운 이정표, 안동국제컨벤션센터와 세계유교문화박물관, 한국문화테마파크가 한데 모여 있는 풍경이다.

의병 정신이 깃든 놀이터, 한국문화테마파크 산성마을

지난여름 개장한 체류형 복합 문화 관광단지 '안동 3대 문화권 사업장'은 안동의 역사와 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집대성한 공간이다.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 들어선 세계유교문화박물관은 유교 사상과 철학을 망라한 4000여 건의 자료를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처럼 충실히 큐레이션해 거대한 '라키비움'을 이룬다. 나선형의 완만한 경사로를 따라 이어진 디지털 체험형 전시실은 유교의 근본 이념을 감각적인 미디어 아트 작품에 담아 설파한다. 관

람객은 이 경사로를 그저 걷는 것만으로 색다른 울림을 얻는다.

선비 정신의 고결한 흔적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한국문화테마파크 산성마을은 16세기 조선 시대의 의병 운동을 재현한 장소로, 임진왜란 당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이들의 모습을 이곳에서 엿볼 수 있다. 도자기 공방과 남문 역참, 봉수대를 지나 숲길을 내려가다 보면 마을 입구 검문소와 늙름한 의병의 위용을 맞닥뜨린다.

마을에 닿아 가장 먼저 찾아야 하는 곳은 의병 체험관이다. 임진왜란 시기 전투를 배경으로 디자인한 몰입형 3D 체험 프로그램인데, 관람객은 몸소 의병이 되어 당대를 대표하는 무기 천자총통과 비격진천뢰, 활, 석전을 이용해 약 30분간 전투에 나선다. 몸을 움직일수록 정신은 더 깨끗해진다.

안동 3대 문화권 사업장에 속한 세계유교문화박물관은 한국의 정신 문화 유산을 오롯이 담아 현대적인 방식으로 계승, 소개하는 공간이다. 한국문화테마파크는 다채로운 체험 시설을 한데 모은 산성마을과 액티비티 어드벤처 시설 연무대로 이루어진다. 문의 054-857-9918(세계유교문화박물관), 054-857-9916(한국문화테마파크)





가일 마을

해가 누엣누엣 떨어진다. 이 곱고 따뜻한 봄별이 다 스러지기 전에 가일마을로 간다. 가일이란 이름은 해가 아름답다는 뜻인데, 풍산 들에 펼쳐지는 해돋이 풍경이 유독 눈부시기에 그리 불러 왔다고 한다. 물론 마을의 아름다움은 햇살에만 있지 않다. 안동 권씨 집성촌인 이곳은 우암 권준희를 비롯해 10여 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했을 만큼 찬란하고 기개 높은 곳이다. 특히 권오설 선생은 3·1운동에 참여한 뒤 문중 소유 건물인 노동서사·노동재사 등을 활용해 청년과 농민을 위한 교육 시설을 운영했고, 풍산소작인 조합을 지도하며 마을의 번영에 앞장섰다. 역사의 곡절을 간직한 노동서사는 현재 예술가 부부가 운영하는 작은 책방 '가일서가'로 변모해 마을을 찾는 이에게 다정한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다.

나무의 손짓 따라, 가일마을 산책

마을 어귀 가곡저수지 옆에 자라난 회화나무와 버드나무는 모두 보호수다. 이 단어를 볼 때마다 보호의 주객이 전도됐다는 생각이 들어 웃음이 새어 나온다. 수령이 회화나무 300년, 버드나무 200

년에 이르니, 오랜 세월 동안 마을과 사람들을 살피고 지켜 온 건 도리어 나무가 아닐까. 가일마을엔 병곡종택을 시작으로 수곡고택, 남천고택에 이르는 여러 채의 단정한 고택이 나란히 늘어선다. 보호수 앞에서 마을의 주산인 정산을 바라보고 죽 올라가면 병곡종택이다. 이 유려한 고택의 별명은 시습재다. 짐작하는 것처럼 <논어>의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라는 유명한 구절에서 왔다. 15세기 도승지와 관찰사를 지낸 화산 권주가 살았던 집을 18세기 중엽에 후손이 고쳐 지어 지금의 모습에 이르는데, 집주인의 권위나 건물의 규모에 비해 질박하고 단출한 만듬새가 인상적이다. 종가 뒤편엔 산소가, 안채 북동쪽에는 사당이 자리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동안 삶과 죽음이 서로 멀리 있지 않음을 느낀다. 마을을 나서기 전에 마지막으로 들러야 할 곳



가일마을 입구 가곡저수지 수변 택 산책로엔 은가락지를 닮은 그네가 있다. 그네에 걸터앉아 노을을 바라보거나, 어둠이 내린 뒤 경관 조명을 따라 산책을 즐기기가 좋다. 수만 점의 고문서와 유물을 망라한 민간 박물관인 역사문화박물관도 가일마을에서 놓쳐선 안 될 명소다. 문의 054-854-6543(역사문화박물관)

이 있다. 역사문화박물관이다. 권영록 관장이 40여 년간 수집한 수만 점의 문헌과 유물을 소개하는 민간 박물관으로, 2016년에 마지막 졸업생을 배출한 풍서초등학교에 들어섰다. 개인이 소장한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방대하고 귀한 전시품이 세월의 흔적이 그득한 폐교의 교실과 복도 곳곳에 펼쳐져 있다. 6·25전쟁통에 발간된 교과서부터 권문해 선생이 편찬한 백과사전 <대동운부군옥>의 정고본, 안동 지역에서 정신적 지주로 통하던 보백당 김계행의 문집, 효자문 현판, 선비의 일생을 엿볼 수 있는 녹패(조선 시대 월급 명세서)와 호패에 이르는 온갖 책과 활자 인쇄물을 하나하나 살피자니 가슴이 두근거린다. 권 관장에게 물었다. 무엇이 당신을 이토록



많은 책과 인쇄물을 수집하게 했는지. “몸소 ‘우공이산’을 실천한 셈이죠. 종이는 1000년을 버틴다고 하잖아요. 배움의 힘이 강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이 많은 것을 모았나 봅니다.” 충실한 ‘우공’의 어깨에 노을이 내려앉고 있었다. ❷



QR코드를 스캔해 보세요

<KTX매거진> x MBC 라디오 <노중훈의 여행의 맛>
 경북 안동에 다녀온 <KTX매거진>이 MBC 표준FM <노중훈의 여행의 맛>을 통해 독자, 청취자 여러분과 만납니다. 기자의 생생한 목소리로 취재 뒷이야기, 지면에 미처 소개하지 못한 여행 정보를 함께 들려 드립니다.
 * 5월 6일 오전 6시 5분(수도권 95.9MHz)
 * QR코드를 스캔하면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Andong Village Trip

The joy of dancing, singing, and reading can be felt in Andong, Gyeongsangbuk-do Province. I took a stroll in the village, surrounded by beautiful pagoda trees and lively waterways.

A place with a name known to everyone, a familiar landscape to all, yet a place that holds an everlasting inspiration. I am here to explore Hahoe Village and the pinewoods of Mansongjeong Pavilion. As I step into the shade of the trees, the scent of pine greets me. On one side, Ogyeonjeongsa House and Gyeomamjeongsa House are perched on the edge of a cliff across the river, like a scene out of an ink-and-wash painting. On the other side, Wonjiyeongsa House and Binyeonjeongsa House are reminiscent of a genre painting with thin brush strokes. They are all legacies of the brothers Seoae Ryu Seong-ryong and Gyeomam Ryu Un-ryong. Wonjiyeongsa House was where Seoae read and

sought rest, while Binyeonjeongsa House, overlooking Buyongdae Cliff, served as a study for Gyeomam after he retired from his official duties. The landscape is imbued with the fragrance of tranquility.

Finding Life in Masks

How much further have I walked? A narrow path from deep inside the alley. In the distance, an old, solitary tree is standing tall, as if stretching itself. I approach it with eager steps, and a humble sign reveals its history. Samsindang is located at the center of Hahoe Village. The tree, over 600 years old, is said to have been planted by Ryu Jong-hye when he founded the village. The last sentence reads: Here, Hahoe Byeolsingut Tallori (mask dance drama of Hahoe) begins.

I rub my eyes and look again. The majestic Samsindang zelkova tree,

the wish tags dancing like a white butterfly, and the fence adorned with wishes all form a perfect composition. Standing proudly in the center, guarding them all, is the Hahoe mask fee collection box. The peculiar expression on the distorted face of the Hahoe mask, which seems to be smiling but also not, leaves an unforgettable impression that lingers in my mind. Next up on my itinerary is the Hahoe Byeolsingut Tallori performance. I wanted to unravel the true essence of the word “paandaeso,” which means “to break into a hearty laugh.”

If the Confucian academy represents the culture of the literati, then Hahoe Byeolsingut Tallori represents the spiritual heritage of the common people. It elevates the harsh life of farmers and aristocrats, of hardworking cows and the imaginary juji, to entertainment and pleasure. Today, 70% of the masks used in Hahoe Byeolsingut Tallori are created in the Ryu Workshop, at the entrance of Hahoe Village. Ryu Ho-cheol is an artist who

tirelessly restores and recreates masks that resemble the original Hahoe masks, designated as a national treasure. “Those who created the Hahoe masks and those who enjoyed mask plays were all commoners. In other words, Hahoe Village is where the culture of aristocrats and commoners merge. I am the only Ryu clan member involved in mask plays in this village. My favorite role is the butcher.” The artist’s lips form a gentle curve, resembling the smile of a Hahoe mask.

Strolling Through Gail Village

The sun is setting slowly. I head to Gail Village before the warm spring sunshine fades away. The pagoda trees and willow trees growing by the side of Gagok Reservoir are protected trees. The trees are meant to be protected, but in fact, they seem to have served as village guardians for several hundreds of years. In Gail Village, there is a row of well-maintained traditional houses, beginning with Byeonggok Head House of the Andong Gwon Clan, followed by Sugok Historic House and Namcheon Historic House. The golden sunlight on the roofs exudes a gentle energy. I make my way forward while facing the village’s main mountain, and arrive at Byeonggok Head House, which is also known as Siseupjae. The name comes from a famous line in *Analects* that reads “Is it not a pleasure to learn and practice what you have learned from time to time?” Gwon Ju lived here in the 15th century as a chief royal secretary and observer. The house was later renovated by his descendants in the mid-18th century to its current form. It has a simple, modern design despite the owner’s authority and size of the building. Behind the house is a grave, and to the northeast of the annex is a shrine. The scene sends a message that life and death are not far apart. The glowing sunset begins to cast shadows over the courtyard. 📍





안동에서 여기도 가 보세요



즐길 거리



월영교 안동에서 야경을 감상한다면 이곳을 빼놓을 수 없다. 낙동강을 가로지르는 나무다리로 2003년에 개통한 월영교는 너비 3.6미터, 길이 387미터의 규모를 자랑한다. 인상적인 부분은 다리 중턱에 미투리 모양을 닮은 전망대를 품었다는 사실이다. 안동 정상동에서 모를 이장하던 중 미투리 한 켄레와 편지가 발견됐는데, 여기에 요절한 남편을 그리는 아내의 마음이 절절히 배어 있었다고 한다. 이들의 사랑을 기리는 미투리 모양 전망대에 서면 물결을 헤치고 유유히 나아가는 문보트와 알록달록하게 불 밝힌 월영공원의 풍광을 한눈에 담기 좋다.

문의 054-821-0649



주토피움 우리가 크고 작은 생명체와 더불어 살고 있음을 친근하게 알려주는 생태 체험 공간이다. 희귀 곤충관, 파충류관, 양서류관, 거북이관, 조류관 등으로 이뤄진 실내 동물원과 미니 동물원이 자리한 야외 정원에서 200여 종의 동물 친구와 어울려 놀며 자연스레 공존과 상생을 배운다. 어둠이 내리면 빛 테마파크와 카페에서 근사한 야경을 감상해도 좋다. 야간 입장료는 5000원으로, 금~일요일과 공휴일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한다. 입장 시 커피나 음료 한 잔을 무료로 제공하니, 쉬엄쉬엄 산책을 즐길 수 있다.

문의 054-859-5988



먹거리

안동갈비골목 안동에 찜닭만 있는 게 아니다. 남문로를 기준으로 서쪽엔 안동찜닭골목이, 동쪽엔 안동갈비골목이 펼쳐져 있어 배고픈 여행자는 그저 즐거울 따름이다. 오랜 세월 동안 우시장이 성업했던 안동은 한우로 유명한 경북 지역 안에서도 훌륭한 품질로 이름이 높은 고장이다. 부드럽고 향이 좋은 안동 한우를 경험하고 싶다면 이곳에서 숯불갈비로 즐겨 본다. 안동갈비골목 대부분의 식당에서 생갈비와 양념갈비, 두 가지 메뉴를 선보이니 고민할 여지가 없어 편리하다. 맛깔스러운 밑반찬과 서비스로 나오는 푸짐한 시래기 된장찌개, 갈비찜 등이 안동 사람들의 깊은 정을 느끼게 한다.



안동찜닭골목 안동찜닭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존재한다. 조선 시대에 도성 안쪽 마을 사람들이 특별한 날에 만들어 먹던 닭 요리라는 주장과, 1980년대 중반 안동 구시장 닭 골목에서 생겨 난 요리라는 견해가 주를 이룬다. 역사적 사실보다 중요한 현실은 안동찜닭의 분향인 이곳이 원형에 가까운 맛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다. 질 좋은 닭고기에 감자·당근·양파 등 채소를 듬뿍 넣어 센 불에 한 차례 조리고, 그런 뒤에 당면·대파·시금치를 넣어 한 번 더 익혀 완성하는 게 정석. 매콤달콤하게 맛을 낸 안동찜닭은 한 번 먹으면 도무지 잊기 어려운 음식이다. 남은 양념으로 밥을 볶거나 비비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건강과 사랑을 그대에게

5월, 소중한 이에게 마음을 건네는 달이다.
88년간 축적한 기술력의 집약체, 파나소닉 프리미엄 안마의자 '리얼 프로 EP-MAK1'에 감사와 사랑을 실어 보낼 때다.

2023 파나소닉 가정의 달 고객 감사 이벤트

퍼스트 클래스의 격이 깃든 안마 기술 집약체, 파나소닉 안마의자를 구매하는 고객을 위해 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 행사 대상 품목은 MAK1, MAJ7, MAF1, MA32, MAC9, MA05로 다양한 제품을 취향에 따라 선물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혔다. 행사 기간 중 구매 시 할인 혜택과 사은품을 제공한다.
기간 5월 1일~31일 문의 02-533-8452



사랑이라는 말로 다 표현하기 버거운 존재가 바로 가족이다. 세상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이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5월, 파나소닉 리얼 프로 EP-MAK1으로 건강을 선물하면 어떨까. 아침 온 가족 모두 모여 손잡고 어디든 떠나고 싶어지는 때다. 가벼운 공원 산책부터 등산까지 야외 활동이 급격하게 많아지는 요즘, 파나소닉 리얼 프로 EP-MAK1은 확실한 휴식과 이완의 시간을 보장한다. 각종 신체 활동으로 인한 피로감, 춘곤증·만성피로·긴장으로 뭉친 근육을 공들여 풀어 줄 뿐 아니라 활기찬 일상을 지켜 준다.

내 몸에 꼭 맞는 안마의자

리얼 프로 EP-MAK1의 하이라이트는 온열 마사지 불이다. 수평, 수직으로 자유롭게 이동하며 어깨선을 따라 세밀하게 압력을 전달하고, 어깨와 목 관절 주위를 시원하게 지압한다. 파나소닉의 기술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승모근 전체를 부드럽게 쓸어내리고, 3D 주무르기 기능으로 견갑골 측면을 따라 입체적인 마사지를 수

행해 어깨 결림은 물론 스트레스까지 완화한다. 새로운 기능인 에어백 마사지는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뚝 전체를 기본 좋게 자극해 뭉친 부위를 풀어 준다. 특히 놓치기 쉬운 엄지 관절 부위와 손바닥까지 에어백의 돌출부가 압박하고 자극해 피로를 온전히 해소하도록 돕는다.

온 가족 건강을 지켜 주는 마사지

마사지 전문가의 손놀림, 압력, 패턴을 분석 및 재현한 리얼 프로 EP-MAK1은 마사지 불에 가해지는 압력을 감지해 사용자의 키와 신체 유형에 최적화된 맞춤형 안마를 선보인다. 특히 통증의 근원에 효과적으로 접근해 지압, 두드리기, 스트레칭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터치 패널 컨트롤러를 탑재한 덕에 취향에 맞는 마사지 메뉴를 손쉽게 탐색하고, 원하는 부위를 고를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최대 3명의 사용자가 세 부위를 조합해 설정한 후 등록 가능해 온 가족이 사용하기에도 효율적이다.



EP-MAK1(아이보리)



EP-MAK1(베이지)



EP-MAK1(블랙)

SPRING OF MIRYANG

초록빛 강호에 드소, 밀양 기행

영남루와 밀양강이 그린 풍경을 지나 위양지와 만어사에 들었다.
별 가득한 날, 경남 밀양을 바라보았다.





01 영남루 Yeongnamnu

밀양이라는 글자를 떠올리다가 “밀양” 하고 말해 본다. 글자가 입안을 등글고 부드럽게 맴돈다. 밀양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마중을 나온 것은 햇볕이었다. 기차역 바닥을 노르스름하게 비추는 빛을 손에 담아 쥐었다. 따스하다. 밀양이 보여 주는 풍경도 그러했다. ‘밀양아리랑’의 이야기가 서려 흥과 풍류가 넘치는 고장, 밀양 속으로 들어간다.

흐르는 풍류와 누각

생기 넘치는 이 계절의 밀양을 두 눈에 가득 채울 수 있는 장소로 향한다. 마루에 오르면 널찍한 밀양강과 시내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곳, 예부터 명루라고 일컫는 영남루다. 누각은 고려 시대에 건설됐다. 1356년, 밀양

1356년 처음 지은 영남루는 거대한 규모와 시원한 전망 덕분에 예부터 명성이 자자했다. 현재 누각은 1884년 복원한 것으로 ‘밀양아리랑’ 전설이 서린 아랑각, 무봉사가 근처에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다.

부사 김주가 신라 시대 영남사가 있던 자리에 누각을 세워 영남루라는 이름을 붙인다. 화재로 두 번이나 소실되는 고비를 겪었지만, 1884년 복원 이후 건물을 잘 보존한 덕분에 지금까지도 위풍당당하다. 대루에 들어 풍경을 굽어보니 밀양강 물결이 일렁이고 수목은 생기로 가득하다. 나뭇가지를 흔드는 산들바람과 포르르 나는 새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는 듯하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밀양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문익점·이색·이황 등 영남루에 대한 글을 쓰고 풍류를 즐겼다는 문인의 기록이 한둘이 아니다. 조선 후기에는 시문 현판이 300개 넘게 걸릴 정도였다. 가장 유명한 것은 대루 안쪽에 걸린 ‘영남제일루’ 편액인데, 영남루를 복원한 밀양 부사 이인재의 아들 이정재가 열한 살 때 썼다고 한다. 영남루를 향한 애정은 시가 되어

현재까지 전한다. 고려 말에 태어난 문신 이원은 이런 시를 남겼다. “우뚝한 누각 영남 하늘에 높이 올려놓아서/ 십 리의 빼어난 경치 눈앞에 다 보이네/ 고요한 낮 여울 소리 베크머리에 이어지고/ 해 비끼자 솔 그림자 뜰가에 떨어진다”. 마당에서 누각을 바라보면 특이한 부분이 눈에 들어온다. 우선 대루를 중심으로 양쪽에 날개처럼 능파각과 침류각이 놓였다. 누각 하나만 덩그러니 선 것이 아니라, 그 옆에 건물 두 채를 지어 객사 역할을 하도록 했다. 대루와 침류각을 계단인 층층각으로 연결한 부분도 눈길을 끈다. 다락루 형식으로 지어 올린 대루와 상대적으로 낮은 곳에 배치한 침류각의 단차를 계단으로 극복하려고 했다. 물이 흐르는 모양을 연상시켜 여수각, 또는 하늘에서 보았을 때 ‘달 월(月)’ 자를 닮아 월랑이라는 별명으로도 부르는 층층각은 현재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 출입을 막아 놓았다. 직접 모르지 못해 아쉽지만, 물러서 바라보기만 하는 것으로도 건축미가 충분히 전해진다.

+ 제65회 밀양아리랑대축제

영남루와 밀양강 일대가 ‘아리랑’ 가락을 타고 들썩인다. 5월 18일부터 21일까지 제65회 밀양아리랑대축제가 열린다. ‘밀양아리랑’ 경연 대회와 각종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기대를 모은다. 겹벚꽃이 훑날리는 날, ‘밀양아리랑’을 흥겹게 부르고 밀양만의 이야기가 담긴 창작 뮤지컬 <밀양강 오디세이>를 관람하며 흥겨운 축제를 즐기자. 문의 055-359-4500

선인들이 영남루만큼이나 아끼던 장소가 하나 더 존재한다. 초봄에는 동백이 곳곳을 붉게 물들이고, 동백이 진 뒤엔 이팝나무가 꽃을 피운다. 얼마나 꽃이 흐드러지는지, 5월에 때아닌 눈이 내린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다. 이뿐인가, 초목이 짙어지는 여름에는 백일홍이 만발한다. 가을에는 낙엽, 겨울에는 설경이 운치를 더한다. 사시사철 다른 옷을 갈아입는 곳, 위양지다.

사랑이 담긴 저수지

백성을 위하는 못. 위양지를 그대로 풀어 쓴 것이다. 지금은 위양지라고 부르지만 이전에는 양양지라고 불렀다. 모두 백성을 위한다는 의미를 품는다.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통일신라 때 축조했을 거라 추정한다.

위양지는 곱다. 반짝이는 윤슬, 못 가운데 섬에 세운 완재정, 우거진 수목이 힘을 모아 이곳을 가꾸는 것 같다.

오랜 세월 동안 위양지는 그 이름처럼 제 몫을 톡톡히 해냈다. 화악산에서 내려온 물을 가둬 두었다가 알맞은 때에 끌어서 농사를 지었고, 제방에는 각종 나무를 심어 가꿨다. 삶이나 마찬가지로 농사에 도움을 준 저수지이니, 백성이 이곳을 아끼는 마음이야 더할 나위 없었을 것이다.

위양지는 더 이상 저수지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 인근에 가산저수지 등 크고 작은 저수지가 들어서 그들에게 일을 물려주고 은퇴했다. 그래도 위양지는 여전히 곱다. 반짝이는 윤슬, 못 가운데 섬에 세운 완재정, 우거진 수목이 힘을 모아 이곳을 가꾸는 것 같다.

둘레길은 온통 연둑빛이다. 새순이 막 돋아난 나무를 마주한다. 느티나무·버드나무·이팝나무 등 온갖 수목이 저수지를 에워싸는데, 특이하게 물가에 자라는 나무는 모두 못을 향해 몸을 굽힌 모습이다. 가지가 두 팔 벌려 저수지를 안으려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단순히 벌과 물을 확보하기 좋은 곳으로 움직인 것이지만, 상상력을 자극해서 자꾸만 들여다보게 된다. 황선미 문화관광해설사가 하늘을 가리킨다. “나무가



위양지 둘레길은 1킬로미터 정도라 가볍게 산책하기에 알맞다. 인공 섬 가운데에 놓인 완재정 대문은 위양지 포토 존으로 소문났다.
문의 055-359-5641

신기하게 자라나지요? 이쪽으로 와서 위를 올려다보세요. 어때요, 하트 모양을 찾으셨나요?” 보인다. 얇힌 나뭇가지가 정말로 선명하게 하트를 그린다. 위양지에는 여기저기 사랑이 담겼다. 사람이 서로에게 기댄 모습을 닮아 ‘연인 나무’라고 부르는 나무 두 그루, 사이좋게 먹이를 찾는 원앙 한 쌍, 흙길을 밟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이들. 무엇보다 이 저수지가 만들어진 이유도 백성을 향한 사랑이 아니겠는가. 몇 걸음 더 걷자 구부러져 물가에 닿은 나무 위에 올라 별을 쬐는 남생이와 마주친다. 목을 길게 빼고 가만하더니, 기분이 좋은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닫는다. 주먹만 한 새끼 남생이도 큰 남생이를 따라 일광욕을 즐긴다. 보고만 있어도 웃음이 지어지는, 사랑스러운 풍경이다.





다른 세계로 들어온 듯, 차분한 공기가 뺨을 스친다.
나뭇잎이 바람과 닿는 소리만 귓가를 은은히 울리는
고요한 만어사에 닿았다.

03 만어사 Maneosā

이제 저수지를 벗어나 만어산으로 향한다.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더 위로 가다가 해발 674미터에서 걸음을 멈춘다. 다른 세계로 들어온 듯, 차분한 공기가 뺨을 스친다. 나뭇잎이 바람과 닿는 소리만 귓가를 은은히 울리는 고요한 만어사에 닿았다.

돌이 품은 전설

<삼국유사>에 따르면 만어사는 고대 가락국의 수로왕이 창건한 절이다. 수로왕은 이곳에서 불공을 드리거나, 가뭄이 오래 지속될 때 기우제를 지냈다. 왕이 찾았던 절이지만 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 대웅전과 고려 시대 때 세운 삼층석탑, 미륵전, 삼성각과 요사채 등이 단출하게 모여 있다. 만어사의 보물은 석탑이나 건물만이 아니다. 미륵전 앞, 끝없이 펼쳐진 거대한 너덜경이 드러난다.

저 아래까지 검푸른 돌무더기가 넘실댄다. 크기가 제각각인 돌들은 당장이라도 꿈틀거릴 듯하다. 꿈에서조차 본 적 없는 압도적인 광경에 잠시 말을 잊고 하염없이 바라본다. 웅장한 경관에 걸맞은 전설도 전해 내려온다. 오래전 수로왕이 군림하던 시대, 만어산에 사는 나찰녀와 옥지 연못에 사는 사악한 흑룡이 있었다. 그들은 서로 어울리며 마을 사람들에게 횡포를 부렸다. 우박을 내려 농작물이 해를 입는 등 피해가 점점 커지자 이를 보다 못한 수로왕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처를 찾았고, 부처는 만어사에서 설법으로 돌을 교화하기로 한다. 이때 동해의 용과 수많은 물고기가 소식을 듣고 몰려와 부처의 설법을 함께 들었다. 이에 감응한 용과 물고기는 모두 돌로 변해 버린다. 돌덩이가 된 물고기 떼는 여전히 자리를 지킨다. 이야기를 곱씹으며 너덜 지대로 조심스레 올랐다. 미끄러운 돌을 딛고 천천히 나아간다. 멀리서 바라볼 땐 작



만어사는 만 마리 물고기가 돌이 된 절이라는 뜻이다. 대웅전 뒤에는 2010년 새긴 대형 마애불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문의 055-356-2010



았는데, 막상 올라서니 바위 하나하나가 사람 몸만큼이나 커다랗다. 만어사 너덜경의 돌은 재미있는 특징이 있다. 두드리면 종이나 철같이 ‘캉, 캉’ 하고 맑은 소리가 난다는 점이다. 이런 까닭에 경석, 또는 종석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아직 놀라기는 이르다. 만어사의 특별함은 너덜경에서 끝나지 않는다. 미륵전에 들자 근엄하게 여행

크기가 제각각인 돌들이 지천에 깔렸다. 꿈에서조차 본 적 없는 압도적인 너덜경 광경에 잠시 말을 잊고 하염없이 바라본다. 새삼스레 자연의 힘이 느껴지는 순간, 가슴이 벅차오른다.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밀양역까지 2시간 30분 정도 걸린다.

자를 맞는 부처상은 온데간데없고, 5미터가 넘는 거대한 돌이 자리를 꿰차고 있다. 눈이 절로 휘둥그레진다. 전설 속 동해의 용이 바로 이 돌인 것이다. 마음을 비우고 자세히 살피면 부처의 모습이 보인다고 한다. 누가 뭐래도 만어사의 부처는 이 거대한 돌이다.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소원을 빈 뒤 미륵전을 나선다. 해는 벌써 밀양에 늘어놓았던 빛줄기를 서서히 거둬들이는 중이다. 이제 어둠과 달이 찾아올 것이다. 만어산을 내려가면서 거쳐 온 풍경을 곱씹는다. 수려하고도 신비한 곳을 누비는 내내 다정한 별과 함께했다. 기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 마음이 울적할 때마다 꺼내 볼 추억을 차근차근 기억 속에 정리한다. 봄, 햇볕 그리고 밀양. 온기가 남은 이곳에 달빛이 한 줄기씩 찾아든다. ㉔



숨은
용산
찾기

1928년에 지은 철도병원이 박물관으로 재탄생했다.
서울 용산역사박물관은 철도와 군사기지, 그 너머의 용산까지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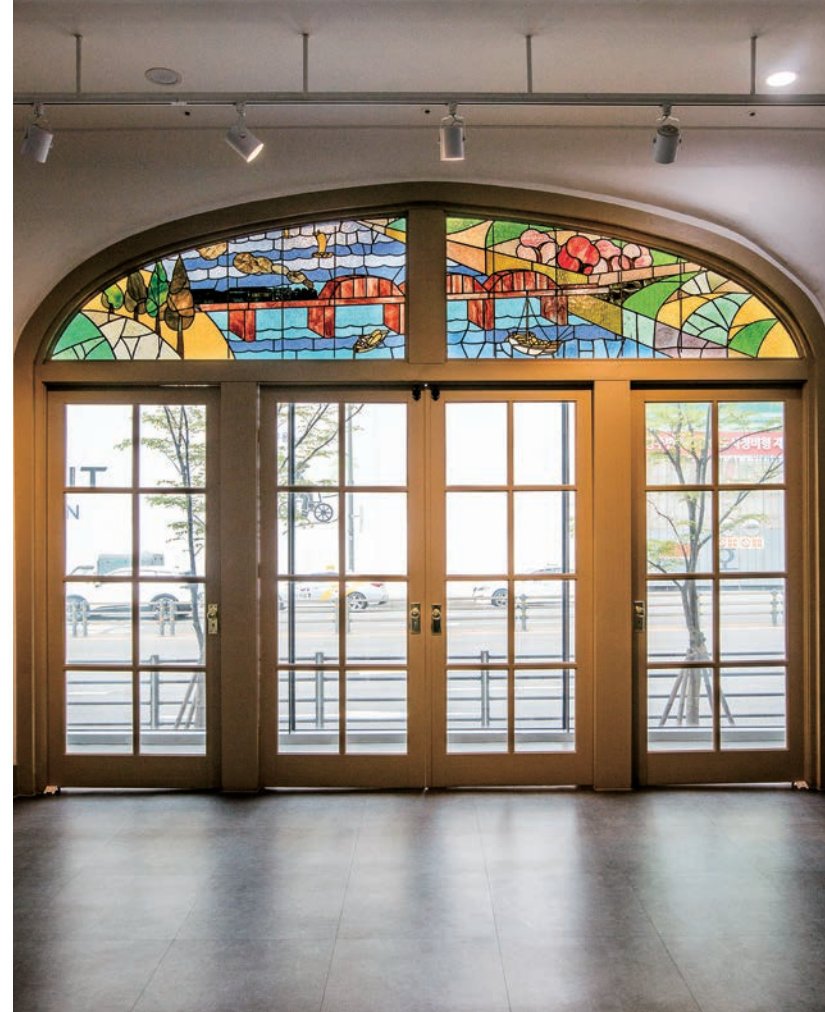
YONGSAN

필요해서 건물을 짓는다. 용도에 맞춰 구획하고 꾸민 뒤 사람이 이용한다. 세월이 흐르면서 사연이 쌓인다. 충분한 시간 동안 이용자가 드나든 건물은 다른 어디에도 없는, 이 세상 유일한 곳이 된다. 서울 용산역사박물관이 꼭 그렇다. 철도를 중심에 두고 발달한 용산에서 철도 노동자를 대상으로 세운 병원은 아픈 이와 치료하는 이를 한 세기 동안 품었고, 이제 그 이야기와 그 너머의 이야기까지 담아내어 박물관으로 손님을 맞는다.

100년의 시간을 간직한 공간

이 자리에 병원이 들어선 시기는 1907년이다. 한강 철교가 한강 남북을 잇고 경부선과 경의선이 속속 개통한 시절은 하루하루가 천지개벽의 연속이라 해도 틀리지 않았다. 일제는 한강과 도심에서 모두가 가까운 용산을 군사기지와 철도 용지로 점찍었다. 변화를 계획하는 건 사람 머리지만 변화를 현실화하는 건 사람 손발이다. 일제는 조선의 물자를 수탈할 뿐만 아니라 사람마저 혈값에 데려다 마구 부렸다.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운 환경, 수많은 노동자가 철도 현장에 불려 왔고 사고가 빈발했다. 1905년 경부선 개통, 1906년 경의선 개통과 용산역 재건축. 통감부 철도국이 주도해 1907년 용산역 근처에 병원을 열었다는 사실에서 긴박함이 느껴진다. 1918년 화재로 이 병원이 전소하자 1928년 지상 2층, 연면적 2275제곱미터(약 688평) 규모로 다시 지었고, 그 건물이 오늘에 이른다.

용산역사박물관은 병원 시절을 고스란히 기억하도록 애썼다. 입구 로비를 지나 길게 이어지는 복도, 계단은 물론 기둥과 진료실 문도 살뜰히 보존했다. 무엇보다 옛 출입구의 스테인드글라스 장식이 일품이다. 한강철교 위로 열차가 달리고 한강에는 배가 떠



옛 출입구의 스테인드글라스는 한강철교 위로 열차가 달리고 강에는 배가 떠다니는 풍경을 담았다. 철도병원으로서 가장 기념할 만한 한순간이다.

다니며 강변은 꽃과 나무가 흐드러졌다. 철도병원으로서 가장 기념할 만한 풍경을 담은 작품이고, 20세기 초반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한순간이다. 솟을대문이 연상되는 당당한 너비는 환자를 들것에 옮겨왔기 때문이겠다.

탄생 배경은 필요와 아픔이었을지언정 건물 자체는 견고하고 아름답다. 붉은 벽돌 외벽이나 복도 기둥의 우아한 아치, 계단 난간과 창문 등 눈여겨볼 거리가 많다. 수술실인 외과처치실은 타일 붙인 벽을 그대로 두어 과거 분위기를 전한다. 일반 진료도 했지만 병원 특성상 외상 환자가 다수였기에 출입문 근처에 수술실을 배치하고, 바닥은 물이 잘 빠지게 배수로를 냈다. 수술실 한쪽은 영상실로 만들었다. 환자가 두려움 속에 희망 한 줌 췌 채 바라보았을 벽이 스크린이 되어 옛 병원 모습과 박물관 개조 과정을 비춘다. 박물관이 아득한 역사와 인간의 삶을 배우고 반추하게 하는 곳이라면 병원 출신의 이 박물관은 정말 적절한 공간에 자리 잡았다.

강변 마을에서 철도 중심지, 군사기지로

복도를 따라 늘어선 진료실은 칸칸이 전시실로 바뀌어 조선 시대 강변 마을에서 20세기 군사기지와 철도 중심지로 변모해 온 용산의 역사를 말한다. 그 옛날 용산 일대 한강은 선비들이 별서나 정자를 짓고 서화를 남기는 명승으로 유명했다. 안평대군이 서적 1만 권을 들고 객을 즐겨 초대했다는 담담정을 그린 '담담장락도', 마을과 주민의 생활상을 표현한 '동호서호도' 등 여러 작품에서 용산의 풍정을 만난다.

한강은 풍류의 대상이면서 교통수단이라 일찌감치 상인이 활동했고, 한양과 전국을 잇는 큰길 10개 가운데 3개가 용산을 통과했다. 일제가 이 교통 요지에 눈을 들었다. 1899년 인천에서 노량진까지 개통한 경

인선을 한강 건너 수도와 연결하려고 1900년 한강철교를 준공한다. 용산 일대 390만 제곱미터(약 118만 평) 부지를 수용해서는 군대를 주둔시키고 기차역·철길·관사·공장·병원 등 철도 관련 시설을 짓는다. 주민이 논밭을 일구고, 강에 나가 상인의 일손을 거들고, 선비들이 유람 와서 시를 읊고 붓을 놀리던 어제의 용산은 빠르게 사라졌다.

20세기 용산을 상징하는 군사기지와 철도가 1층 전시실 상당 구간을 차지한다. 1906년 완공한 용산역을 벽면에 그린 전시실에서는 기차표, 철도 노선 안내 책자, 사진 등으로 100년의 역사를 되짚는다. 현재와 사뭇 다른 옛 기차 의자에 앉으면 차창 역할을 하는 모니터 영상이 시작된다. 몽골과 러시아, 프랑스를 거쳐 영국까지 풍경이 흐른다. 언젠가는 분명히 가능할 여정을 이곳에서 미리 체험한다. 아픔을 뒤로하고 평화와 낭만, 미래를 연결하는 맨 앞에 기차가 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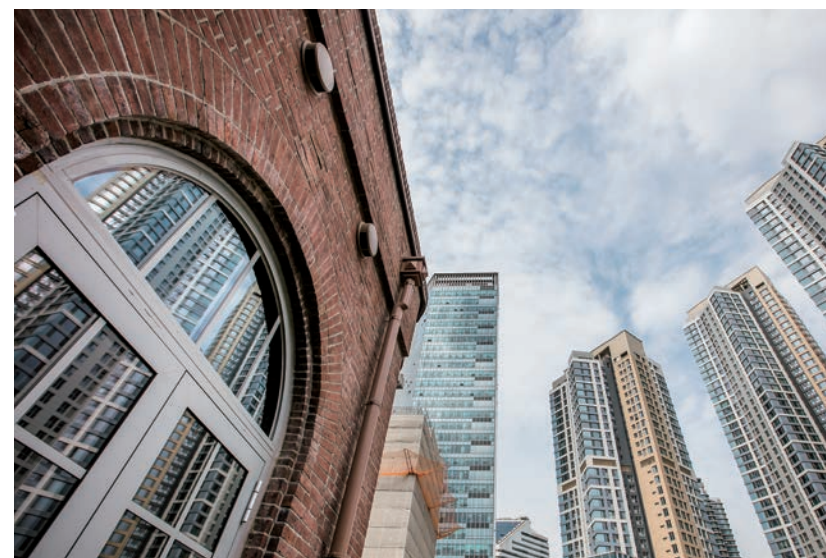
사람이 살아온 땅, 넉넉히 품어 안은 땅

이 모든 순간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용산이 사람이 사는 땅이라는 점이다. 일제가 점유했던 토지 118만 평을 터전 삼았던 주민이 쫓겨나 이룬 마을이 보광동이다. 해방촌은 광복과 6·25전쟁 이후 거주지가 막막한 사람이 모여 형성됐다. 박물관은 이들을 용산 역사의 또 다른 주인공으로 모시고 다양한 이를 인터뷰해 들려준다. 전국 각지에서 꿈을 갖고 와, 때로는 상황에 떠밀려 용산에 뿌리 내린 이들의 이야기가 몽클하다. 외국인과의 공존해 온 포용의 면모 또한 용산의 주요한 정체성이다. 무려 51개 주한 외국 대사관이 용산에 자리 잡았으며, 토속신앙 의례부터 외지 종교 성전도 두루 만날 수 있다.

현재 열리는 기획전 <숨은 용산 찾기>는 한 세기 동안 극적인 변화를 맞은 용산의 모습을 담은 소설·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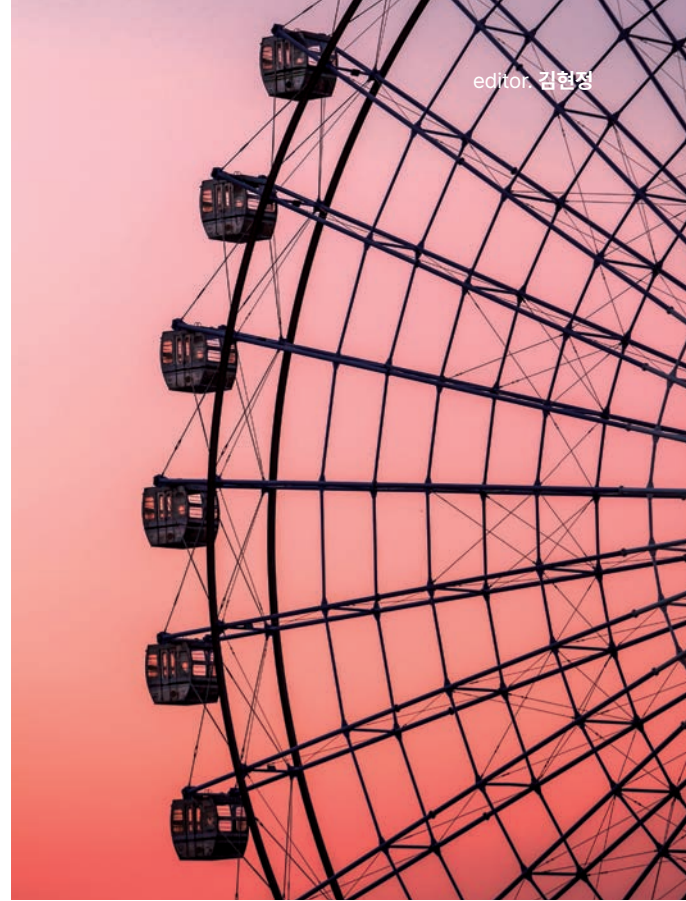
등록문화재인 옛 용산철도병원이 용산 지역사를 다루는 용산역사박물관으로 다시 태어났다. 외관과 내부를 최대한 보존해 건축적으로도 의미가 깊다. 9월 15일까지 기획전 <숨은 용산 찾기>를 진행한다.
문의 02-2199-4620



드라마·음악을 꼼꼼히 선별했다.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에 수록된 소설 '피로-어느 반일의 기록'에서는 멀쩡한 한강 인도교를 두고도 고무신과 짚신을 신은 발로 꿈꿨던 한강을 걸어서 건너야 하는 조선인의 처지를 그린다. 드라마 <나의 아저씨>는 땡땡 소리가 정겨운 백빈건널목을 배경으로, 서로 다른 길을 지나는 두 사람이 교차해 만나고 이해해 가는 과정을 보여 준다. 그 밖에도 소설 <해방촌 가는 길> <오발탄>, 드라마 <쌈, 마이웨이> <이태원 클라쓰>, 영화 <기생충> <올드 보이>, 대중가요 '돌아가는 삼각지' '월효로1가 13-25 가는 길' 등 용산만의 정서가 낯은 작품을 하나하나 감상한다. 용산이라는 복잡다단한 도시의 상이 맺히는 듯하다.

이야기가 모인 박물관이라는 바다

2층 전시실에서 한 층을 올라 옥상정원으로 간다. 설계할 때부터 지붕을 평평하게 해 환자가 쉬도록 한 공간이다. 곳곳에 의자를 놓고 식물을 심어 산책하거나 앉아서 쉬기 좋다. 건물 모서리를 공들여 등글게 마감한 건축양식도 여기에선 잘 보인다. 100년 전 사람은 웅장하고 이국적인 용산역이나 주변의 신식 건물을 조망하며 감탄했을 터다. 지금은 마천루가 겹겹이 들어섰고, 한쪽은 철도고등학교, 뒤쪽은 공터. 그럼에도 3층 야외를 활보하면서 이런 높이의 시야로 도시를 감상하는 경험은 특별하다. 용산의 시간을 간직한 병원이 여러 풍파에도 살아남아 박물관으로 재탄생해 얼마나 다행인지. 오늘이 흘러가 어제가 되고 내일이 오면 용산은 또 어떻게 바뀌어 갈까. 그런 날들의 크고 작은 이야기가 박물관이라는 바다로 모여들어 용산을 기억할 것이다. 박물관을 나와 한강대교를 건너는 길, 저 너머 한강철교로 기차가 지나간다. 늘 좋아했지만, 더 좋아진 풍경이다. ㉞



인생은 회전목마, 롤러코스터

아마 현실에서 웃음 밀도가 가장 높은 공간이자 어린이날에 가장 붐빌 곳, 놀이공원. 잠시 비일상을 즐기게 하는 놀이공원에서 촬영한 작품을 찾아봤다.

저 높이 대관람차가 천천히 회전하고, 롤러코스터는 별안간 속도를 내어 곁을 쏘살같이 지나가며, 회전목마는 따스한 음악을 배경으로 뱅글뱅글 돈다. 놀이공원에 입장하는 순간, 공원 밖 복잡한 세상사는 잠시 없는 셈치고 오늘 하루 여기서 무엇을, 어떤 순서로 이용해야 효율적이고 재미있을까 하는 고민을 지상 과제 삼는다. 크게 한 바퀴 원을 그리는 대관람차의 전망은 오직 대관람차만이 선사할 수 있다. 밀폐된 채 적당히 흔들리는 공간에서 함께 탄 사람과 시야를 공유한다는 사실은 얼마나 낭만적인지. 롤러코스터의 짜릿함은 옆에 앉은 이와 동일한 속도로 심장이 두근거리게 하고 즐거움을 전염시킨다. 가족, 연인, 친구가 회전목마에 오르면 그가 내 앞에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미소를 짓고 손을 흔든다. 아마도 놀이공원은 현실에서 웃음 밀도가 가장 높은 장소인지도 모르겠다.

비일상성, 알록달록한 색깔, 특별한 분위기 덕분에 다양한 작품이 놀이공원을 담았다. 연인이 가까워지고, 가족이 신나는 한때를 보내는 장면을 일일이 손에 꼽기 어렵다. 약 20년 전 방영했지만 드라마 <천국의 계단>에서 회전목마로 시간 흐름을 표현한 연출은 여전히 회자된다. 짧은 시간에 강렬한 이미지를 전달해야 하는 뮤직비디오도 놀이공원을 자주 찾았다. 방탄소년단, TXT, 트와이스 등 뮤직비디오 여러 편이 떠오른다. 물론 기쁨만 표현하는 배경은 아니다. 놀이공원의 들뜬 공기가 비극을 극대화하기도 한다. 아이와 헤어지기 전 마지막으로 데려가거나, 신나는 하루를 보낸 뒤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는 식이다. 인생의 희로애락과 극적인 사건을 압축해 보여 주는 데 놀이공원은 그만큼 유용하다.

한국 곳곳에서 놀이공원이 영업 중이다.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기 시작한 1980년대에서 1990년대에 문을 연 공원이 대다수다. 대구 이월드 같은 대형 공원은 시설을 리뉴얼하고 꽃피는 계절, 연말연시 등 시기별로 축제를 열어 손님을 끌지만 소형 공원은 관심에서 밀려나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반전. 쇠락해 가던 서울 용마랜드는 세월을 머금은 '빈티지한' 느낌 때문에 뮤직비디오와 드라마, 영화 배경이 되면서 다시 전성기를 맞았다. 충남 당진 삽교호놀이동산 또한 '논밭 뷰'라는 독특한 입지가 SNS에 뜨고 나서 손님이 북적인다. 지금 조명이 꺼졌다고 내일도 그러라는 법 있으랴. 누구나 언젠가는 대관람차, 회전목마에서 내려와 땅에 발 딛고 일상을 살아야 한다. 그러기에 놀이공원의 시간은 소중하다. 자, 이제 그 소중함을 담은 장면으로 함께 탑승. **K**

As the Ferris wheel slowly turns, the roller coaster zooms by like an arrow, and the carousel spins to the music playing in the background. The moment you enter the amusement park, you forget about the complexities of the outside world. There is nothing quite as romantic as sharing the same view with your loved one in the enclosed space of the Ferris wheel. The thrill of the roller coaster makes your heart race at the same speed as the person sitting next to you. If a family member, loved one or friend gets on the carousel, you wait for them to pass and give them a wave. You could say that the amusement park is where the most laughter is heard.

Amusement parks, with their unusualness, vibrant colors and unique atmosphere, have been featured in many films and dramas. You would have also seen them in music videos of BTS, TXT, and Twice. Of course, it is not only associated with happiness. The exuberant atmosphere can be used to amplify tragedies. The amusement park is where you take your child for one last time before saying goodbye, or experience something unpleasant after a fun-filled day. It is one of the best places to compress the joys and sorrows of life.

Many amusement parks are operating all over Korea. Large parks like E-World in Daegu renovate their facilities hold year-end festivals to attract visitors, whereas smaller parks often struggle due to the lack of attention. Seoul's Yongma Land regained its heyday as a shooting location thanks to its vintage mood. Sapgyohe Amusement Park in Dangjin, Chungcheongnam-do also became popular on social media for its unique "rice field view." Everyone will eventually have to get off the Ferris wheel or carousel and set foot on the ground to live their daily lives. That's why the time spent at the amusement park is all the more precious. Now, let's take a ride into the scenes that capture such lovely moments. **K**



AMUSEMENT PARK





이곳에서 촬영했어요



MOVIE

<낭만적 공장> #당진 삽교호놀이동산



첫 장면,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대관람차가 회전하고 그 안에 한 남자가 앉아 있다. 한적한 한낮의 관람차를 혼자 탄 그의 눈에 역시 혼자인 여자가 들어온다. 공장에서 경비원과 직원으로 다시 마주친 그들. 각자 상처를 지녔지만 남자는 여자의 아픔을 보듬고 거기서 구해 주고 싶어 한다. 회색 공장에서도 사랑은 싹트고, 마지막엔 함께 관람차에 오른다.

A man riding alone on a Ferris wheel notices a woman who is also alone. They meet again at the factory as a security guard and an employee. The man is drawn to comforting the woman and rescuing her. Love blooms even in the grey factory, and in the end, they ride the Ferris wheel togeth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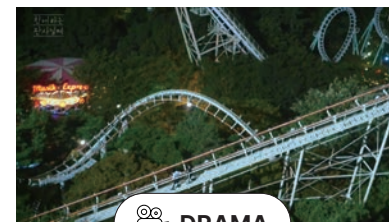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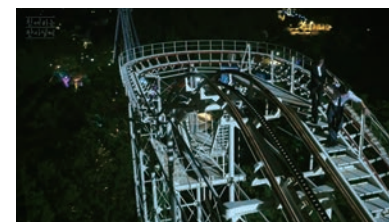


DRAMA

<오월의 청춘> #남원 남원랜드

5월에 생각나는 이름 광주. 드라마는 찬란한 계절을 피로 물들인 5·18민주화운동 전후를 배경으로 청춘의 이야기를 그린다. 역사가, 권력이 그들의 운명을 틀어쥐고 어디로 끌어가는지, 그럼에도 청춘이 자신의 존엄을 어떻게 지켰는지 눈물겹다. 두 주인공이 간질간질한 연애를 시작할 무렵, 동생들과 나들이가 더욱 친해진 곳이 남원랜드다.

This story of youth takes place against the backdrop of the Gwangju Uprising in Korea. It portrays how history and power manipulate destinies and how the youth strive to maintain their dignity even in the face of adversity. Namwon Land is where the male and female protagonists become closer with their younger sibl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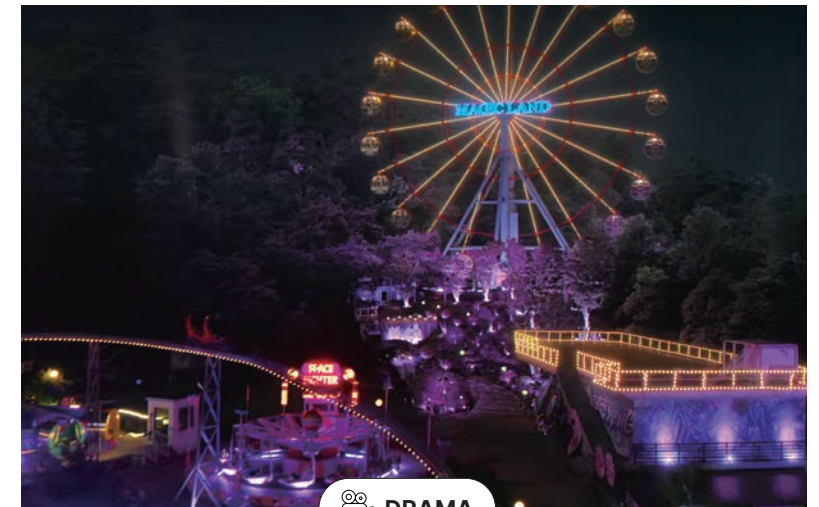


DRAMA

<친애하는 판사님께> #대구 이월드

판사와 판사시보가 롤러코스터 레일에 오른다. 시보는 심지어 눈을 가렸다. 이는 시각장애인에게 놀이기구 탑승을 제한한 실제 사건을 따와 만든 에피소드다. 놀이공원은 장애인인 비상사 대피하지 못한다며 이용을 막고, 판사는 이월드 롤러코스터에서 시보에게 안대를 씌워 무사히 대피 가능성을 증명한다. 당연히 놀이공원은 모두를 위한 공간이다.

The drama is based on an actual incident where a visually impaired person was denied access to an amusement park ride. The judge proves that it is possible to safely evacuate with a blindfold on from the roller coaster at E-World. Indeed, amusement parks should be inclusive spaces for everyone.



DRAMA

<안나라 수마나라> #서울 용마랜드



아라비트하면서 힘든 나날을 보내는 고등학교 아이는 문 닫은 놀이공원에 우연히 발을 들이게 된다. 거기서 만난 의문의 마술사가 아이를 환영하고, 쓸쓸한 놀이공원은 꿈꾸듯 조명이 들어와 빛난다. 불 꺼지고 아무도 찾지 않는 공원 같은 인생에 기적이 일어날까? 용마랜드 풍경이 마술, 기적이라는 단어와 잘 어울리진다.

A struggling high school student with a part-time job visits a closed amusement park. There, she is welcomed by a mysterious magician. It seems that miracles can happen even in the most unlikely of places. The atmosphere of Yongma Land blends well with the words "magic" and "miracle."



예술과 인문학, 강릉역을 가로지른다

수많은 여행자가 교차하는 강릉역에서 문화 행사를 펼쳐 온 가톨릭관동대학교 인문도시사업단 단장 연호탁 교수와 강릉세계합창대회에 대한 짧은 이야기를 나눴다.



윤건근 ©

Q. 강릉역을 무대로 흥미로운 행사를 진행해 온 가톨릭관동대학교 인문도시사업단에 대해 <KTX매거진> 독자님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인문도시사업단은 교육부 산하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인문학 대중화 사업 수행 기구입니다. 인문학 대중화란, 인문학을 매개로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동시에 일상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도록 인문 정신을 함양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업단의 주요 과제는 시민들이 삶의 외연을 확장하는 동시에 행복을 추구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인문 강좌, 인문 체험, 답사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지요.

Q. 5월 13일 강릉역에서 열리는 공연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나요? A. 2023 강릉세계합창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공연으로, '탱고

in 강릉 II, 소리+몸짓'이란 주제에 맞는 음악과 춤의 향연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강릉시합창단과 강릉 라온합창단이 의기투합해 '투우사의 합창'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등을 노래하며 대합실을 멋진 화음으로 채울 예정입니다. 그런 뒤에 왈츠·탱고·퀵스텝·룸바·자이브·스윙·파소도블레 등 화려하고 역동적인 춤을 펼치지요. 고단한 일상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찾고 기쁨을 누릴 기회입니다.

Q. 음악을 사랑하는 여행자에게 2023 강릉세계합창대회를 소개해 주세요. A. 7월 3일부터 13일까지 강릉에서 진행되는 행사로, 강릉과 강릉 사람의 아름다움을 알릴 뿐 아니라 소리의 매력과 하모니의 아름다움을 두루 즐기는 축제가 될 것입니다. 세계합창대회는 독일 인터쿨

[한국철도×2023 강릉세계합창대회]

한국철도가 2023년 강릉세계합창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문화 행사를 선보인다. 서울역에서는 합창단 발굴 TV 프로그램 <싱 포 골드> 본선 진출 3개 팀이, 강릉역에서는 강릉시합창단과 강릉 라온합창단 등이 감동의 무대를 펼친다.

공연일시

·서울역 3층 공연 무대 5월 13일, 20일
11:00~12:00

·강릉역 맞이방(3번 출구) 5월 13일, 6월 3일
14:30~16:00

투르 재단이 주관하고, 2000년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제1회 대회 이래 2년마다 개최해 왔습니다. 이번 대회는 2002년 부산에 이어 한국에서 열리는 두 번째 세계합창대회이며, '평화와 번영'이란 주제로 세계 평화를 노래합니다.

Q. 그간 인문도시사업단에서 주관한 행사가 여럿이지요. 단장으로서 유독 기억에 남는 행사는 무엇인가요? A. 인문학이란 사람과 사람의 삶에 관한 모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인상 깊은 행사라면 지난해 7월 9일 '탱고 in 강릉'을 주제로 강릉역 대합실에서 개최한 플래시몹을

들고 싶네요. 플래시몹이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예고 없이 특정 행동을 취함으로써 깜짝 이벤트를 벌이는 것인데, 강릉역은 여러 사람이 오가는 공공장소이기에 내심 반성이 걱정되었지요. 다행히 많은 분이 호기심과 흥미를 갖고 동참해 주셨고, 행사가 끝난 뒤엔 멋진 공연이라는 호평도 받았습니. 춤이나 음악을 심미적 관점에서만 받아들이고 감상하는 것을 넘어, 인문학적 접근과 해석으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마지막 주에 열린 '인문 주간' 행사에서도 커피로 이룬 강릉 안목해변 백사장에 무대를 설치하고,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강릉의 젊은 음악가와 무용가들을 불러내어 '길거리 클래식: 소리, 몸짓, 숨결'이라는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예술을 향유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인문학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죠.

Q. 5월에 강릉을 방문할 여행자에게 인문학 여행 코스를 귀띔해 주세요. A. 먼저 강릉 김씨 임경당파의 종택 발달인 임경당으로 떠나 볼까요. 학문과 덕행이 뛰어났던 임경당 김씨는 울곡이와 교분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집 주변에 소나무를 심고 가꾸며 청빈하게 살아가던 임경당에게 울곡은 소나무의 귀한 의미를 설명하는 글



'호송설(護松說)'을 지어 주었죠. 이제 강릉 바다와 이어진 초당으로 갑니다. 이곳에선 <홍길동전> 저자 허균과 그의 누이인 문장가 허난설헌, 그리고 이들 못지않은 문재를 지닌 허봉과 허성 형제의 향기를 느낄 수 있죠. 이들의 아버지 허엽의 호가 바로 초당입니다. 경포 호반에 자리한 도서관인 호서장서각 터는 지식 공유를 소중히 여긴 인문주의자 허균의 정신세계를 짐작하게 하지요. 초당의속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강릉 최씨인 최돈철 등이 항일 정신을 고취하고 계몽운동을 하기 위해 초당 솔밭에 설립한 교육기관으로, 몽양 여운형 선생은 이곳에서 자신보다 나이 든 주인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강릉에서 학문에 대한 열망과 의지를 느껴 보시길 바랍니다. ☺

연호탁 가톨릭관동대학교 인문도시사업단 단장으로 강릉을 인문학적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는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여행과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 편의 칼럼을 연재했고, 저서 <문화로 여행하다> <중앙아시아 인문학 기행: 몽골 초원에서 흑해까지> 등을 펴냈다.





비누, 사라짐으로써 존재하기

닿아 없어지는 것을 박제한다.
더없이 찬란한 지금을 위해,
신미경은 비누라는 이름의 시간을 조각한다.



예술 세계에서 사물이나 사상의 우열을 따지고 선후 관계를 짚는 모든 행위는 지극히 사소한 일일 것이다. 무수한 대립과 갈등 속에서 예술은 새로운 길을 내고 지우길 반복했으니, 그 모든 것이 역사의 유장한 물길이다. 이제 <시간/물질: 생동하는 뮤지엄>이라는 전시 제목을 되새긴다. 조각가 신미경에게 쉽게 마모되고 스러지는 비누의 성질은 역설적으로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는 수단이 된다. 수백 년 세월의 더께가 내려앉은 듯한 그의 비누 조각은 언뜻 보아 연혁을 추적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전시 주체인 스페이스 씨의 소장품과 나란히 놓인 까닭에, 무엇이 유물이고 무엇이 작품인지 도통 구분할 수 없다. 시간의 경계가 흐려진 이곳에서 작가는 도리어 시간의 본질에 대해 묻고 있다.

비누, 신미경의 좌표

“1990년대만 해도 영국에선 ‘동양에서 온 작가’가 서양 고전을 깊이 이해하고 정교하게 작업할 수 있다는 걸 꽤 신기하게 바라봤죠.” 신미경은 흔들리는 정체성을 다독이며 유학길에 올랐던 당시를 회고했다. 한국에서 갈고닦았던 작가의 역량은 영국 주류 미술계에서 ‘의외성’으로 받아들여졌다. 그의 기술과 지식의 결과물은 원전으로 읽히기보단 낯선 나라에서 온 동양인의 기예로 여겨진 것이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영국 런던 슬레이드 스쿨 대학원 조소과에서 공부와 작업을 이어 가던 때, 마침 자신에 대해 발표해야 할 일이 생겼다. “당시 지도 교수님 말씀이, 네가 의심하는 걸 논하라고 하더군요. 처음 실마리를 잡은 순간이에요. 의심으로 무언가를 정의할 수 있겠구나 싶었죠.” 비로소 신미경은 자신의 좌표를 찍었다. 특정한 태도나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회의하는 것 그 자체가 예술가의 지평이라는 점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그러곤 심연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편견을 던지고 자신만의 주체성을 세우기 위해서였다.

마침내 비누를 선택했다. 손을 타고 쉽사리 녹아 없어지는 비누의 속성에서 다양한 함의를, 예술적 잠재력을 엿봤다. “어느 날 화장실에서 손을 씻는데 자그마한 분홍색 비누 덩어리를 보고 불그스름한 대리석이 떠올랐어요. 곧장 비누를 집에 가져와서 깎았고, 가능성을 봤어요. 대리석처럼 거대한 비누 조각을 모형화하는 시뮬레이션을 시작했죠.” 그날로 비누 제조업체에 편지를 썼다. 하양, 분홍, 초록, 노랑... 개인이 구하기 힘든 형형색색의 큰 비누 덩어리 4개를 얻었고, 이를 갈아 가루로 만들었다. 학교 복도에 놓인 조각상을 본떠 비누로 빚었는데, 이것이 초기작 ‘번역(Translation)’ 연작의 출발점이다.

<시간/물질: 생동하는 뮤지엄>전

스페이스 씨 개관 2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로, 현대와 고전의 경계를 허물고 동서양의 교차를 꺾으며 다양한 차원의 시간과 물질을 아우른다. 사물이 유물로 변해 가는 과정은 비누라는 일상 소재를 예술 작품으로 환원하는 신미경의 작업과 궤를 같이한다. 6월 10일까지. 문의 02-547-9177



오래가진 않았다. 신미경은 한순간도 멈춰 있기를 거부했다. “단순히 깎아 내는 것을 넘어 다양한 작업 방법을 궁리해야 했죠.” 돌이나 나무를 활용해 형상을 만들어 내는 작업을 구시대의 유산으로 치부하던 시대, 똑같은 작업만 반복한다면 비누라는 소재에 대한 대중의 호기심은 곧 잠잠해지리라 예감했다. “쉽진 않았어요. 비누를 틀에 붓고 굳히는 주물 작업에서 의도치 않은 결과물이 나오곤 했거든요. 비누에 글리세린이 첨가돼 있어 표면이 젖는 문제도 발생했죠. 다만, 미처 예측하지 못한 현상에서 힌트를 발견하는 짜릿한 순간도 있었어요. 작품 표면에 피막을 입혀 윤기를 내는 바니시 작업도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간의 애로 사항과 실패 과정이 이 모든 작품에 녹아 있습니다.”

만들고 허물며 나아가다

신미경은 비누를 다루는 자신의 작업을 일종의 번역 행위라 자평한다. 서양미술사의 조각상이나 아시아 문화권의 도자기처럼, 일상적 삶과 거리가 먼 문화 유산을 비누라는 친숙한 소재로 환원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관심에서 멀어진 것을 환기하고 생각할 거리를 던지는 거죠. 고전은 어떻게 보면 고루하게 느껴지잖아요. 저조차도 왜 박물관에서 유물을 봐야 하는지 늘 의문이었어요.”

그의 말처럼 예술의 역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물과 현상을 다른 측면으로 환기하는 데 의의가 있다. 다만 그런 길을 걷는 동안 고통은 오랜 벗처럼 그의 옆 자리를 파고들었다. 전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비누 담는 거푸집이 터져 2톤 분량의 비눗물이 호수처럼 작업장을 잠식한 재앙 같은 일도 있었고, 쉽게 닳아 없어지는 비누의 특성을 있는 그대로 활용해야 할지 아니면 작품의 수명을 연장하며 새롭게 시간을 덧대야 할지 작품관에 관한 고민을 거듭하던 때도 있었다. 혹은 비누를 계속 주요 소재로 삼아도 될지 고뇌하며 잠 못 이룬 날도 많았다. 이런저런 고민으로 유리와 세라믹 등 몇 년간 다른 소재를 연구함으로써 얼마간 ‘비누 공백기’를 가지기도 했다.

“중국엔 벌어진 모든 일이 자양분이 되더군요. 좋든 싫든 파도처럼 닦쳐와 피할 수 없던 일련의 사건들이 내 정체성을 이루는 조각이 됐습니다. 갈팡질팡하던 생각의 파편과 근원을 알 수 없는 불안, 그 틈바구니에서 갈고닦은 기술이 나를 일궈달까요. 그렇게 타의로 만들어진 상태를 자의적으로 받아들이는 동안 작업이 한층 즐거워졌어요.” 그리고 보면 신미경은 마치 그가 다루는 비누와 꼭 닮았다. 공들여 축조한 뒤 구태여 스스로를 소진하는 모습이 그렇다.

잠시 동안 그는 또 다른 전시가 열릴 미국 필라델피아에 머문다. 비누 운송이 까다로워 현지에서 작업해야 한단다. 그러면서 6톤짜리 비누 덩어리 작업을 예고했다. “1996년 처음 비누로 작업하기로 결심하며 꿈꿨던 일을 이제야 착수하는 셈이죠. 오랜 염원을 실현할 날이 머지않았네요.” 그렇게 그는 또 다른 세계와 기꺼이 충돌한다.

“불안하고 힘들고 때론 허탈해요. 물론 이젠 알아요. 앞으로도 늘 험난할 거예요. 그렇다고 정체해선 안 돼요. 히트곡만 부르는 무난한 가수처럼 되긴 싫거든요. 익숙한 건 뒤로하고, 내가 몰랐던 새로운 일을 시도해 봐야죠. 작가에겐 늘 처음이 있어야 하니까요.”¹⁴



신미경 1967년 충북 청주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와 동 대학원에서 조소를 전공하고, 영국 런던 슬레이드 스쿨과 영국 왕립예술학교에서 수학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영국에 거주하며 비누를 이용해 유물 등 다양한 문화 생산물을 '번역'하는 작업을 선보였다.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세계 각지에서 전시를 열고 국제적 명성을 쌓았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삼성미술관 리움, 서울시립미술관, 미국 휴스턴 미술관, 영국 예술위원회, 영국 브리스톨 미술관 등이 그의 작품을 소장 중이다. 비누를 비롯해 세라믹, 청동, 레진 등 다채로운 물성에 몰두해 작업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Treasure of Korea



아이는 우리의 희망
- 김홍도의 '자리 짜기'

달그락달그락 고드랫돌 부딪치는 소리, 드르륵드르륵 물레 돌아가는 소리, "하늘 천, 따지" 글 읽는 소리가 방안 가득 울린다. 조선 시대 백성의 일상을 그린 김홍도의 작품이다. 아버지가 고드랫돌을 옮기며 자리를 짜는 모습이 어쩐지 어색하다. 머리에 쓴 사방관으로 미루어 양반 신분인 듯 한데, 당시 비천하다 여긴 일을 하는 것이 가난하거나 몰락한 양반 같다. 어머니는 물레질이 익숙한지 실을 벌써 여섯 꾸리나 뽑았다. 구석에 앉은 아이는 책을 본다. 야무지게 막 대기를 쥐고 글자를 하나하나 짚어 가며 읽는다. 서당에서는 무릎 꿇고 공부해야 하지만, 집에서는 편한 자세를 해도 괜찮다. 부부는 아이가 대견스러운지 열심히 일한다. 그들에게 아이는 희망이자 미래라 하겠다. 가정의 달 5월에 깊은 유대감으로 연결된 가족 이야기를 감상해 보자. 이 작품은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이 8월 20일까지 진행하는 <어린이를 찾아라>전에서 만날 수 있다.

Children, the Hope of the Future
- Kim Hong-do's Weaving a Mat

The room is filled with the sound of warp weights hitting the ground, the sound of the spinning wheel, and the sound of a boy reading from his book. This is the scene in Kim Hong-do's painting of daily life in the Joseon Dynasty. The father is wearing a nobleman's hat, but the lowly work he is engaged in speaks otherwise. The mother has already pulled out six threads with her skilled spinning. The boy is reading in a comfortable position, unlike in a Confucian school where students have to kneel and study. For the couple, the child is their hope. With May being the month of family, head to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for the exhibition titled *Find the Children*, which runs through August 20.

Puzzle

<비마이펫 숨은 평남이를 찾아라>
간지리 리리, 고양이 삼색이와, 함께 숨은그림찾기 세계 여행을 떠나자; 비행기 타고 공항을 출발해 중국 베이징, 프랑스 파리, 이탈리아 로마 등을 방문한 뒤 서울로 돌아오는 여정이다. 아기자기한 그림으로 세계 여러 나라와 대표 도시의 특징을 알아본다. 반려동물 관련 지식·정보를 소개하는 비마이펫은 유튜브 채널과 도서를 만날 수 있다. **비마이펫, 박지영 지음 서울문화사 펴냄**
editor. 남혜림 자료 협조 서울문화사, 비마이펫





기차부터 곤돌라까지, 스위스를 여행하는 최고의 방법

한국을 찾은 '스위스 트래블 시스템'의 안드레아스 네프 총괄 매니저와 스위스 자연의 아름다움, 기차 여행의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KTX매거진> 독자 여러분께 스위스 트래블 패스와 매니저님의 업무를 소개해 주세요. 스위스 트래블 패스를 관장하는 마켓 총괄 매니저 안드레아스 네프입니다. 스위스 트래블 패스란 스위스를 찾는 외국인 여행자가 효율적이면서도 풍성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혜택을 눌러 담은 티켓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조직은 스위스 철도청 산하 스위스 트래블 시스템으로, 철도를 비롯해 버스·유람선·케이블카·곤돌라 등 스위스 내 약 2만 9000킬로미터의 대중교통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지요.

이번에 한국을 찾은 계기는 무엇인가요?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한국인 여행자에게 스위스 트래블 패스의 존재감을 널리 알리는 게 목적입니다. 한국은 어느 나라에 비해 스위스 패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현지 배급사 직원들의 열정도 대단한 지역입니다. 주한 스위스 관광청과 레일유럽 한국사무소의 활발한 활동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철도는 물론 스위스를 여행하는 다채로운 이동 수단을 제대로 알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더 많은 여행자가 스위스 트래블 패스를 주목하도록 팬데믹 이후 최신 여행 정보를 업데이트할 계획입니다.

한국에서 5월은 어버이날, 어린이날 등 가족 구성원의 사랑을 되새기는 기념일이 모여 있습니다. 스위스 트래

블 패스를 이용할 가족 여행자에게 최적의 코스를 추천해 주세요. 스위스는 가족 친화적인 나라입니다. 스위스 트래블 패스도 최고의 가족 여행 혜택을 마련하고 있죠. 첫째, '스위스 패밀리 카드'를 소지하면 보호자와 동반한 16세 이하 여행자는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보호자만 스위스 트래블 패스를 구매해도 된다는 뜻이지요. 둘째, 스위스 내 인터시티 트레인 노선에는 가족 전용 객차가 있습니다. 어린이가 뛰놀기 좋은 놀이방을 조성했으니, 보호자는 이동 중 편안히 휴식을 취해도 됩니다. 무엇보다, 기차 여행은 그 자체로 가족에게 행복한 시간을 선사합니다. 차창 너머 흐르는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속 깊은 이야기를 주고받고, 카드나 보드게임을 하면서 애정을 나누는 일은 특별하고도 소중한 경험이지요.

스위스 트래블 패스로 떠나는 여정, 꼭 가져가야 할 물건이 있을까요? 휴대용 컵! 열차 타기 전 마트나 상점에서 스위스 와인 한 병 구입해 그걸 마시며 풍경을 감상해 보세요.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겁니다. 일주일 이상 여행할 계획이라면 김치도 챙기세요. 스위스엔 한국처럼 맛 좋은 김치가 흔치 않거든요. 스마트폰은 당연히 가져가실 거죠? 전자 탑승권을 제시하거나 사진을 찍을 때 말곤 휴대전화는 잠시 쉬도록 꺼 두어도 좋겠네요. 스위스 트래블 패스로 누리는 볼거리, 즐길 거리가 훨씬 흥미진진하니까요.



+ 스위스 트래블 패스 여행자를 위한 특별 혜택

5월 14일까지 스위스 트래블 패스를 구매하는 고객에 한해 4일권은 1일 추가, 8일권은 2일 추가 이용 혜택을 제공한다.

EVENT

<KTX매거진> x 레일유럽이 스위스 트래블 패스를 선물합니다!

5월 1일부터 14일까지 스위스 트래블 패스 증정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메일로도 참여 가능하며 <KTX매거진> 인스타그램에서 내용을 확인하세요!

[@ktxmagine](#)



스위스 사람처럼 여행하고 싶다면, 스위스 트래블 패스를 이용하세요. 기차나 버스는 대중교통이야말로 스위스인의 일상 그 자체거든요. 저는 한때 취리히에서 베른까지 통근 열차를 타고 다녔는데, 승객 중엔 스위스 연방평의회 의원이 둘이나 있었습니다. 스위스 트래블 패스는 사람과 문화, 정치, 역사, 자연을 가장 가까이서 느끼는 여행법입니다.

문근기 ©

도전! 웹툰왕

#제13회 #일요신문 #만화공모전

총상금 7000만원, 일요신문 x 서울미디어코믹스

일요신문이 제13회 일요신문 만화공모전 '도전! 웹툰왕'을 개최합니다. 총상금 7000만 원을 걸고 K-콘텐츠 주인공을 찾습니다. 출판만화부터 웹툰·웹소설까지 아우르는 콘텐츠 전문 기업 서울미디어코믹스가 당선작 선정 및 연재 과정에서 전문적인 서포트를 합니다.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대상

우수상 1500만원

3000만원

가작(3인) 각 500만원

결선진출 장려금(10인) 각 100만원

응모 대상

현직, 아마추어, 타 공모전 출품작, 공개된 작품 모두 응모 가능 (단 수상작, 판권 계약 완료된 작품은 제외)

접수처

일요신문 홈페이지(ilyo.co.kr) 만화공모전 코너

선발 과정

- 예심에서 10개 작품 선정해 최종 결선 진행
- 결선에 오른 작가는 추가 3화분 제출(장려금 100만 원 지급)

접수 기간

2023년 4월 10일(월) ~ 7월 23일(일)

접수 방법

작품 1회 분량(가로 650픽셀, 40MB 이내, jpg)과 시놉시스를 압축해 zip 파일로 업로드

지구촌 소식



축제 & 전시



아랍에미리트 식도락 천국, 두바이 푸드 페스티벌

올해 10주년을 맞은 두바이 푸드 페스티벌이 도시 전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5월 7일까지 진행되는 축제는 지금까지의 여정을 돌아보며 아랍에미리트 전통 요리 에미라티를 포함한 전 세계 미식 문화를 활짝 펼친다. 파인다이닝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두바이 레스토랑 워크 등 풍성한 이벤트와 액티비티를 만끽한다. 문의 www.dubaifoodfestival.com



투어 & 액티비티

타이 방콕의 밤을 책임질 수제 칵테일 바 팝업

반짝이는 방콕의 긴긴 밤, 매혹적인 수제 칵테일 일에 빠진다. 137 필라스 스위트 앤 레지던스 방콕 28층에서 도시를 굽어보는 잭 베인스 바가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단 3일간 미국 시카고의 다이닝 바 쿠미코의 칵테일을 선보인다. 쿠미코에서 독창적인 칵테일을 설계해 온 유명 바텐더 줄리아 모모세의 손길을 느낄 기회다. 그는 2022년 요식업계 아카데미상이라 부르는 '제임스 비어드상'을 수상했으며, 저서 <칵테일의 길>은 출간 당시 최고 요리책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다. 이번 팝업 행사에서는 올드 패션드, 위스키 사워를 비롯한 클래식 칵테일은 물론 헤드 바텐더 타본 웬야이의 홈메이드 타이 칵테일에 이르는 온갖 음료를 맛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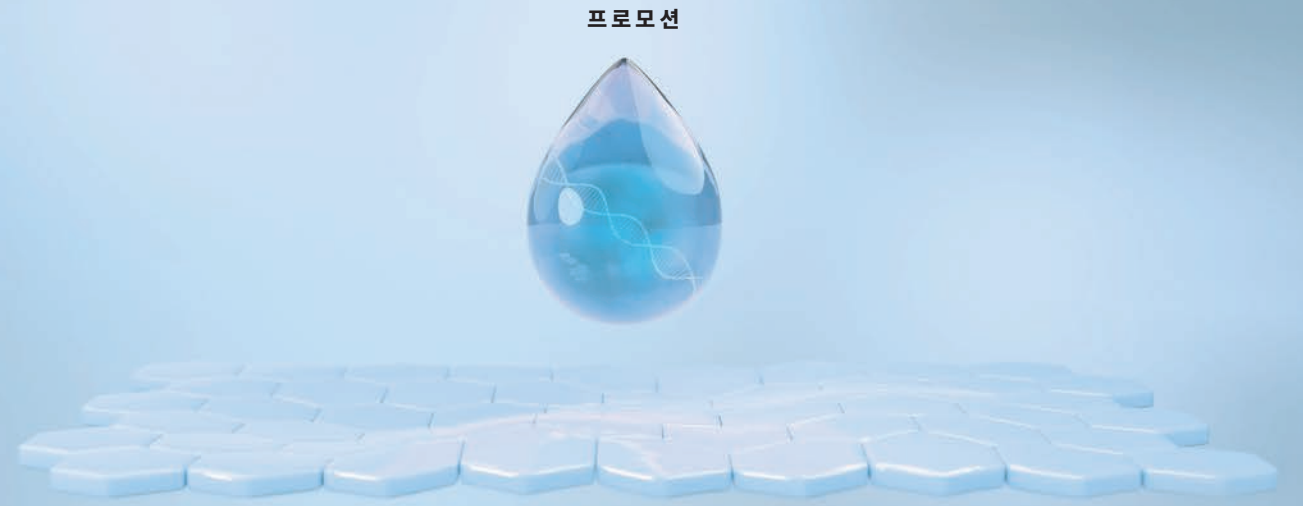
문의 137pillarshotels.com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 환승 여행객을 위한 투어 재개

싱가포르관광청이 창이공항그룹, 싱가포르항공과 함께 운영하는 무료 싱가포르 투어를 2년 만에 재개한다. 기존 시티 사이트 투어·헤리티지 투어·주얼 투어에 웰니스와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즐길 거리를 더했고, 창이 국제공항 주변 동쪽을 둘러보며 싱가포르 동부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창이 지구 투어를 새롭게 구성했다. 투어 대상은 최소 5시간 30분에서 최대 24시간까지 싱가포르에 머무는 환승 여행객이다. 모든 투어는 약 2시간 30분 동안 영어로 진행된다. 창이 국제공항 공식 홈페이지에서 예약 가능하며, 추후 일일 투어 횟수를 늘려 총 9회 운영할 예정이다. 문의 www.changiairport.com



호텔 & 레스토랑



프로모션

거꾸로 먹는 건강 나이, 줄기세포 치료 프로그램 프리주비네이션

누구보다 활기찬 삶, 건강한 생활을 꿈꾸는 당신에게 청담셀의원의 줄기세포 치료 프로그램 프리주비네이션을 권한다.

원하는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필수 요소는 무엇일까. 바로 건강이다. 체력이 떨어지고 여기저기 불편한 곳이 생기면 지극히 평범하고 무탈했던 일상이 순식간에 버거워진다. 누군가에게는 이런 현상이 은퇴를 앞당기는 결정적 계기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일까, 성별이나 연령과 무관하게 건강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최종 목표는 노화를 지연시키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물리적 나이가 아닌 '건강 나이'이다.

노화 예방의 핵심, 프리주비네이션

항노화 전문가인 조찬호 청담셀의원 대표원장은 "나이가 들어도 청년기의 체력과 외모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의료 기관에서 건강을 이어가기 위한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라고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건강관리의 핵심은 건강할 때 노화를 예방하는 '프리주비네이션(예방 목적의 재생술)'이다.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라는 유행가 가사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대목이다.

조 원장은 프리주비네이션을 일종의 '노화 예방주사'라고 설명한다. 프리주비네이션 치료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줄기세포다. 이는 자가 재생 능력과 분화 능력을 가진 원시세포다. 청담셀의원은 줄기세포 효과에 주목해 전반적인 체력 저하와 노화된 몸을 개선하는 줄기세포 정맥주사 '청셀(淸Cell)'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성체 줄기세포를 채취해 링거로 주입, 전신 재생 작용을 활발히 하는 것이다.

이 밖에 줄기세포를 타깃 부위에 집중 투여해 젊음을 잃어 가는 국소 부위의 회복을 기대해도 좋다. 성 기능을 증진하는 '성셀(性Cell)', 피부 탄력을 높이고 주름을 개선하는 '미셀(美Cell)', 두피를 튼튼하게 만들어 탈모를 치료하는 '모셀(毛Cell)', 인대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 주는 '활셀(活Cell)' 등이 여기 속한다. 이 모든 치료 프로그램은 유전자 검사로 자신의 건강 취약점을 미리 인지하고 바이오마커 검사로 현재의 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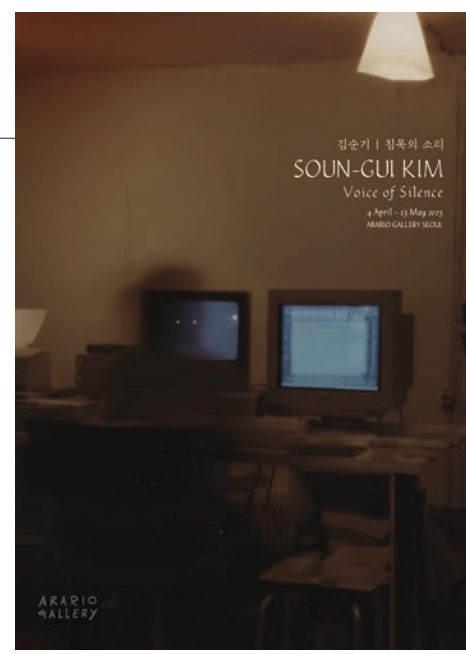


상태를 명확히 파악한 뒤 맞춤 처방으로 이루어진다. 이 또한 자신의 상태를 앞서 파악하고 관리에 나서는 프리주비네이션 치료의 중요한 단계다.

생활 속에서 건강을 유지하는 법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해서 일상 속 건강관리를 소홀히 해선 안 된다. 적어도 1년에 2~3회 병원을 찾아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조 원장은 "아프거나 노화가 많이 진행되기 전 건강한 몸과 외모를 오래 유지함으로써 활기찬 인생을 설계하는 게 건강은 물론 경제적인 면에서도 유리하다"라고 힘주어 말한다.

청담셀의원은 '헬스케어 디자인'을 지향하는 의료 기관으로 줄기세포를 활용한 전신 항노화 치료에 특화됐다. 특히 한국에서 골수-지방 줄기세포를 모두 활용하는 극소수 의료 기관 중 하나다. 조선일보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메디컬 헬스케어 대상' 항노화줄기세포치료 부문에서 5년 연속 수상하기도 했다. 병원을 이끄는 조찬호 원장은 줄기세포에 관한 연구로 의학 석·박사 학위를 받은 항노화 의학 전문가다.



<침묵의 소리>

장난기 어린 바람을 닮은 김순기의 작품이 도착했다. 사진·영상·사운드·퍼포먼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동서양의 예술과 철학을 가로질러 온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주가지수와 절간의 영상을 포켓 '주식정원-템플', 바늘구멍 카메라를 활용해 자연광으로 사물을 담아낸 '바보 사진' 등을 선보여 고요한 사유의 순간을 안긴다. **기간** 5월 13일까지 **문의** 02-541-5701(아라리오갤러리 서울)

Culture

<제이알: 크로니클스>

"예술이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장소에 예술을 선보이고 싶다." 첨예한 사회문제를 공공 예술로 풀어내 관심과 소통을 유도해 온 거리의 아티스트 JR을 만날 시간이다. 한국에서 열리는 그의 첫 번째 대규모 회고전으로, 작품 140여 점을 통해 그라피티부터 '페이스트업(paste-up)' 작업에 이르는 그의 예술 세계를 들여다본다. **기간** 5월 3일~8월 6일 **문의** 1544-7744(서울 롯데뮤지엄)



(위)JR, Migrants, Mayra, Picnic across the Border, Tecate, Mexico—U.S.A., 2017. Installation image. Wheel-pasted poster on table. © JR-ART.NET (위)JR, au Louvre et le Secret de la Grande Pyramide, 30 Mars 2019. 6h50 © Pyramide, architecte I. M. Pei, musée du Louvre, Paris, France, 2019. © JR-ART.NET



<헬로 베이비>

한국의 출생률이 세계 최저 수준이지만, 한편에는 아이를 낳으려 온갖 노력을 다하는 사람도 있다. 소설은 변호사·기자·수의사 등 다양한 직업군의 난임 여성이 '헬로 베이비'라는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서로 응원하며 위로하는 이야기기를 담았다. 시술 과정이 얼마나 지난한지, 우리가 알아야 할 또 하나의 세계를 보여 준다. **김의경** 지음 **은행나무** 펴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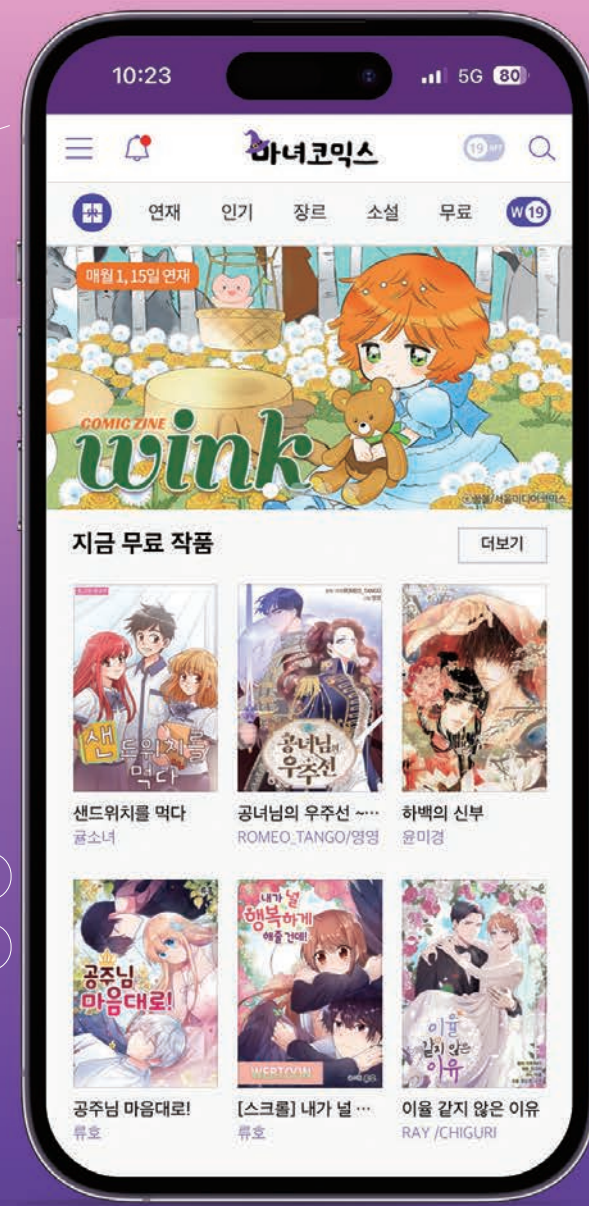
<히말라야, 길을 묻다>

일간지 사진기자로 일한 20여 년 차에 180일 동안 파키스탄과 인도, 네팔의 히말라야 2400킬로미터를 중주했다. 한 동안은 그 시간을 뭐라 설명해야 할지 모를 만큼 그저 벅찼다. 찬찬히 정리하고 다듬은 글과 사진에 히말라야 자연과 사람을 향한 따스한 경외심이 가득하다. 2014년 초판본에 이어 이번에 개정판을 냈다. **이훈구** 지음 **워크컴퍼니** 펴냄



피어나는 상상, 또 하나의 마법 마녀코믹스

대한민국 최강 만화 잡지 <아이큐점프>와 최고 순정 만화 잡지 <윙크>의 명성 그대로! '마녀코믹스'가 선사하는 신박한 재미와 진한 감동을 직접 느껴 보세요!



가볍게는 무한 점프!

인생작 정주행은 '마녀코믹스'에서!

-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재미
- #시간순삭KTX
- #고품격웹소설

- #엔네아드
- #초격차인기웹툰
- #배타적연애금지구역

www.mcomics.co.kr

마녀코믹스를 검색하세요!



마녀코믹스

Culture

MOVIE



<드림팰리스>

산업재해로 남편을 잃은 혜정과 수인의 시각으로 아파트 미분양 사태 등 사회문제를 날카롭게 짚는다. 둘은 진상 규명을 위해 함께 싸운 사이지만, 합의금을 받고 싸움을 멈춘 혜정과 달리 수인은 다른 유가족들과 여전히 농성하는 길을 택한다. 혜정은 그런 수인에게 합의금을 받고 새 집으로 이사 가라며 부추기기 시작한다. 남편의 목숨과 바꾼 아파트 드림팰리스를 지키려는 혜정과 수인의 관계가 얽히고설킨다. 5월 개봉.

감독 고성문 출연 김선영, 이윤지

<말 없는 소녀>

1981년 아일랜드의 작은 마을, 아홉 살 카이트는 부모님의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아 어머니의 사촌인 에블린 부부에게 맡겨진다. 처음 본 친척과 살게 된 카이트는 새로운 환경이 낯설지만 하고, 무뚝뚝한 이모부 선은 모든 것이 못마땅하다. 어색했던 둘은 농장 일을 함께 하며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진짜' 가족 같은 유대감을 느낀다. 아일랜드 작가 클레어 키켄의 소설 <포스터>가 원작이다. 5월 개봉. 감독 콤 바이레아드 출연 캐서린 클린치, 캐리 크로울리



<토리와 로키타>

벨기에 영화 감독 다르덴 형제의 작품이다.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온 열한 살 토리와 열여섯 살 로키타는 벨기에의 난민 쉼터에서 만나 마음을 나누는 가족이 된다. 친남매처럼 의지하며 사는 이들은 이 땅에 정착하려고 하지만, 로키타는 체류증을 받지 못한다. 누나와 함께 살고 싶은 토리와 취직해서 토리를 학교에 보내고 싶은 로키타가 서로의 보호자가 되어 각박한 현실에 맞선다.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작이다. 5월 10일 개봉.

감독 장 피에르 다르덴, 뤼크 다르덴
출연 파블로 실스, 줄리 음분두



<웃음을 잃지 마세요>

흑과 백으로 이루어진 무대에 광대가 주인공 공으로 등장한다. 타인의 만족을 위해 분장을 덧칠하던 그는 이제 본래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무대는 극의 흐름에 따라 분장실, 커다란 분장대, 벽, 감옥 등으로 변해 광대의 서사를 구체화한다.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표현한 블랙코미디 무용극이다. 기간 5월 7일~11일 장소 서울 국립정동극장 세실 문의 02-751-1500



<룩셈부르크 필하모닉>

20년 만에 룩셈부르크 필하모닉이 한국을 다시 찾는다. 레퍼토리는 드보르자크의 '첼로 협주곡'과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제5번'. 2021년 제오르제 에네스쿠 국제 콩쿠르 최연소 우승자인 첼리스트 한재민이 협연자로 나서 기대를 모은다. 공연은 인천에 이어 서울, 경남 진주, 대구에서도 열린다.

일시 5월 24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아트센터인천 문의 032-453-7700

MOHS



BANHAL BUAN

부산 여행에 반할 즐거움

반할부산

2인 최저가

22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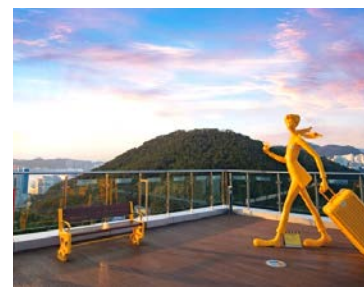
KTX 왕복 + 렌터카 48H

KTX 타는 순간 시작되는 여행

- 여행일 2023년 05월 ~
- 포함 내역 서울-부산 2인 왕복 KTX 승차권 렌터카 48시간 1대
- 불포함 내역 여행차 보험, 식대, 숙박, 개인경비
- 상품가 **229,000원** (아반떼 대어 기준 가격)



해운대 블루라인 파크



송도 해상 캐리비카

YOUCAR RENTAL CAR

KTX역에서 바로 타는 유카!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대여 지점 안내 : KTX 부산역 아스티호텔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214번길 7-8 아스티호텔 1층 106호
차종 : 아반떼, K3
차량 업그레이드 (쏘나타, K5) : + 30,000원
차차 보험 : 현장 결제



01 해동용궁사

검푸른 바닷물이 바로 발아래서 첩첩대는 수상 범당

부산 기장군 기장읍 용궁길 86



02 수영 요트경기장

해운대 광안리 바다의 화려한 풍경과 감동은 요트 위에서 즐기다!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84 와우요트

*'요트 투어' 별도 문의 시 가능



03 부산타워

부산의 모습을 더욱 다채롭고 풍요롭게 즐길 수 있는 타워

부산 중구 용두산길 37-55



04 감천문화마을

한국관광 100선 5회 연속 선정된 부산의 역사를 간직한 마을

부산 사하구 감내2로 203

*승차지역 및 인원 조정 문의는 상담 부탁드립니다.

*성수기의 경우 예약 날짜에 따라 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차 운행조정, 기차 잔여좌석 사정으로 인해 기차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정을 추천해 드리는 자유여행으로 여행자의 편의에 따라 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는 기차여행 패키지입니다.





Letters from Readers



<KTX매거진>을 보고 나서



영월이 그대에게

여행 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KTX매거진> '테마 여행' 기사를 읽고 다음 여행을 기대해 봅니다. 단종의 유배지 청령포와 고씨굴 등 강원도 영월의 모습이 궁금하네요. 다음에는 영월로 시간 여행을 떠나야겠어요!

박하나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



살랑살랑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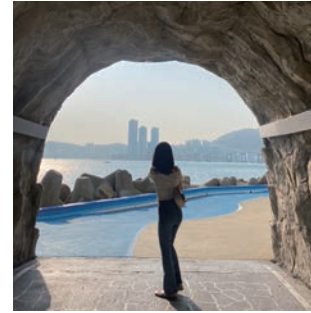
서울 가는 길에 특별 부록을 보았습니다. 다섯 지역의 볼거리, 먹거리와 여행 코스를 알차게 소개했더군요. '필요한 분은 가져가세요'라는 문구를 보고, 소중한 선물을 받은 것처럼 손에 꼭 쥐고 내렸습니다.

김미진 부산시 연제구 명륜로

독자 편지를 보내 주세요!

<KTX매거진>을 읽은 소감과 독자님의 여행 사진을 기다립니다. KTX@seoulmedia.co.kr로 독자 평과 들려주고픈 이야기, 추억이 담긴 사진을 보내 주세요(사진은 600KB 이상). 메일에 이름, 연락처, 주소를 꼭 기재해 주세요. 마감은 5월 15일입니다.

기차로 여행하면서



수업이 끝나자마자 부산으로 향하는 KTX에 몸을 실었습니다.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는 제게 즉흥적인 여행은 큰 도전이었지만 흰여울문화마을, 부평강통시장, 부산항, 해동용궁사까지 알차게 둘러봤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풍경과 추억이었어요. 이지수 인천시 부평구 동수천로

독자 편지에 선정된 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KTX매거진> 독자 편지에 선정된 분께는 자연에서 온 100퍼센트 천연 유기물질 풀빅산을 함유해 두피 탄력 및 모공 관리,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약산성 풀빅 헤어 샴푸 & 토닉 세트(7만 원 상당)를 선물로 드립니다. 허수오 뿌리, 병풀, 창포 뿌리, 어성초 등 식물성 원료 6종이 예민해진 두피 건강에 도움을 주어 가늘고 힘없는 모발을 튼튼하게 해 주는 기능성 제품입니다.



제품 문의 1522-9158



Information



제13회 철도사진공모전 '기차 여행'

단정호



- 098 한국철도 소식
- 106 편의 시설 및 부가 서비스
- 108 열차 이용 안내
- 110 비상시 행동 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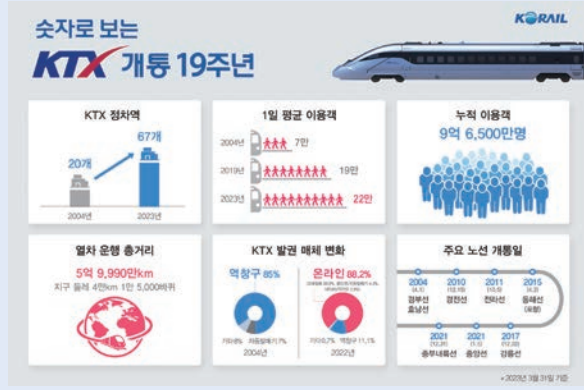




KTX 개통 19주년맞이 행사

KTX가 지난 4월 1일 개통 19주년을 맞았다. KTX는 그간 9억 6000만 명을 싣고 전국 여덟 개 노선을 누비며 지구 둘레 1만 5000바퀴와 맞먹는 5억 9000만 킬로미터를 달렸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인 약 5000만으로 나누면 한 사람당 19회 이상 KTX를 탄 셈이다. 이에 한국철도는 4월 1일 오전 서울역에서 고객 감사 이벤트를 열고 서울역 이용객 300명에게 KTX 기장과 승무원 제복을 활용한 인기 캐릭터 상품 'KTX 기장 라이언'과 'KTX 승무원 어피치' 키링을 선착순으로 증정했다. 또 2004년에 개통한 KTX를 기념하기 위해 4월 1일과 2일 KTX 운임 할인 쿠폰 2004매와 철도역 매장에서 사용 가능한 5000원 금액권 2004매를 선물하는 경품 추첨 이벤트도 함께 진행했다.

1



한국철도, 베트남 철도에 기술 전수

한국철도가 베트남 철도 궤도 분야에 안전 관리 역량 강화 기술을 성공리에 전했다. 지난 3월 한국철도 기술아카데미와 KTX 차량 기지 등에서 10일간 진행된 초청 연수는 베트남철도공사 호 흐우 호아 회장 직무 대행과 임직원 15명이 참석했다. 한국철도는 차량, 고속 선로 등 안전 관리 이론을 강의하고 차량정비단, 시설사업소 등을 함께 방문하는 등 철도 노하우를 전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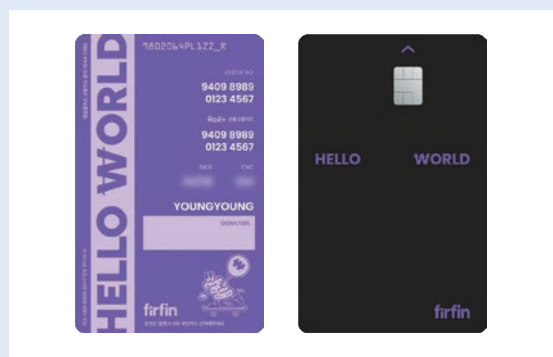
4



KTX 동반석으로 즐기는 가족 여행

5월, KTX 타고 알뜰하게 가족 여행을 떠난다. 한국철도가 5월 한 달간 다자녀 가구와 임신부에게 KTX 동반석 4인 세트 상품을 할인해 준다. 할인 대상은 다자녀 가구 또는 임신부 정보를 등록한 한국철도 멤버십 회원으로, 모바일 앱 코레일톡이나 홈페이지에서 예매 시 어른 운임의 50퍼센트 할인을 일괄 적용한다. 대상 열차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운행하는 KTX다.

5



선불형 용돈 카드 '퍼핀'에 레일플러스 기능 추가

한국철도가 용돈 선불 카드 '퍼핀'에 전국 호환 교통 카드 '레일플러스' 기능을 제공한다. (주)레몬트리가 개발한 퍼핀은 선불형 용돈을 충전하는 플랫폼으로, 소비 내역을 보호자와 앱으로 공유할 수 있다. 한국철도는 전철 등 대중교통 비용을 별도로 충전해 사용하는 시스템을 퍼핀 카드에 추가했다. 레일플러스 교통 기능을 이용하면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할인 등 레일플러스 기본 혜택이 적용된다.

2



수도권 전철 환승역에 관리 인력 집중 배치

수도권 전철 열네 개 환승역에 질서 유지 전담 인력을 배치한다. 약 90명의 전담 인력은 서울역, 왕십리역 등 출퇴근 시간대 환승 이용객이 많은 역 승강장과 계단, 에스컬레이터에서 이용객 동선을 관리하고 무리한 탑승 방지 등 분산 승차를 안내한다. 또 승강 시설 고장,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고와 사용 중지 등 신속한 비상 조치도 담당한다.

3



KTX-이음 타고 혜택 받으세요

중부내륙선 KTX-이음 이용 활성화를 위해 4월부터 5월까지 할인 행사를 펼친다. 승객 2인 또는 3인이 중부내륙선 동일 구간을 함께 여행하는 경우, 열차 운임을 50퍼센트 할인하는 '둘/셋이서 반값' 상품을 내놓았다. 중부내륙선을 처음 이용하는 한국철도 멤버십 회원에게는 승차권 운임 100퍼센트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철도 홈페이지(www.letskorail.com)에서 확인하자.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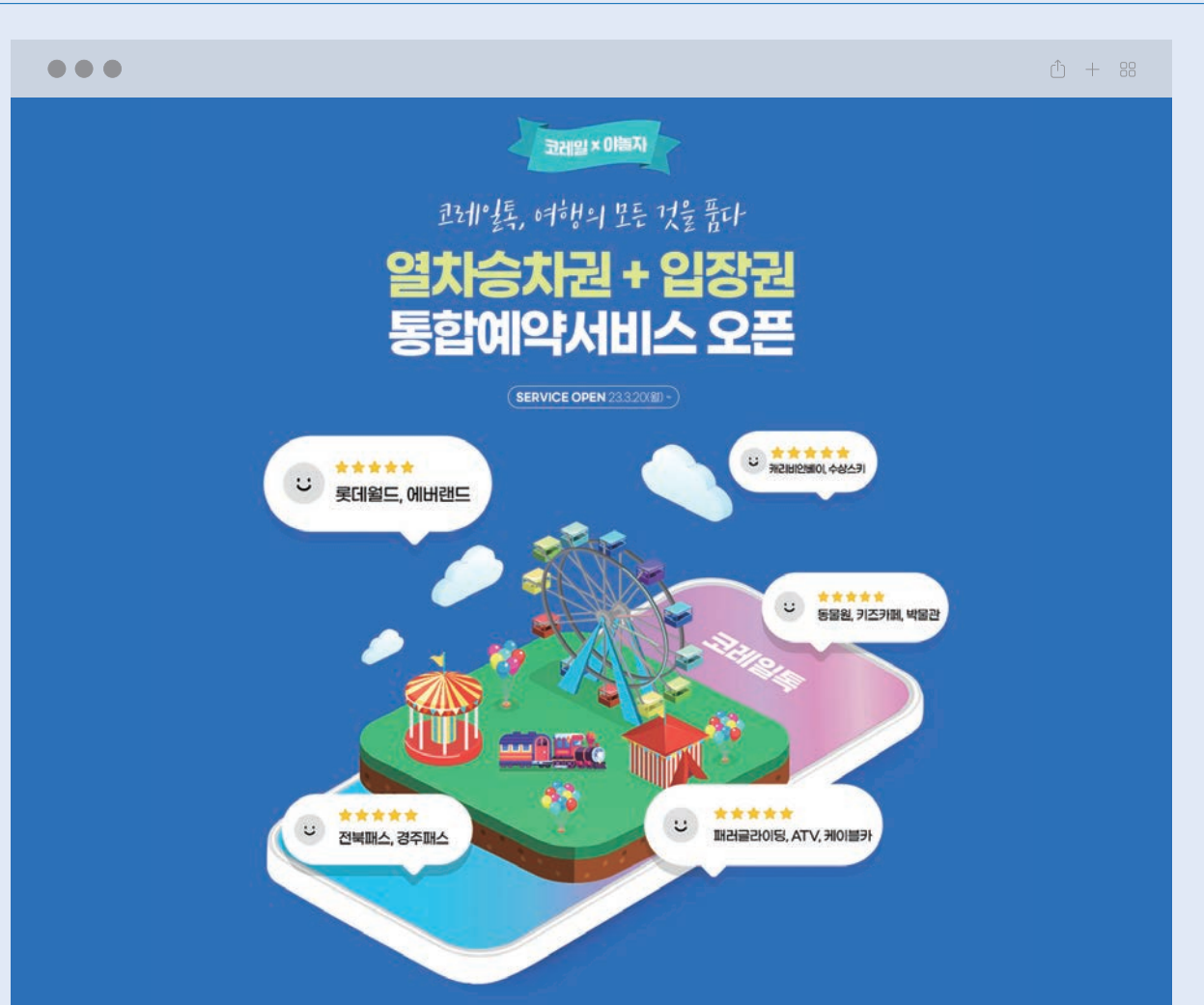
경기도 광명역 공항버스 이용객 증가

경기도 광명역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운행하는 KTX 공항버스 이용객이 지난해보다 약 48퍼센트 증가했다. 해외여행객이 늘어난 데다 인천국제공항과 KTX 연계 이용의 편리함, 짧은 이동 시간 등이 이런 추세에 영향을 끼쳤다. 공항버스는 오전 5시부터 오후 8시까지(광명역 출발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66회 운행 중이며, 오는 7월부터 20회 증편할 계획이다.

7



ALL THAT KORAIL SERVICE



코레일톡, 여행지 입장권 통합 예약 서비스 개시 코레일톡으로 승차권 예약 시 여행지 입장권도 함께 결제하세요

화창한 날씨가 마음을 간질이는 요즘, 사랑하는 이와 기차 여행 계획을 세우는 이에게 희소식이 있다. 한국철도가 여가 플랫폼 '아놀자'와 손잡고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서 주요 여행지 입장권을 열차 승차권과 동시에 결제하는 통합 예약 서비스를 출시했다. 우선 기존 승차권 예약 방법대로 코레일톡에서 승차권을 고른 후, '승차권 정보 확인' 창에서 '제휴 상품' 버튼을 눌러 원하는 여행지의 입장권을 선택한다. 코레일톡 앱 하나로 열차 운임 비용과 함께 여행지 입장권까지 결제가 가능하다. 전국

155개 역과 연계해 1033개 여행지의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으니 여행이 더욱 편리해지겠다. 코레일톡 통합 예약 서비스는 여행지 입장권 외에도 숙박, 대중교통, 렌터카, 카 셰어링, 관광 택시 등 여행 상품에 열차 운임 비용을 합쳐 한 번에 결제하는 시스템을 제공한다. 여러 홈페이지에서 복잡하게 결제하는 것이 번거로웠다면, 이번 서비스가 고민을 말끔하게 해결해 줄 것이다. 기차 여행을 준비할 때 코레일톡을 활용해 다채로운 여행 콘텐츠를 둘러보며 손쉽게 계획을 세워 보자.



열차 안에서 이루어지는 따뜻하면서도 발랄하고 유쾌한 로맨틱 코미디!

3월의 어느 날, 오늘도 어김없이 운행하는 무궁화호 일반열차.
각자의 이야기를 품은 사람들이 기차에 오른다.
내일로를 떠나고, 짝사랑하는 친구와 여행을 하고,
이별을 준비하고, 친구를 만나러 가는 네 사람.
그런데 마주보고 돌아가지 않는 좌석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동승 아닌 동승을 하게 되는데...

내일로 여행객에게는 60% 티켓 할인을 제공합니다(내일로 이용 기간에 관계없이 내일로 티켓 소지 시 할인 적용 가능).
할인 방법 네이버, 인터파크 티켓 사이트에서 예매 시 '코레일 할인' 선택(1인당 4매까지 할인 적용, 입장 시 내일로 티켓 제시)



친절 직원을 소개합니다



고객의 편지

퇴직 후 매주 강릉을 오가면서 한국철도를 자주 이용합니다. 나이가 적지 않아 휴대전화로 결제하는 것이 서툰 까닭에, 창구에서 승차권을 구매하기 위해 역을 방문했습니다. 문제는 일반 승차권을 사려다가 실수로 정기 승차권을 발권한 것이었죠. 애타는 마음에 '고객의 소리'에 글을 남겼습니다. 배선미 팀장님은 전화 상담으로 한국철도 약관 등을 제시하며 공제 금액에 대해 상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신속한 응대와 정확한 설명에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배선미 팀장님의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철도 고객마케팅단 서비스혁신처 배선미 팀장

고객님이 남긴 문의 글을 확인하니 원하는 답변 방식 유형을 SMS로 선택하셨더라고요. 글자 수가 한정된 SMS로는 고객님의 약관 등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우시니 전화로 안내하면 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겠다고 판단해 직접 전화를 드렸습니다. 당황스러우셨을 고객님의 마음에 공감하며 승차권 반환에 대한 수수료 약관을 설명했습니다. 반환 절차를 직접 도와드리고, 수수료가 발생하는 부분도 정확하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했음에도 감사하다는 말을 남겨 주셔서 저 또한 고객님의 감사드립니다.



한국철도를 이용하며 기억에 남는 친절 직원이 있다면 한국철도 홈페이지(info.korail.com) 고객의 소리로 언제든 알려 주세요.

제9회 2023년도 철도의 날 기념

철도문학상 공모전

공모분야 : 산문 및 운문(시상은 통합)

작품주제 : 철도를 주제로 한 작품

2023.4.17. ~ 5.28.

●참가부문
초등, 중등, 고등, 일반인(대학생 포함)
※ 등단 문인 제외

●심사발표
2023년 6월 중순
(한국철도문화재단 홈페이지)

시상 (총상금 1,500만원)

- 대상 1명
국토교통부 장관상 (상장 및 상금 300만원)
- 최우수상 4명
한국철도협회 회장상 (상장 및 상금 200만원)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상 (상장 및 상금 200만원)
한국철도공사 사장상 (상장 및 상금 200만원)
SR 사장상 (상장 및 상금 200만원)
- 우수상 2명
한국철도문화재단 이사장상 (상장 및 상금 100만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상 (상장 및 상금 100만원)
- 장려상 20명
한국철도문화재단 이사장상 (상장 및 상금 10만원)

응모방법

- 이메일 접수 : krcf@hanmail.net
- 이메일 제목과 첨부파일명 : 참가부문-장르-이름
예) 이메일 제목 : 초등-시-홍길동
예) 첨부 파일명 : 초등-시-홍길동 (참가신청서 및 작품)
- 참가신청서 홈페이지 다운로드 : www.krcf.kr 철도문학상 공모 배너
- 작품 제출 서식 : 한글파일 (제목 24p, 본문 13pt, 바탕체, 왼쪽정렬)

유의사항

- 국내외 타 공모전, 문학지 등에 출품되지 않은 본인의 순수한 창작품이어야 함
- 응모작품은 반환되지 않으며, 표절 또는 이전에 발표된 작품인 경우 당선 취소
- 소속, 이름, 간단한 약력 및 연락처는 참가신청서에만 기재
- 기존 철도문학상 수상자는 응모 불가

● 문의
한국철도문화재단 철도문학상 담당자
email : krcf@hanmail.net



철쭉의 계절, 충북 단양으로 떠나는 기차 여행 단양 소백산철쭉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온갖 꽃과 풀이 생기와 아름다움을 뽐내는 5월, 충북과 경북의 경계를 이루는 소백산 자락에 철쭉이 연분홍빛 수를 놓는다.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충북 단양에서 철쭉을 주제로 '제39회 단양 소백산철쭉제'가 펼쳐진다. 단양역 앞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면 축제장인 소백산 정상까지 10분 정도 걸린다. 소백산 신에게 축제의 성공을 기원하는 소백산 산신제로 축제의 막을 올린다. 철쭉 분재 및 야생화 전시, 철쭉 화분 만들기, 꽃차 시음, 압화 체험, 힐링 콘서트, 봄바람 버스킹 페스티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축제장이 활기를 띤다. 소백산철쭉제에서 연분홍빛 설렘을 느끼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 시간이다. 기차 승차권과 연계해 당일로 도담삼봉, 만천하스카이워크 등을 여행하는 단양 기차 여행 상품도 준비했다. 서울 청량리역, 대전역, 동대구역 등에서 출발 가능하다.
문의 042-253-7960(한국철도 대전역 여행센터)



제39회 단양 소백산철쭉제
5월 31일~6월 4일

장소 충북 단양군 상상의 거리, 소백산 일원
주요 행사 철쭉 화분 만들기, 힐링 콘서트, 봄바람 버스킹 페스티벌 등
문의 043-420-2551~5(단양군청 문화예술과)



단양다누리아쿠아리움

'바다 없는 충북'에서도 단양은 천혜의 남한강을 품은 고장이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을 영리하게 이용해 한국 최대 민물고기 생태관을 조성했다. 2012년에 개관해 올해로 11주년을 맞은 단양다누리아쿠아리움은 면적이 약 1만 4400제곱미터(4350여 평)에 이른다. 국내외 민물고기 234종, 약 2300마리가 높이 8미터에 달하는 대형 수족관을 비롯해 다양각색으로 꾸민 수조를 유유히 헤엄친다. 남한강의 귀족이라 부르는 황쏘가리, 중국에서 건강과 행운을 의미하는 홍룡, 아마존에 서식하는 피라루쿠 등 희귀 물고기가 반겨 주는 물속 생태계와 만난다.

단양 가볼 만한 곳



만천하스카이워크

약 90미터 절벽 위에서 남한강을 내려다보고, 하늘을 걷는 스릴을 만끽한다. 만천하전망대에 서면 단양 시내와 소백산 연화봉이 한 눈에 들어온다. 두 개의 고정된 와이어 로프로 길이 980미터를 활강하는 만천하 짚와이어, 최고 속도 시속 40킬로미터의 모노레일을 타고 숲속을 탐험하는 알파인 코스터가 짜릿함을 선사한다.



수양개빛터널

일제강점기에 조성한 이후 수십 년 동안 방치된 수양개터널이 최신 영상, 음향 시설, LED 미디어 파사드 등으로 단장해 멀티미디어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길이 200미터, 폭 5미터의 터널을 '빛'을 주제로 꾸렸다. 5만여 개 LED 꽃으로 완성한 꽃밭 비밀의 정원과 휘황찬란한 빛의 무지개가 반짝거리며 공간을 채운다.

편의 시설

일반 객실

Passenger Compartment

<p>좌석 간격 Seat Space</p> <p>KTX 930mm</p>	<p>등받이와 시트 조절 Seat Adjustment</p> <p>의자 팔걸이 버튼을 누르면서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시트를 앞으로 미십시오.</p>	<p>이동통신망 Free Wireless Internet Service</p> <p>열차 내에서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p>	<p>충전용 콘센트&USB 포트 Socket&USB Port</p> <p>열차 내에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p>
--	--	--	--

특실 서비스

First Class Service

<p>좌석 간격 Seat Space</p> <p>KTX 1120mm</p>	<p>등받이와 시트 조절 Seat Adjustment</p> <p>의자 팔걸이 버튼을 누르면서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시트를 앞으로 미십시오.</p>	<p>식음료 Refreshment</p> <p>특실 이용객을 위한 셀프 서비스 물품은 KTX 3, 4호차와 KTX-산천 4, 14호차에 있으며 특실 생수 자판기는 KTX 3, 4호차 지정 장소에 있습니다.</p>	<p>KTX 미니 도서관 KTX Mini Library</p> <p>단행본은 KTX 4호차와 KTX-산천 3, 13호차, 잡지·신문은 KTX 3, 5호차와 KTX-산천 3, 13호차 지정 장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p>
---	--	---	---

AMENITIES

편의 시설

Amenities

<p>화장실 Restroom</p> <p>KTX 1, 2, 4, 6, 8, 11, 13, 15, 17, 18호차와 KTX-산천 3, 5, 6, 8, 13, 15, 16, 18호차와 KTX-이음 1, 6호차와 ITX-새마을 1, 4, 6호차와 ITX-청춘 3, 6호차에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p>	<p>장애인 관련 시설 For the Handicapped</p> <p>전동휠체어석과 장애인용 화장실은 KTX 2호차와 KTX-산천 1, 11호차와 KTX-이음 3호차와 ITX-새마을 3호차와 ITX-청춘 3호차에 있습니다.</p>	<p>수유실 Breast-Feeding Room</p> <p>유아 동반 고객을 위한 수유실이 KTX 8, 16호차와 KTX-산천 4, 14호차와 KTX-이음 4호차와 ITX-새마을 6호차와 ITX-청춘 6호차에 있습니다.</p>	<p>물품 보관소 Luggage Storage Section</p> <p>각 객차에 위치한 수화물 보관대에 여행용 가방 등 큰 물건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p>
<p>자동심장충격기 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p> <p>자동심장충격기는 KTX 4, 10, 15호차와 KTX-산천 4, 14호차와 KTX-이음 3호차와 ITX-새마을 3호차와 ITX-청춘 3호차에 마련되어 있습니다.</p>	<p>자동판매기 Vending Machine</p> <p>음료 및 스낵 자판기가 KTX 5, 9, 11, 13, 16호차와 KTX-산천 2, 6, 12, 16호차와 KTX-이음 3, 4호차와 ITX-새마을 3, 4호차 지정 장소에 있습니다.</p>	<p>의약품 First-Aid Medicine</p> <p>KTX 열차 내에 상비약이 준비되어 있어 승무원에게 요청하면 필요한 약품을 제공합니다.</p>	<p>금연 No Smoking</p> <p>역 승강장과 열차 안은 모두 금연 구역입니다. 안전한 열차 운행과 건강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p>

1분 열림 버튼
Open-Button(1mins)

1분 열림 버튼 The Button to Open the Door for 1 Minute
각 객실 출입문 위쪽에 위치하며, 누르면 1분 동안 문이 열립니다.

열차 지연 배상 안내

천재지변을 제외한 한국철도공사 귀책 사유로 KTX 및 일반 열차 (ITX-새마을, 누리로, 무궁화호, ITX-청춘)가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 정한 금액을 배상해 드립니다(지연 승낙 승차권 제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지연 발생 시 익일 자동 배상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지연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전국 역 또는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코레일톡 계좌 이체 신청

KTX 및 ITX-청춘 N카드 이용 안내

모바일 앱 할인 카드인 N카드를 구간과 횟수를 지정해 구입하면 승차권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KTX 및 ITX-청춘을 자주 이용하시는 고객님의 해당 할인 카드도 교통비를 절감해 보세요!

구입 경로 및 이용 안내
코레일톡 앱 → 하단 할인·정기권 탭 → N카드(안내는 ①참고)

* 자세한 사항은 철도고객센터(1544-7788, 1599-787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X 공항버스

6770번, 광명역 ↔ 인천국제공항

운행 시간 오전 5시 20분~오후 8시 (광명역 기준, 30~40분 간격)

소요 시간 (T1 ↔ 광명역) 약 50분, (T2 ↔ 광명역) 약 75분

타는 곳 (광명역) 서편 4번 출구 4번 정류장 (인천국제공항) T1 1층 8B번, T2 지하 1층 45번 정류장

승차권 구입
(인천국제공항 → 광명역) 인천국제공항 버스 매표소
(광명역 → 인천국제공항) 전국 기차역, 코레일톡 등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길라잡이

Rail+

철도 회원이 KTX 승차권을 Rail+카드로 구매 시 1퍼센트 추가 적립, 모바일카드는 KTX 마일리지 전환 사용 가능

교통카드 구매처 편의점(CU, 이마트24, 스토리웨이)
모바일카드 다운로드 '레일플러스' 스마트폰 앱(Android, iOS)
사용처 전철, 버스, 기차, 택시, 유료 도로, 편의점 등
충전처 전철·기차역, 편의점(CU, 이마트24, 스토리웨이) 등

* 자세한 사항은 레일플러스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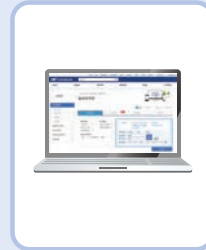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종류
대중교통안심카드 하이패스 R+ 교통카드

railplus.korail.com
QR코드를 스캔하면 레일플러스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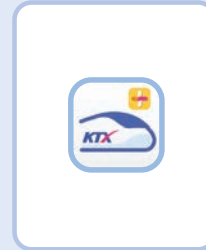
열차 이용 안내

승차권 구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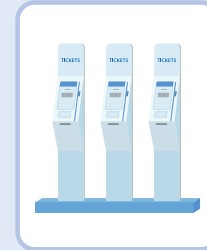
- 열차 출발 1개월 전부터 열차 출발 20분 전까지(코레일톡은 열차 출발 전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결제 금액 5만 원 이상 시 신용카드 할부 결제가 가능합니다.
- 결제 후 스마트폰 승차권, 홈티켓으로 직접 발권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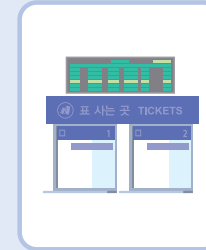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letskorail.com)



'코레일톡'
스마트폰 앱



승차권
자동 발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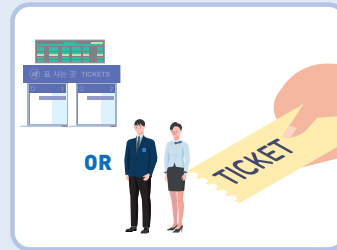
기차역 내 창구
또는 승차권 판매 대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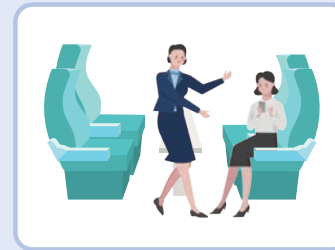
'네이버' '카카오'
스마트폰 앱

승차권 분실

- 회원번호, 신용카드 등으로 승차권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금액 반환이 가능합니다.
입석과 자유석 승차권, 분실한 승차권이 변경 또는 반환된 경우, 재발행한 승차권을 반환 또는 변경하거나 도착역 전에 내린 경우 승차권 반환 불가능



역 창구, 열차승무원에게 운임·요금을 다시 지불하고 분실한 승차권 재발급



열차승무원에게 분실 승차권 미사용 확인 요청



역 창구에서 승차권 금액 반환
(최저 반환 수수료 제외)

승차권 반환

- 승차권 반환 시에는 환불 청구 시각, 승차권에 기재된 출발역 출발 시각 및 영수증 금액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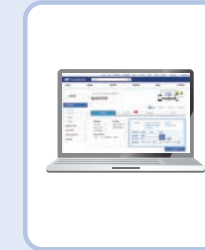
구분	출발 전		
	1개월~출발 1일 전	당일~출발 3시간 전	3시간 전 경과 후~출발 시각 전
월~목요일	무료		5%
금~일요일, 공휴일	400원(구입일 포함 7일 이내 환불 시 감면)	5%	10%

구분	출발 후(역 창구에서 환불 신청)		
	20분까지	20분 경과 후~60분	60분 경과 후~도착
월~목요일			
금~일요일, 공휴일	15%	40%	70%

PASSENGER GUIDE

Ticket Book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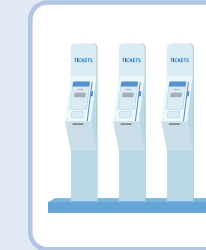
- Tickets can be purchased one month in advance and up to 20 minutes before departure (before departure in KORAIL Talk application).
- Installment option available if paying more than KRW 50,000 by credit card.
- Tickets issued as smartphone ticket or home ticket after pay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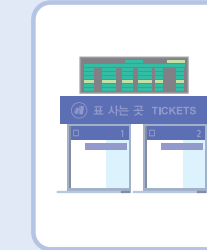
Let's KORAIL Website
(letskor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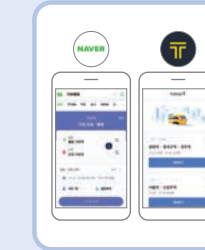
KORAIL Talk
Mobile App



Ticket Vending
Mach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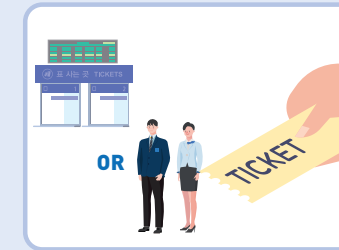
Ticket Booth
or Ticket Retail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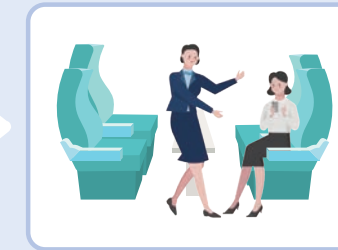
NAVER · KAKAO T
Mobile App

Ticket Loss

- Refunds may be provided for ticket purchases made using the KORAIL membership number or a credit card.
Not applicable to standing tickets, change of lost tickets, change of reissued tickets, and unused sections from alighting before the destination station.



Pay fees at the ticket booth
or to the on-board crew to
reissue your ticket.



Check with the on-board crew that
your lost ticket is unus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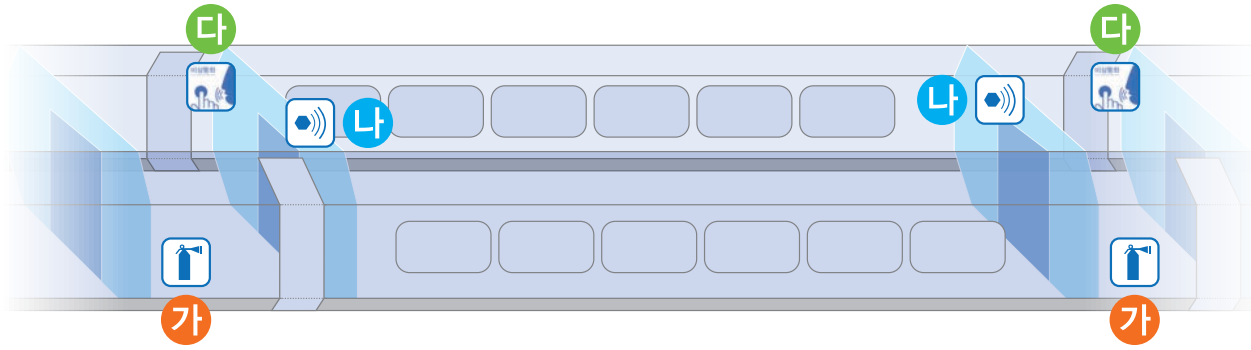
Receive a refund for your lost
ticket at the ticket booth.
(excluding service charge)

Ticket Refund

- Ticket refund value is calculated based on the time of refund claim, departure time specified on the ticket, and original price of ticket on the receipt. Note that a service charge appl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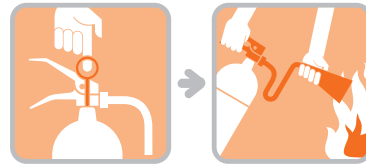
Classification	Before Departure		
	1 month-1 day prior to departure	Day of departure-3 hours prior to departure	3 hours-before departure time
Mon-Thu	Free		5%
Fri-Sun, holidays	KRW 400 (Free within 7 days from date of purchase)	5%	10%

Classification	After Departure (Request refund at ticket booth)		
	Up to 20 minutes	20-60 minutes	60 minutes-arrival time
Mon-Thu			
Fri-Sun, holidays	15%	40%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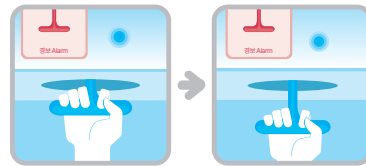
가 소화기 사용 요령
How to Use a Fire Extinguisher

- 승강문 옆 수화물실 아래에 있는 소화기를 꺼내 안전핀을 뽑는다.
Take out the fire extinguisher from the box next to the exterior door and pull the pin.
- 불이 난 장소에 골고루 분사한다.
Spray evenly at the area that is on fire.



나 비상 알람 장치
Emergency Ala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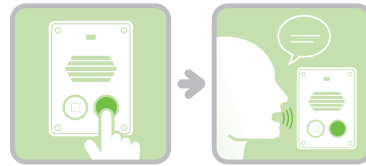
- 객실 내부 출입문 상단의 적색 손잡이를 아래로 당긴다.
Pull down the red emergency alarm handle located at the upper part of the interior door.
- 비상 경보음이 객실 전체에 울린다.
The emergency alarm goes off.



다 승무원 통화 장치
Contacting the Train Cr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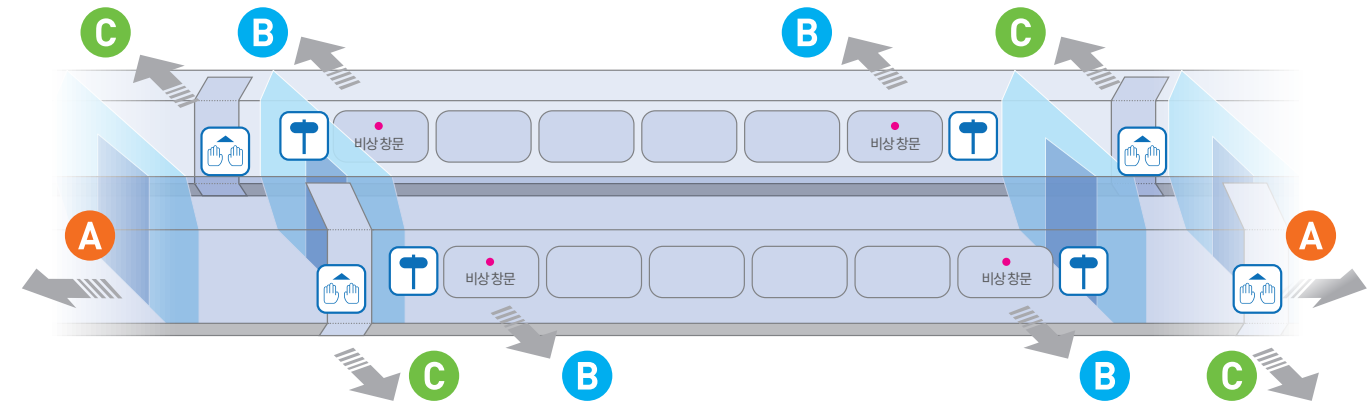
KTX | KTX 산천 | KTX 이음

- 승강문 옆의 버튼을 누른다.
Press the intercom button next to the exterior door.
- 승무원이 응답하면 상황을 알린다.
Notify the train crew of the situation.



ITX 새마을 | ITX 향촌

- 승강문 옆 또는 객실 안에 있는 승객용 비상 호출기 커버를 연다.
Open the emergency intercom box beside at the door or inside the car.
- 마이크를 꺼낸 후 적색 램프가 켜지면 마이크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상황을 알린다.
Take out the microphone. Once the red light is on, press the button on the left of the microphone and inform the situation.



A 다른 객차로 대피
Escape to an Unaffected Car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다른 객차로 안전하게 대피한다. 부상자, 노약자, 임산부가 먼저 피신할 수 있도록 돕는다.
Follow instructions of the train crew and move to an unaffected car. Provide assistance to evacuate wounded, elderly people and pregnant women first.

A 터널 탈출 요령
Escape from a Tunn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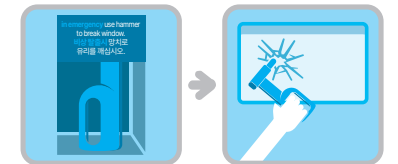
터널 내 비상사태 시 자세를 낮추고 비상 유도등을 따라 가까운 터널 입구로 탈출한다.
Follow the emergency exit light to go out the tunnel exit.

A 비상 사다리 위치
Emergency Ladder Location

KTX: 5호차, 14호차 | KTX-산천: 2호차(일부 편성 4호차)
KTX-이음: 1호차, 6호차 | ITX-새마을: 4호차

B 비상 창문을 통한 탈출
Escape through Emergency Window

- 승강문 탈출이 불가능할 경우 객실 양쪽 끝에 있는 비상 탈출 망치의 보호커버를 깨고 망치를 꺼낸다.
If you cannot escape through the exterior door,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hammer box at both ends of each car and take out the hammer.
- 양 출입문 쪽에 있는 비상 창문 유리를 망치로 깨고 옷으로 창틀을 덮은 후 그 위로 나간다.
Break the emergency window at both ends of each car and exit. Put clothing over the windowsills to protect yourself from broken glass.



C 승강문을 통한 탈출
Escape through Exterior Door

KT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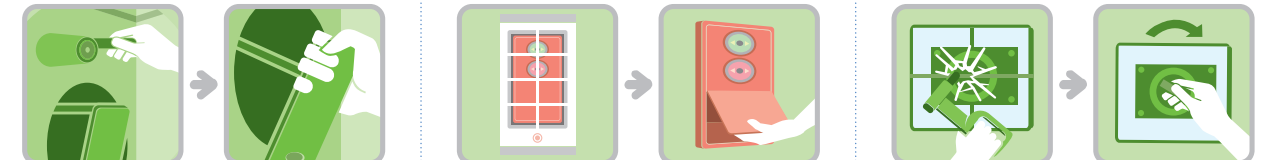
- 승강문 옆 위쪽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고 위 손잡이를 아래로 돌린다.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release levers next to the exterior door and pull the upper handle down.
- 아래 손잡이를 앞으로 당기고 승강문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lower handle down and push the door.

KTX 산천 | KTX 이음

- 승강문 옆 위쪽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다.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release level next to the exterior door.
- 핸들을 2회 당기고 승강문을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handle twice and push the door.

ITX 새마을 | ITX 향촌

- 승강문 옆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다.
Break open the emergency door release box.
-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승강문을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lever to the right. Push door forward and to the side.



Epilogue



언제나 기차, 오로지 기차, 결론은 기차

일상으로 돌아가는 징후가 역력한 요즘, 행사 초대나 해외 관광청의 취재 요청도 쏟아진다. 유럽 철도 여행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레일유럽 행사에 갔다가 그리운 신복주 소장님을 오랜만에 뵙고 다양한 소식을 들었다. 그 가운데 하나. 프랑스가 기차로 2시간 30분 이내 거리는 항공기 이용을 금지했다는 이야기였다. 2021년 5월 뉴스에 나왔건만 불민한 내가 놓쳐서 몰랐다. 철도가 구석구석을 연결하는 유럽은 기차로 다니기 최적의 여행지다. 파리~로마 구간을 2명이 기차로 이동할 경우 탄소 배출량이 비행기의 22분의 1 수준이라는 사실에 기차 여행 잡지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으쓱해졌다. 한국에서 유럽까지 기차 타고 가는 길은 얼마나 낭만적이며 친환경적일까. 마침 서울 용산역사박물관의 옛 기차를 재현한 의자에 앉아 그 여정을 모니터로 감상했다. 와, 설렘. 어서 가고 싶어요. **김현정**

오래오래 만나요, 우리

안동 하회마을에서 가일마을로 이동 중이었을 것이다. 라디오 소리에 반쯤 귀를 연 채였는데, '경북 유일의 예술 영화 전용관, 안동 중앙시네마란 멘트에 눈이 번쩍 뜨였다(3월호 '편집 후기'에 언급했듯 지역의 작은 영화관에 관심을 쏟고 있다). 일정을 마치자마자 거리로 나섰다. 안동문화원과 옹부공원을 지나 영화관 앞에 도착했다. 한데, 조금 특이하다. 영화관 간판이 오락실 옆에 걸렸다. 가만히 보니 '중앙시네마 3F'라고 적혔다. 아... 영차영차 지친 다리를 이끌고 3층에 도착, 호기심 어린 눈으로 영화관 곳곳을 살폈다.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기 전까지 사용했던 아날로그 영사기를 구경했고, 직원 윤동희 씨와 짧은 대화도 나눴다. 그저 우연히 예술 영화가 좋아졌다는 그의 말을 곱씹으면서, 이런 공간이 오래오래 곁을 지켜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훗훗한 밤이었다. **강은주**



연두색을 표현하는 법

기사에 자주 등장하지는 않으나, 제가 좋아하는 단어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안온하다, 말랑말랑, 돌멩이, 데굴데굴... '연두연두'라는 표현도 그렇습니다. 사전에 등재된 단어는 아닙니다만, 저는 곧잘 꺼내 쓰곤 해요. 연두빛으로 물들어 생기를 한껏 머금은 나뭇잎을 보면 저 표현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맑고 아름다운 색이 존재하더니! 그 색을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저것 봐, 나뭇잎이 엄청 연두연두해!"라고 말하고 마는 것이죠. 표현이 주는 느낌과 어감이 부드러워서 막냇동생과 대화할 때 부러 사용하기도 합니다. 밀양 위양지에서 만난 황선미 문화관광해설사님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온갖 초록이 가득한 위양지를 거닐다가 저처럼 연두빛을 표현하시더라고요. 반가운 마음에 함박 웃었습니다. 초록빛으로 물든 주변을 보세요. '연두연두'하지 않나요? **남혜림**

Puzzle

87쪽 초성 퀴즈 정답: 모나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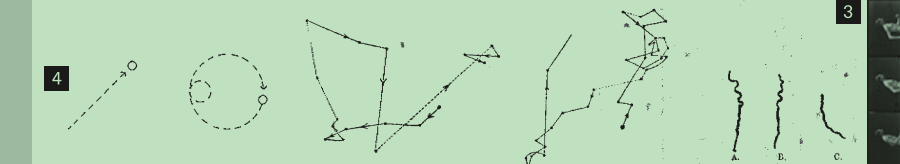
2023 ACC CONTEXT: Walking, Wandering

April 27- September 3, 2023

ACC Creation Space 3 & 4, Asia Culture Center

2023 ACC

2023.4.27. - 9.3. 컨텍스트: 걷기, 헤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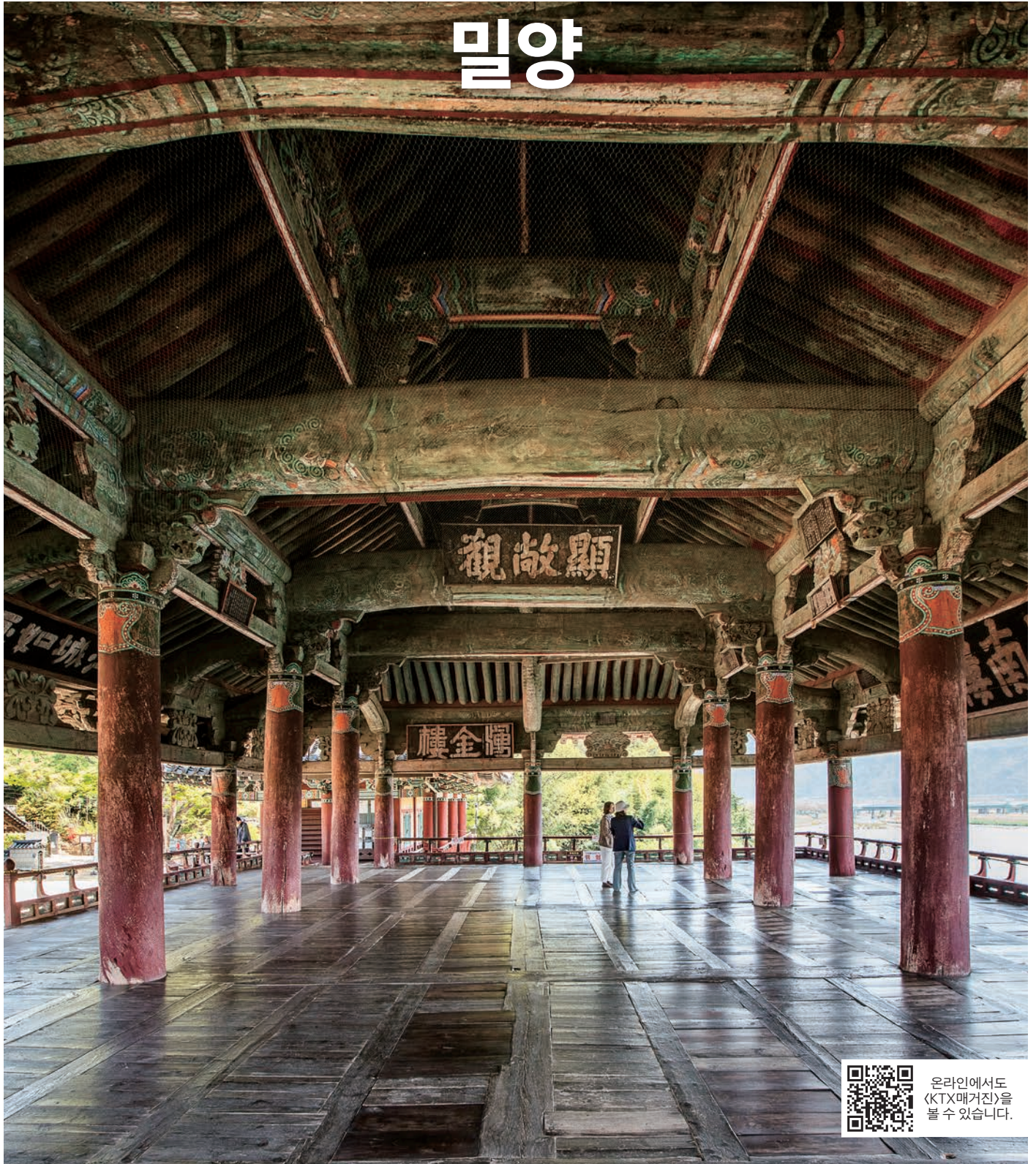
강동주, 김방주, 김재민이, 량즈위 + 사라 웡, 레지나 호세 갈린도, 리스투터시티, 리 카이 청, 마리나 아브라모비치, 미라 리즈키 쿠르니아 박고은, 새로운 질서 그 후, 이창운, 프란시스 알리스

Dongju Kang, Bangjoo Kim, Gemini Kim, Leung Chi Wo + Sara Wong, Regina José Galindo, Listen to the City, Lee Kai Chung, Marina Abramović, Mira Rizki Kurnia, Goeun Park, After New Order, Changwoon Lee, Francis Alÿs

바로 지금, 여행

KTX

밀양



광고 문의 02-799-9175



온라인에서도
<KTX매거진>을
볼 수 있습니다.

꿈같은 초록의 날에, 밀양